

<최종연구보고서>

경기도·중국 대학 간 협력강화 및 중국대학 유치 타당성 연구

연구책임자 : 구자역(서경대학교)
공동연구자 : 박영진(용인대학교)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권주형(숭실대학교)
김주석(중부대학교)

2016. 2. 29.

서경대학교 한국학교컨설팅연구소

<목 차>

I. 서론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3
II. 한·중 대학 간 국제교류 현황 및 사례	4
1. 한·중 대학 간 국제교류 현황	4
가. 학생 교류 현황	4
나. 대학 간 교류	16
다. 언어교육 교류	26
2. 한·중 대학 간 국제교류 사례	28
가. W대학의 대중국 교류	28
나. H대학의 대중국 교류	31
3. 과제 및 시사점	34
III. 중국 대학의 국제화 정책 및 사례	36
1. 중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흐름	36
2. 중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	38
가. 우수인재 유치 정책	38
나. 외국대학 유치정책(중외대학합작교류)	41
3. 중국 대학의 해외진출 및 유입사례	54
가. 중국 대학의 해외 진출 사례	54
나. 외국 대학의 중국 진출 사례	57
다. 과제 및 시사점	65

IV. 국내 해외 대학 유치 현황 분석	70
1. 국내 해외 대학 유치관련 법 및 제도.....	70
가. 현행 국내 해외 대학 유치관련 법 및 제도의 현황.....	70
나. 현행 국내 해외 대학 유치관련 법 및 제도의 문제점.....	73
다. 현행 국내 해외 대학 유치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75
라. 합작 대학 현행 국내 해외 대학 유치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79
2. 국내 타 지역의 외국대학 유치 및 진출 현황.....	87
가. 국내 외국대학 유치 현황.....	87
나. 국내 외국대학 유치 사례.....	91
다. 국내대학의 외국 진출 현황 및 사례.....	95
라. 과제 및 시사점.....	97
V. 중국 대학의 경기도 유치 타당성 검토	99
1. 경기도의 특성 및 외국 대학 유치 관련 여건	99
가. 경기도의 특성	99
나. 중국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우수 인력 유치의 필요성	103
다. 경기도의 해외 대학 교류 협력 현황 및 여건.....	107
라. 중국 대학 유치관련 여건 분석.....	113
마. 과제 및 시사점.....	116
2. 중국 대학의 경기도 진출에 대한 요구.....	119
가. 설문조사 개요.....	119
나. 설문조사 결과.....	120
다. 시사점.....	131
3. 중국 대학의 경기도 유치 타당성 검토	132
가. 타당성 분석 근거.....	132
나. 타당성 분석 결과.....	138

VI. 경기도와 중국 대학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	148
1. 경기도와 중국 대학 간 교류협력을 위한 원칙.....	148
가. 원칙.....	148
나. 실천 과제의 추출.....	150
2. 경기도와 중국 대학 간 교류협력을 위한 실천과제.....	152
가. 한·중 교류확대.....	152
나.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155
다. 한중 유학생 지원 체제 개발.....	158
라.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 인재 양성.....	161
마. 한중 대학교류 확대 방안.....	165
VII. 정책 제언	171
1. 정책 제언의 기저.....	171
가. 경기도·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유치정책 마련.....	173
나. 협력 강화의 목표를 명료화	174
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지역 특성화 정책	175
라. 대학별 특화된 협력강화 모형을 위한 정책 지원.....	176
마. 정책의 정교화 및 법적, 제도적 보완.....	176
바. 협력강화 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177
2. 경기도·중국 대학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78
가. 서머스쿨 교류방안을 통한 학교 간 교류활성화 정책	179
나. 교육교류기금 마련과 인턴교류 지원확대 정책.....	181
다. 합작대학 설립을 통한 경기도·중국 간 교육협력 정책	183
3. 아젠다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	186
가.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한 한중 교류 확대	187
나.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190
다. 한중 유학생 지원 체제 개발.....	191
라.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 인재 양성.....	193

마. 한중 대학교류 확대 방안.....	194
-----------------------	-----

참 고 문 헌	197
----------------------	------------

〈표 차례〉

〈표 2-1〉 주요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	5
〈표 2-2〉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기관의 국제화 유형.....	5
〈표 2-3〉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추이.....	6
〈표 2-4〉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2015년).....	7
〈표 2-5〉 유학 형태별 유학생 추이.....	7
〈표 2-6〉 대학 학부단계의 어학연수 및 본과유학생(2015년).....	8
〈표 2-7〉 석사과정 유학생.....	8
〈표 2-8〉 박사과정 및 기타연수과정 유학생.....	9
〈표 2-9〉 국내 중국인 유학생수 추이.....	10
〈표 2-10〉 중국유학생 고등교육단계의 전공과정(2015년).....	10
〈표 2-11〉 경기도내 대학 외국 유학생 현황(2015년).....	11
〈표 2-12〉 경기도내 대학별 외국 유학형태 및 기숙사 수용 현황(2015년).....	12
〈표 2-13〉 중국 내 한국 유학생 수.....	14
〈표 2-14〉 중국 내 한국대학 진출 현황.....	17
〈표 2-15〉 경기도내 대학별 산동성내 교류대학 및 교환학생수.....	18
〈표 2-16〉 경기도와 산동성 간 복수학위제 실시 현황.....	20
〈표 2-17〉 대학별 교류대학 및 단기연수 현황.....	21
〈표 2-18〉 대학별 교원 교류 현황.....	21
〈표 2-19〉 기타 교류 현황.....	22
〈표 2-20〉 심천가상대학원 주요 입주대학 교육프로그램 유형 (2013년 기준).....	23
〈표 2-21〉 심천가상대학원 주요성과 (2013년 기준).....	25
〈표 2-22〉 중국 내 한국 세종학당 진출 현황.....	27
〈표 2-23〉 W 대학의 중국유학생 유학형태.....	28

<표 2-24> W 대학의 거주형태-기숙사 수용 여부.....	28
<표 2-25> W대학 외국 유학생 현황(2015년).....	29
<표 2-26> H대학의 중국유학생 유학형태.....	31
<표 2-27> H대학의 기숙사 수용 여부.....	31
<표 2-28> H대학 외국 유학생 현황(2015년).....	32
<표 3-1> 중외대학합작의 발전과정.....	37
<표 3-2> 중국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 현황.....	38
<표 3-3> 중국 합작 대상국의 분포 현황.....	42
<표 3-4> 합작대학 운영정책의 발전과정.....	44
<표 3-5> 중외합작학교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	46
<표 3-6> 대륙별 외국 유학생 수(2007년~2012년).....	48
<표 3-7> 중국의 외국 유학생 수 국가 순위(2007년~2012년).....	49
<표 3-8> 중외합작학교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	49
<표 3-9> 2000년 이후 공포한 외국 유학생 관련 문건.....	50
<표 3-10> 공자학원 설치 국가 현황.....	56
<표 3-11> 합작유형별 중외합작대학명칭 및 현황(독립법인 및 단과대학 형태).....	57
<표 4-1> 중화권 대학의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상황.....	87
<표 4-2> 정부의 외국대학 유치 계획안.....	89
<표 4-3>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	91
<표 4-4>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 현황(2015년 현재).....	96
<표 5-1> 2020년 4대 목표 및 8대 기본과제.....	102
<표 5-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	104
<표 5-3> 주요 해외국가 창업비자 도입 현황.....	105
<표 5-4> 경기도 지역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관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	108
<표 5-5> 자매결연 체결지역 현황 (10개국 15개지역).....	109
<표 5-6> 경기도 대학 현황.....	110
<표 5-7> 우호(경제)협력 체결지역 (14개국 18개지역).....	111
<표 5-8> 산동성과의 교육 분야 추진사업 현황.....	111
<표 5-9> 기타지역과의 교육 분야 추진사업 현황.....	112
<표 5-10> 한-중 정부수준 교류 내용.....	113

<표 5-11> 설문조사 문항 구성	120
<표 5-12> 해외대학 설립경험 유무	121
<표 5-13> 해외대학 설립형태	121
<표 5-14> 해외대학 설립 시 학위유형	122
<표 5-15> 해외대학 설립 시 개설학과	122
<표 5-16> 해외대학 설립의향	123
<표 5-17> 해외대학 설립국가	123
<표 5-18>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이유	124
<표 5-19>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형태	124
<표 5-20>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위유형	125
<표 5-21>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위인증 유형	126
<표 5-22> 한국 내 중국 대학 개설학과	126
<표 5-23> 한국 내 중국 대학 적정학비 수준	127
<표 5-24>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생 및 교수규모	127
<표 5-25>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생비율	128
<표 5-26> 한국 내 중국 대학 교수비율	129
<표 5-27>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129
<표 5-28>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시 지원 요구사항	130
<표 5-29> 타당성 분석 준거	137
<표 6-1> 실천과제와 실천영역	151
<표 6-2> 한·중 교류 연간 소요 예산	154
<표 6-3> 한중 비즈니스 센터 운영 연간 소요 예산	157
<표 6-4> 한중 유학생 지원체제 개발 소요 예산	161
<표 6-5>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인재 양성 소요 예산	164
<표 6-6> 한중 교류확대방안 소요 예산	167
<표 6-7> 한·중 대학 간 교류활동을 위한 소요예산 총괄표	168
<표 6-8> 한·중 대학 간 교류활동을 위한 실천과제별 소요예산 총괄표	168

〈그림 차례〉

〈그림 2-1〉 국가별 외국 유학생의 점유율(2012)	4
〈그림 2-2〉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7
〈그림 2-3〉 베이징대 본과 한국유학생 전공분포도(2011~2012)	15
〈그림 5-1〉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추이	103
〈그림 5-2〉 기능별 인력수급현황('12, 명)	106
〈그림 5-3〉 해외대학 설립경험 유무	121
〈그림 5-4〉 해외대학 설립형태	121
〈그림 5-5〉 해외대학 설립 시 학위유형	122
〈그림 5-6〉 해외대학 설립 시 개설학과	122
〈그림 5-7〉 해외대학 설립의향	123
〈그림 5-8〉 해외대학 설립국가	123
〈그림 5-9〉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이유	124
〈그림 5-10〉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형태	125
〈그림 5-11〉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위유형	125
〈그림 5-12〉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위인증 유형	126
〈그림 5-13〉 한국 내 중국 대학 개설학과	126
〈그림 5-14〉 한국 내 중국 대학 적정학비 수준	127
〈그림 5-15〉 한국 내 중국 대학 적정학비 수준	128
〈그림 5-16〉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생비율	128
〈그림 5-17〉 한국 내 중국 대학 교수비율	129
〈그림 5-18〉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130
〈그림 5-19〉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시 지원 요구사항	130
〈그림 6-1〉 한·중 교류확대 모형	152
〈그림 6-2〉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모형	155
〈그림 6-3〉 한중 유학생 지원체제 개발	159
〈그림 6-4〉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인재 양성 모형	162
〈그림 6-5〉 한·중 대학 간 교류 모형	165
〈그림 7-1〉 정책 제언의 구성	171

<그림 7-2> 정책 제언의 기저	172
<그림 7-3> 경기도 중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79
<그림 7-4> 아젠다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위한 제언	187

I.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1) 중국교류의 시대적 요청

- 2016년 현재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한국과는 '92년 수교 이후 매년 7~14%의 고도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최근 성장률이 7%이하로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2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중국 내 수입시장에 대한 한국 점유율이 2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음('14.9월 기준, 중국해관총서).
- 경기도의 경우 한국 인구의 24%와 한국 내 총생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은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요충지로 국내에서는 광역 철도망 및 주요 교통중심지의 연계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지만,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변 동북아시아 주요 대도시권과의 경쟁이 불가피함.
- 최근 경기도와 중국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출범이래 가장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평택항을 중심으로 경제교역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적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의 틀 내에서 중국과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경기도의 성장전략

- 경기도는 기존 정부에서 제시된 수도권 발전 방향을 수용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인근의 서울, 인천, 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을 수립하였음.
- 이는 중국, 일본과의 광역 경제권간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기도의 비전 및 발전전략으로 성장과 관리 개념의 광역 경제권 및 대도시권 정책을 정립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과 함께,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다핵공간구조 수립을 지향하고 있음.
-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의 총 사업비는 약 177조 5,931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그 중,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심지 육성에 관련된 예산은 1조 1,297억원 규모로서, 전체 사업비의 0.6%에 해당하고(경기도 교육청 사업예산 제외), 경기도는 4대 목표 및 8대 기본과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야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3) 경기 교육의 글로벌화 추진

- 특히 교육과 인적개발의 계획과제는 ‘경기도로 유학가자’의 슬로건으로 국제교육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동아시아 교육허브 구축(East Asia Hub of Education, Gyeonggi), 글로벌 교육기업 육성, 청소년 교육과 일자리 연계, 대학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기도는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통하여 상호간의 우호증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자매결연 체결은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중국 등 5개 지역,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 4개 지역, 유럽은 네덜란드 및 스페인 2개 지역 등 전 세계 15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호(경제)협력 체결지역은 14개국 18개 지역을 포함하여 2000년대 이후, 경기도는 우호(경제)협력 체결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4)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내 중국대학 유치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 경기도는 현재 중국의 각 성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맺고 있으며, 그 중 경기도 차원의 교육 분야 교류는 광둥성·산둥성 및 기타지역에서 추진 중이며,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와 산둥성 대학과의 교류는 경기도 16개 대학 및 산둥성 1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외국 우수고등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은 중국대학 유치의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환경하에서 실제로 경기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학유치나 대학 간 교육교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경기도와 중국 간의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대학과 중국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에 우호적인 한·중 전문가 및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내에 중국 대학 유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나. 연구의 목적

1) 경기도의 중국대학 유치 타당성 분석

- 경기도 고등교육의 균형발전과 국제적인 인재양성 및 경기도 산업체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시장 전문가 확보 등 경기도의 장기발전을 위한 경기도 내 중국 대학 유치에 대한 현실적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중국대학 유치 타당성 분석을 위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 환경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교육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한·중 간의 교육 교류모형의 수립

- 한·중 간의 새로운 형태의 교육 교류협력 모형의 수립을 통하여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킴.
- 한·중 대학생 간의 교육·문화적 교류를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형을 수립함.

3)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적 공동체 기반 마련

- 한·중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동북아 문화 및 역사의 이해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한·중 청년 간 역사이해를 통한 평화 의식의 제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실현의 기반을 마련함.

4) 경기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산업 인재 양성방안 마련

- 한·중 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 중국 무역 및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산업인재 양성.
- 경기도 및 중국대학 간 협력을 통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중국마케팅 및 산업체 전문인력 충원에 중국 유학생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

II. 한·중 대학 간 국제교류 현황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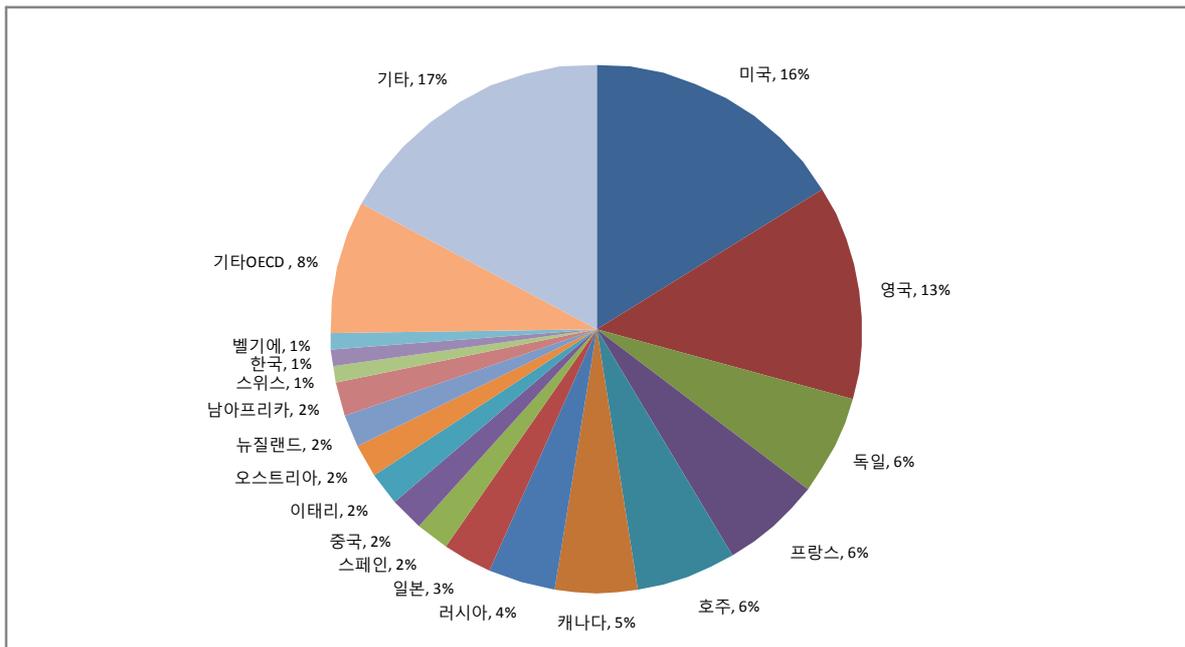
1. 한·중 대학 간 국제교류 현황

가. 학생 교류 현황

1) 유학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국제화 모델

□ 국가별 외국 유학생 현황

- 최근 1~2년 증가율(6~8%)에 기초하여 예측하면 2020년 유학생 수는 16~18만으로 예상되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기관 정원초과분(20~22만)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함¹⁾.
- 향후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의 유학생 규모는 2020년 450만 명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4.4%까지 증가 가능(2012년 한국 점유율은 1%, OECD)하여 2020년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임.



<그림 2-1> 국가별 외국 유학생의 점유율(2012)

*출처: OECE(2014) 교육지표 발표자료에서 재구성.

1) 하연섭 외(2012), 인증제 시행에 따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변화 및 제도 보완 사항

- 2012년 한국 고등교육 재학생 수 370만 명을 적용했을 때 2020년 20만 명 유치 시 국내 고등교육기관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5.4%에 해당함.
-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내 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확대 함이 바람직할 것임(OECD 평균 8.7%).²⁾

〈표 2-1〉 주요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²⁾

국가	외국인 유학생 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재학생 중 유학생비율	유치목표
중국	292,611	25,346,000	1.1%	50만 명(2020)
일본	123,829	4,033,000	3.0%	30만 명(2020)
싱가폴	80,000	184,000	43.5%	15만 명(2015)
미국	723,277	20,550,000	3.5%	없음
호주	557,425	2,322,604	24.0%	없음
한국	91,332	3,608,071	2.52%(2015)	20만 명(2020)

*출처 : Bhandari & Blumenthal (2011), p. 9를 재구성함.

□ 대학의 다양한 국제화 모델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외국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국내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대학의 다양한 해외 진출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표 2-2〉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기관의 국제화 유형

국제화 유형	주요특징	제도여부
프랜차이즈 (Franchise)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국내대학에서 외국대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위는 외국대학 명의로 수여	규제 없음
트위닝 (Twinning)	A대학과 B대학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A, B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되, 학위는 A대학에 의해서만 수여됨	규제 없음
복수/공동학위과정 (Double/Joint Degree)	여러 국가에 있는 대학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양측 대학 모두로부터 학위를 받는 복수 학위과정을 개설하거나 1개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	규제 없음

2) 한국은 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함.

국제화 유형	주요특징	제도여부
아티큘레이션 (Articulation)	여러 국가에 위치한 대학 간에 학점 인정 관련 협정이 체결되어 이들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이 누적적으로 학위취득에 인정되는 유형	한중일대학간 공동복수학위 제도운영
국외연구소 및 교육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 국내 학생 및 교원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국외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규제 없음
국외분교	국내 학교법인이 현지국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설립요건을 충족(현지국가 승인)하고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현지국가에 설립하여 경영하는 대학	교비회계 사용금지

- 대학과 대학,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해외 진출 활성화
 - 국내외 대학 간 제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고, 한국 글로벌 기업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해외 분교 또는 캠퍼스 진출 지원.
 - 한국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콘텐츠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수출 가능성모색.
-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 수요 흡수 및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통해 교육서비스 수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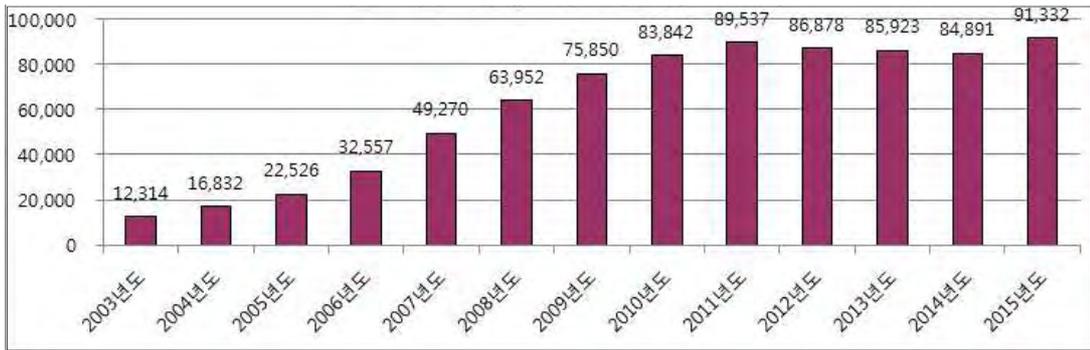
2) 한국 내 유학생 현황분석

가) 연도별 국내 유학생 현황

〈표 2-3〉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추이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학생수 (명)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91,332

- 2003년 12,314명에서 2011년 89,537명으로 7.3배 증가하여 이 기간 중에 연평균 9,652명씩 증가했음.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급진적으로 늘어나다 2012년부터 3년간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2015년에 이르러 전년보다 6,441명이 증가하여 91,332명을 기록하고 있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이 수치는 통계상으로 유사 이래 최대의 수치임.



〈그림 2-2〉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나)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

〈표 2-4〉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2015년)

국가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미국	대만	기타	계
유학생수	54,214	4,451	3,492	3,138	2,968	1,994	21,075	91,332
비율(%)	59.4%	4.9%	3.8%	3.4%	3.2%	2.2%	23.1%	100.0

- 2015년 통계로 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54,214명으로 전체의 59.4%를 접하여 과반을 넘고 있음.
- 두 번째로는 베트남이 4,451명 4.9%를, 이어서 일본 3.8%, 몽골 3.4%, 미국 3.2%, 대만 2.2%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유학생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 유학생과 중화권 지역의 유학생을 위한 특화된 교류 및 유학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

〈표 2-5〉 유학 형태별 유학생 추이

유학 형태	2014년도(명,%)	2015년도(명,%)	증감
자비유학생	73,138(86.2)	78,845(86.3)	5,707
정부초청장학생	2,701(3.2)	2,901(3.2)	200
대학초청장학생	6,890(8.1)	6,802(7.4)	-88
자국정부과견장학생	1,042(1.2)	1,178(1.3)	136
기타	1,120(1.3)	1,606(1.8)	486
합 계	84,891(100.0)	91,332(100.0)	6,441

- 최근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의 유학 형태를 보면, 자비 유학생이 86%를 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대학초청장학생이 7~8%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정부 초청장학생은 3.2%, 자국정부 파견유학생은 1.2~1.3% 수준이어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로 볼 때 한국에 오는 유학생은 대부분 자비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음.

라) 출신 지역별, 과정별 유학생수

<표 2-6> 대학 학부단계의 어학연수 및 본과유학생(2015년)

지 역	어학 연수	대학(전문대학)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계
아시아	19,961	21,175	4,547	1,903	2,905	54	30,584
아프리카	339	202	134	19	10	2	367
오세아니아	74	84	8	12	11	4	119
북미	504	771	80	217	80	45	1,193
남미	237	129	50	15	24	-	218
유럽	1,063	387	52	18	34	-	491
합 계	22,178	22,748	4,871	2,184	3,064	105	32,972

- 2015년 학부 단계의 유학생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30,584명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지역 1,193명(3.6%), 유럽지역 491명(1.5%), 아프리카지역 367명(1.1%)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아시아 국가 외의 지역은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임.

<표 2-7> 석사과정 유학생

지 역	석사과정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계
아시아	9,631	2,101	917	927	199	13,775
아프리카	637	229	72	7	4	949
오세아니아	64	5	12	2	5	88
북미	693	65	62	53	70	943
남미	148	37	17	12	4	218
유럽	392	42	10	22	2	468
합 계	11,565	2,479	1,090	1,023	284	16,441

- 석사과정 유학생을 보면, 아시아지역이 13,775명(83.8%)으로 제일 많으며, 이어서 아프리카지역 949명(5.8%), 북미지역이 943명(5.8%), 유럽지역이 468명(2.8%)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역시 아시아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단, 학부보다는 점유비율이 낮음.
- 아프리카지역은 학부단계에서는 4위이었으나 석사과정 유학생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 유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함.

〈표 2-8〉 박사과정 및 기타연수과정 유학생

지 역	박사과정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계
아시아	1,715	2,129	1,158	272	275	5,549
아프리카	76	130	59	2	8	275
오세아니아	16	2	5	1	2	26
북미	156	55	47	26	30	314
남미	8	15	8		1	32
유럽	69	26	32	2	1	130
합계	2,040	2,357	1,309	303	317	6,326

- 2015년 박사과정 및 기타연수과정의 유학생 현황을 보면, 아시아지역이 9,388명(69.6%), 유럽지역 2,556명(19.1%), 북미지역 1,159명(8.6%)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지역이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각 92.8%, 83.8%, 69.6%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고급단계로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해 북미지역, 유럽지역은 학부과정보다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유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3) 한국 내 중국 유학생 현황 분석

가) 연도별 중국 유학생 변화 추이

-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인 유학생 추이를 보면, 최하 53.2%부터 최고 70.5%로 과반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여타 국가에 비해 단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

〈표 2-9〉 국내 중국인 유학생수 추이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91,332
중국인	8,960	13,091	20,080	33,650	44,746	53,461	57,783	59,317	55,427	50,343	50,336	54,214
전체(%)	53.2	58.1	61.7	68.3	70.0	70.5	68.9	66.2	63.8	58.6	59.3	59.4

- 50%대의 점유율은 2004년, 2005년, 그리고 최근 3년인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60%대는 2006년, 2007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70%대는 2008년과 2009년도에 기록하고 있어 2009년 이후 점차 점유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학생 숫자상으로 보면, 2009년 이후 꾸준히 5만명 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1년 59,317명을 보인 후 5만명 초,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나) 어학연수 및 과정별 전공계열별 유학 현황

〈표 2-10〉 중국유학생 고등교육단계의 전공과정(2015년)

인원수(단위:명)

전공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인문사회	17,031	6,587	1,145
공학	2,881	953	466
자연과학	1,396	398	315
예체능	2,413	859	249
의학	3	72	119
소계	23,724	8,869	2,294
어학연수		12,912	
기타연수		6,415	
합계		54,214	

- 2015년 중국유학생 고등교육단계의 전공과정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이 여타계열에 비해 훨씬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음. 학부과정에서는 17,031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사과정에서는 6,587명으로 전체의 77.3%를, 그리고 박사과정은 1,145명으로 49.9%를 점유하고 있음.
- 이어서 공학계가 모든 과정에서 두 번째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학부과정에서 2,881명 12.1%, 석사과정에서는 953명 10.7%, 박사과정에서는 466명 2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예체능계는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3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박사과정에서는 4위를 보이고 있음.
- 자연과학계는 학부와 석사과정에서는 4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박사과정에서는 3위를 보이고 있어 고급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의학계는 모든 과정에서 5위를 보이고 있지만 점유비율로 보면, 학사보다는 석사과정에, 그리고 석사보다는 박사과정의 유학생 비율이 높아 고급단계의 선호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4) 경기도내 유학생 현황 분석(2015년 기준)

가) 도내 대학 유학생 현황

<표 2-11> 경기도내 대학 외국 유학생 현황(2015년)

인원수(단위:명)

전공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인문사회	6,259	2,525	395
공학	1,015	459	585
자연과학	243	156	222
예체능	860	316	115
의학	10	35	41
소계	8,387	3,491	1,358
어학연수		5,186	
기타연수		2,593	
합계		21,022	

- 경기도내 대학의 외국 유학생은 총 21,022명으로 한국 내 전체 유학생 91,332명의 23.0%를 차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에 8,387명, 석사과정에 3,491명, 박사과정에 1,358명이 재학하고 있음. 이외 어학연수과정이 5,186명, 기타연수과정에 2,593명이 이수하고 있음.
- 전공계열별로 보면, 학부와 석·박사과정을 합쳐서 볼 때 인문사회계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학계열은 2위를 점유하고 있음. 그러나 박사과정에서는 공학계가 인문사회계열보다 이수자가 더 많음.
- 예체능계열은 학부와 석사과정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사과정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외 의학계열은 모든 과정에서 제5위를 차지하고 있음.

나) 도내 대학 유학 형태 현황

- 경기도내 44개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의 유학형태를 보면,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자비유학이 16,800명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대학초청이 1,803명 9.1%를, 정부초청이 547명 2.8%, 자국정부 파견이 482명, 2.4%를 보이고 있음.
-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상황을 보면, 수용자가 6,155명, 31.1%인데 대해 13,659명인 68.9%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 대학의 평균 수용상황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표 2-12> 경기도내 대학별 외국 유학형태 및 기숙사 수용 현황(2015년)

인원수(단위:명)

대학명	유학형태						기숙사 수용여부		
	자비 유학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자국정부 파견	기타	합계	수용	미수용	계
용인송담대학교	22					22	1	21	22
웅지세무대학교						0			0
수원여자대학교						0			0
경인교육대학교	4					4	2	2	4
경북대학교	987	28	321		163	1,499	458	1,041	1,499
한국교통대학교	85		39			124	113	11	124
가천대학교	835		2			837	269	568	837
카톨릭대학교	254	9	9		5	277	145	132	277
강남대학교	157		30			187	152	35	187
계원예술대학교	17					17		17	17
경기대학교	800	12				812	189	623	812
경동대학교	305					305	296	9	305
경희대학교	3,178	130	686	103	1	4,098	847	3,251	4,098
단국대학교	704		8	11	3	726	395	331	726
대진대학교	252			27		279	183	96	279
루터대학교					1	1	1		1
명지대 자연캠퍼스	454	8	9			471	203	268	471
서울신학대학교	27					27	8	19	27
서울장신대학교	5					5	1	4	5
성결대학교	61					61	15	46	61
성균관대학교	2,839	74	1	141		3,055	357	2,698	3,055
수원카톨릭대학교						0			0
수원대학교	211					211	106	105	211
신경대학교						0			0

대학명	유학형태						기숙사 수용여부		
	자비 유학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자국정 부과건	기타	합계	수용	미수용	계
신한대학교	143					143	103	40	143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17		68			85	60	25	85
아주대학교	468	40	208		3	719	343	376	719
안양대학교	69		21			90	38	52	90
용인대학교	92					92	59	33	92
을지대학교	29					29	14	15	29
중부대학교	337					337	186	151	337
중앙승가대학교						0			0
차의과학대학교	11					11	7	4	11
충신대학교	59				6	65	42	23	65
칼빈대학교	3					3	1	2	3
평택대학교	186		23			209	170	39	209
한국산업 기술대학교	52	40	4	17		113	71	42	113
한국외국어대학교	946	94	299	21		1,360	418	942	1,360
한국항공대학교	35		4			39	13	26	39
한세대학교	123					123	41	82	123
한신대학교	108					108	83	25	108
한양대학교	2,806	112	71	162		3,151	723	2,428	3,151
협성대학교	101					101	40	61	101
한경대학교	11					11	23	9	11
국제사이버대학교	7					7		7	7
합계	16,800	547	1,803	482	182	19,814	6,176	13,659	19,814

5)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 현황

가)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의 추이

- 중국 경제의 위상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으며, 각 국가와 정부도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예전과 달리 중국 유학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13〉 중국 내 한국 유학생 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생수(명)	64,481	66,806	64,232	62,957	62,442	63,488

- 2001년에 중국 내 한국 유학생 수는 22,116명에서 2007년 64,481명으로 증가 후 2012년 63,488명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35%로 미국(7.49%)과 일본(6.43%)을 합친 비율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³⁾.
- 중국교육부는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 계획 강요’에 따라 ‘중국유학계획’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각 대학들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의 유학 환경을 더 발전시켜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2020년까지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임.
- 과거 다수의 한국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 갔던 것과 달리, 중국의 경제발전과 시장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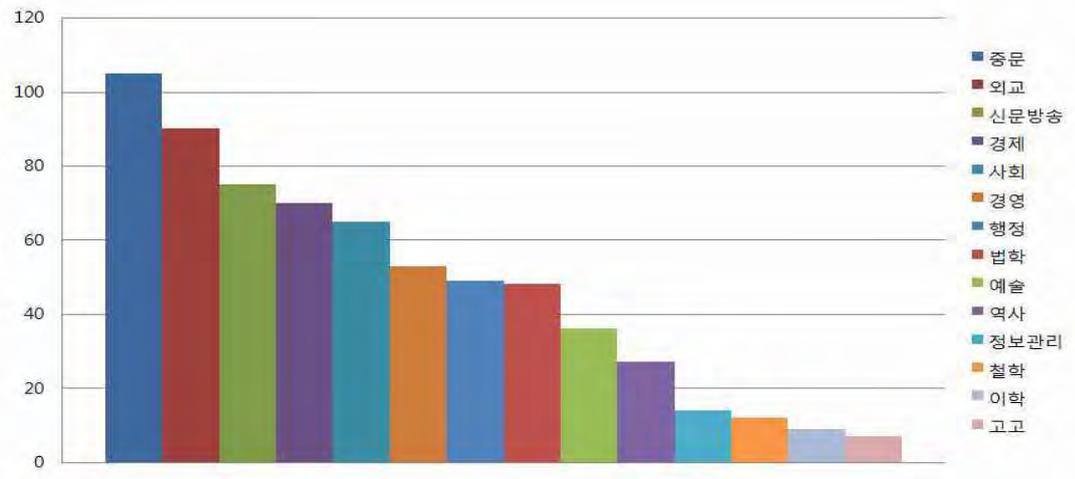
나)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의 전공 선택

- 최근에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어학연수보다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이 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투자와 지원으로 고등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엄청난 인구와 경제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⁴⁾
- 기본적으로 어문계열, 특히 중국어 관련 전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⁵⁾
- 예를 들어 베이징대 본과 한국유학생의 전공분포도를 살펴보면, 2012년도 현재 총 660명의 본과 재학생 중에서 상경계열 학과(경제 70명, 경영 53명)가 인기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중문과(105명)가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2-3 참조).

3) 구자역 외(201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에 의하면 2012년 총 328,330명의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1위 한국 63,488명(19.35%), 2위 미국 24,583명(7.49%), 3위 일본 21,126명(6.43%)의 구성을 보이고 있음.

4) 이경자(2013),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

5) 최규발(2011), 재중 한국유학생 및 졸업생 현황과 취업실태조사.



〈그림 2-3〉 베이징대 본과 한국유학생 전공분포도(2011~2012)

-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소 간의 전공 분포 차이를 보이고 있음. 본과의 경우 중국어 관련 학과를 제외하면 베이징대의 경우 외교, 신문방송학과를 선호하며, 푸단대학의 경우 법학과와 외교, 행정학과를 선호함.
- 대학원의 경우 베이징대와 칭화대의 선호 순위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전체 비율을 볼 때 베이징대가 인문계열의 전공 편중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중국의 한국 유학생들은 졸업 후 생활기반을 중국에서 다지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현지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다)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의 유학목적⁶⁾

-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의 유학목적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폭 넓게 조사한 자료가 요청되지만 한계가 있어, 대표적인 선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푸단대와 베이징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함.

□ 푸단대

- 푸단대의 경우 본과 154명의 학생이 응답함.
- 중국유학을 선택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9명(54.5%)이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꼽았고, 39명(26.9%)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12명(8.3%)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2명(1.4%)이 중국의 교육 체계가 자신에게 적합할 것 같아서, 4명(2.8%)이 학교 명성 때문에, 2명(1.4%)이 학비가 저렴해서, 19명(13.1%)이 기타 원인을 선택함.

6) 최규발(2011), 재중 한국유학생 및 졸업생 현황과 취업실태조사.

- 기타 원인으로서는 주재원으로 오거나 사업을 위해 생활 근거지를 중국으로 옮긴 부모님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강요와 수능 실패로 인한 선택도 나타남.

□ 베이징대

- 베이징대의 경우 본과 85명의 학생이 응답함.
- 중국유학을 선택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62명(72.9%)이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꼽았고, 12명(14.1%)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6명(7.1%)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1명(1.1%)이 중국의 교육 체계가 자신에게 적합할 것 같아서, 5명(5.9%)이 학교 명성 때문에, 9명(10.6%)이 기타 원인을 선택함.
- 기타 원인으로서는 주재원으로 오거나 사업을 위해 생활 근거지를 중국으로 옮긴 부모님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 문화를 체험해보기 위해서, 한국이 답답해서 선택하였다는 응답도 있음.
- 푸단대와 베이징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중국의 발전가능성에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어 공부와 취업 준비를 들 수 있음.

나. 대학 간 교류

1) 국내 대학의 중국 진출 현황

가) 진출 개요

- 국내 대학의 중국진출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목적과 방법, 규모와 활용 범위에서도 조금씩 다른 형태를 지닌 채 국내 대학의 중국 진출이 이루어졌음.
- 국내 대학생의 중국 연수와 중국 학생의 국내 대학 유치를 비롯하여, 기술특허를 알리는 창구로써의 기능과 대학 간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창구로써의 역할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됨.
 - 첫째, 중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투자
 - 둘째, 국내 대학의 국제화 및 국내 및 중국 학생의 입학률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나) 대학별 진출 현황

〈표 2-14〉 중국 내 한국대학 진출 현황

대학명	진출 내용
고려대학교	2004년 10월 중국 인민대와 ‘고려대학회관’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2009년 준공식을 갖고 현재 기숙사, 연구실, 강의실 등을 갖춘 ‘고려대학회관’을 운영 중임. 이미 ‘고려대중국사무소’를 비롯해 ‘한중국제교류센터’ 등도 입주함.
대진대학교	소주대와 하얼빈사범대에 현지 캠퍼스를 조성하고, 2005년부터 DUCC(Daejin University China Campus)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성균관대학교	2004년 중국 상해의 복단대와 중국전문대학원 신설 및 운영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함.
아주대학교	중국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에 ‘아주대 중국사무소’를 설치
한양대학교	상하이에 ‘한양문화원’을 두고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양대가 보유한 특허와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 거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을 겨냥한 산학 협력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을 수립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청화대에 한국어 강의 개설
서울대학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베이징대에 한국어 강좌 개설
건국대학교	남경대 등 중국 내 자매학교 12곳에서 ‘한국유학 예비반’을 운영
중앙대학교	2008년부터 청화대 등 6개 대학에 한국어교육을 위한 분원을 설치

*출처: 이경자(2013),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에서 발췌.

- 국내 대학의 중국 진출의 목적은 대부분 중국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며, 중국 유학생 유치가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대학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하고 있음.

2) 중국 대학의 한국 진출 현황

- 한국의 경우에는 북경어언대학(北京語言大學)이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한국입학처가 있음.
- 그 밖에 청화대학SCE한국캠퍼스, 북경대학교GCEO 캠퍼스의 경우는 특별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남개대학 한국대표부, 발해대학 국제교류학원 한국교류처의 경우 입학 학생 모집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중국의 경우 한국 유학생을 선점하거나, 혹은 CEO과정과 같은 특별 과정 등을 통해 자신의 대학을 알리고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에 관련 기구를 상주시키고 있음.

3) 경기도와 산동성 내 대학 간 교류현황

가) 교류학교 및 교환학생 현황

〈표 2-15〉 경기도내 대학별 산동성내 교류대학 및 교환학생수

(단위 : 명)

경기도 대학	교류학교명	교류인원(최근 3년간)							
		계		2015		2014		2013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총계		582	420	202	112	198	140	182	168
A	연태대학	27	5	13	1	10	0	4	4
	산동사범대학	4	2	2	1	2	0	0	1
	청도과기대학	15	6	10	2	2	2	3	2
	임기대학	3	11	3	9	0	2	0	0
	소계	49	24	28	13	14	4	7	7
B	하얼빈공업대학(위해)	15	51	6	0	5	1	4	4
	요성대학교	10	10	8	5	2	5	0	0
	산동이공대학	16	2	4	0	11	1	1	1
	산동대학교(위해)	37	16	11	2	15	3	11	11
	소계	78	79	29	7	33	10	16	16
C	산동대학교	18	18	0	0	9	9	9	9
	청도대학교	5	5	0	0	5	0	0	5
	소계	23	23	0	0	14	9	9	14
D	산동사범대학교	43	9	10	1	16	5	17	3
	연태대학교	45	43	13	16	16	14	16	13
	산동이공대학교	4	5	4	3	0	2	0	0
	소계	92	57	27	20	32	21	33	16
E	청도과학기술대학	6	11	1	2	2	3	3	6
	산동이공대학	10	14	1	3	5	5	4	6
	제남대학	12	17	2	2	5	5	5	10
	산동사범대학	4	0	0	0	0	0	4	0
	산동대학교 위해캠퍼스	5	10	4	5	1	5	0	0
	소계	37	52	8	12	13	18	16	22
F	임기대학	18	73	9	20	3	34	6	19
	하얼빈공업대학(위해)	25	2	8	0	7	0	10	2
	산동대학(위해)	64	45	25	15	19	17	20	13
	산동이공대	3	4	3	2	0	2	0	0
	산동사범대	3	0	3	0	0	0	0	0

경기도 대학	교류학교명	교류인원(최근 3년간)							
		계		2015		2014		2013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청도이공대	3	9	3	6	0	3	0	0
	산동상업직업기술학원	0	0	0	0	0	0	0	0
	소계	116	133	51	43	29	56	36	34
G	임기대학교	0	6	0	0	0	6	0	0
	루동대학교	12	0	1	0	11	0	0	0
	소계	12	6	1	0	11	6	0	0
H	청도대학	12	0	0	0	0	0	12	0
I	산동대학교	1	1	0	0	0	0	1	1
	소계	13	1	0	0	0	0	13	1
J	임기대학	2	2	0	0	0	0	2	2
	하얼빈공업대학(위해)	4	4	0	0	0	0	4	4
	산동대학(위해)	3	3	0	0	0	0	3	3
	산동상업직업기술학원	0	0	0	0	0	0	0	0
	소계	9	9	0	0	0	0	9	9
K	엔타이 대학	4	4	0	0	0	0	4	4
	요성대학	2	2	0	0	0	0	2	2
	곡부사범대	11	11	0	0	0	0	11	11
	소계	17	17	0	0	0	0	17	17
L	일조직업기술학원	8	8	5	5	0	3	3	0
	소계	8	8	5	5	0	3	3	0
M	산동사범대학	3	3	0	0	0	0	3	3
	산동대학	3	0	0	0	0	0	3	0
	산동기술학원	0	0	0	0	0	0	0	0
	소계	6	3	0	0	0	0	6	3
N	루동대학교	53	0	27	0	26	0	0	0
	소계	53	0	27	0	26	0	0	0
O	산동이공대학	0	3	0	0	0	1	0	2
	청도대학	0	0	0	0	0	0	0	0
	청도과학기술대학	0	0	0	0	0	0	0	0
	산동예술대학위해캠퍼스	0	0	0	0	0	0	0	0
	요성대학	0	0	0	0	0	0	0	0
	Ying Cai University	0	0	0	0	0	0	0	0
	소계	0	3	0	0	0	1	0	2
P	덕주대학	0	3	0	3	0	0	0	0
	곡부사범대학	24	20	10	3	10	6	4	11
	하얼빈공대(위해)	30	10	10	0	10	0	10	10
	임기대학	15	18	6	6	6	6	3	6
	산동여자대학	0	0	0	0	0	0	0	0

경기도 대학	교류학교명	교류인원(최근 3년간)							
		계		2015		2014		2013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소계	69	51	26	12	26	12	17	27

- 경기도 내 15개 대학이 중국의 산둥성 내 대학 57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어 평균 3.8개 대학과 교류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의 교환학생 실적을 보면, 점차 교류실적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청보다는 파견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 간의 교환학생 실적을 살펴보면, 초청 유학생은 420명인데 대해 파견 유학생은 582명으로 파견이 다소 많은 편임.

나) 복수학위제 실시 현황

<표 2-16> 경기도와 산둥성 간 복수학위제 실시 현황

경기도 대학	교류학교명	계	교류인원(최근 3년간)			비고
			2015	2014	2013	
총계		137	49	55	33	
A	청도공학원	4	1	1	2	
B	연태대학	28	15	13	0	
C	청도과기대학교	105	33	41	31	

- 최근 3년 간 경기도와 산둥성의 각 3개 대학이 복수학위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137명이 양국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았음.
- 복수학위제로 복수학위를 이수하는 학생은 증감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아직 정착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일부 학생은 복수학위제에 대한 인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단기연수 현황

- 단기연수 상황을 보면, 경기도의 6개 대학이 산둥성의 8개 대학과 교류하였는데 최근 3년 간 총 117명이 참가했음. 단기연수 역시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협정 대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관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움.

〈표 2-17〉 대학별 교류대학 및 단기연수 현황

경기도 대학	교류학교명	계	교류인원(최근 3년간)			비고
			2015	2014	2013	
총계		117	15	76	26	
A	연대대학	0	0	0	0	
	임기대학	0	0	0	0	
B	연대대학	15	0	0	15	
C	연태대학교	27	15	3	9	방학 중
D	임기대학교	9	0	9	0	
	루동대학교	2	0	2	0	
E	청도과기대학교	2	0	0	2	
F	임기대학	62	0	62	0	

라) 교원교류 현황

〈표 2-18〉 대학별 교원 교류 현황

경기도 대학	교류학교명	계	교류인원(최근 3년간)			비고
			2015	2014	2013	
총계		19	8	8	3	
A	임기대학	9	3	6	0	
	임기대학기수분교	3	0	0	3	
B	연대대학교 ⁷⁾	5	4	1	0	
C	제녕직업기술학원	2	1	1	0	

- 경기도와 산동성 간의 대학 간 교원 교류 현황을 보면, 각각 3개교가 교류하였고, 3년간 19명에 달하고 있음.
- B대학과 연대대학의 경우 공학계 화공, 파이버, 고분자 등 전공별로 교류하고 있음.

마) 기타교류 현황

- 기타 교류 현황을 보면, 총 7개 대학에서 교류했으며, 최근 3년간 37명에 달하고 있음. 시기별로 보면, 2013년에 36회가 이루어진 후 2014년에는 교류가 없었고 2015년에 1회 이루어져 아직까지 안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7) 학기당 화공, 파이버, 고분자 등 각 전공별로 파견 중.

〈표 2-19〉 기타 교류 현황

경기도 대학	교류학교명	계	교류인원(최근 3년간)			비고
			2015	2014	2013	
총계		37	1	0	36	
A	임기대학	33	0	0	33	글로벌캠프참가 임기대→강남대
B	청도대학	1	0	0	1	
C	임기대학	2	0	0	2	
	하얼빈공업대학(위해)	1	1	0	0	

- 이 현황 자료는 구체적으로 대학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향후 기타 교류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중국 광둥성 심천가상대학 현황⁸⁾

□ 설립 배경

- 1990년대 경제특구의 발전방향으로 심천시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의 인적 자본인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저명한 이공계 대학을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함.
-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심천시 정부는 1999년 9월에 심천가상대학원(深圳虚拟大学园/Shenzhen Virtual University Park/이하 심천가상대학원)을 설립함. 이 대학원의 설립 목적은 대학의 유용한 자본과 인재를 심천 지역에 유입하여, 심천시와 대학이 상호 유용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
- 심천가상대학원은 2003년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로부터 ‘국가대학과기원’으로 정식 승인받음. 심천가상대학원은 ‘1개의 연구단지, 다수의 대학’ 설립 원칙에 의거하여, 심천시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새로운 유형의 연구 단지 및 인큐베이터 기업의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음.

□ 주요 현황

- 심천가상대학원은 설립초기 국내외 대학 유치를 위하여 심천시의 대응투자 지원, 본부 건물 강의실 사용, 독립건물 건립 시 토지 제공, 저렴한 임대료(대학 1㎡당

8) 구자역(2014), 중국 Shenzhen Virtual University Park 사례조사.

130위안, 기업법인 1㎡당 40위안), 중국내 대학과의 합작대학 설립 등의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실시함. 2014년 57개의 대학이 입주하여 공동으로 대학 단지를 구성하고 있음.

- 심천가상대학원의 특색은 한 개의 연구단지에 많은 수의 대학, 시정부와 대학의 공동 건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임.
-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심천가상대학원의 총 면적은 27.6만평, 2010년 말까지 대학원의 인큐베이터 면적은 4만평임.
- 2014년 현재 국내외 총 57개 대학(그중 홍콩 포함 외국대학 12개교)이 설립되어 있으며, 연구원은 42개원(독립법인), 연구기관은 96개가 입주해 있음. 또한 9개 대학이 산학연 기지를 마련하고 있음.
- 각 대학이 설립한 심천연구원은 42개이며, 이들은 우수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연구 성과의 전이 및 산업화 업무를 담당함. 이 가운데 많은 수의 연구원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단체 혹은 산학연 기지로 독립하기도 함.
- 또한 심천에 연구발전센터 및 국가중점실험실(공정센터)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기술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성과

- 2013년 현재 심천가상대학원에 입주해 있는 57개 대학 중 학생을 모집하는 40개 대학(6개 해외 대학과 34개 중국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유형은 다음과 같음.

<표 2-20> 심천가상대학원 주요 입주대학 교육프로그램 유형 (2013년 기준)

입주대학	박사 후 과정	박사	석사	국제 석사	학사	학사 (원격)	단기 연수	학부 편입 (원격)	특별 프로그램
청화대	0	0	0		0				
북경대	0	0	0				0		
하얼빈대	0		0		0		0		
중국과학기술대			0				0		
북경이공대			0		0				
화중과기대		0	0		0		0	0	
서북공업대		0	0		0			0	
서안전자과기대			0		0		0		

입주대학	박사 후 과정	박사	석사	국제 석사	학사	학사 (원격)	단기 연수	학부 편입 (원격)	특별 프로그램
서남교통대					0		0		
길림대		0	0		0		0		
무한대		0	0		0		0		0
남개대		0	0	0	0		0		
남경대			0		0	0	0		
절강대학			0		0		0		0
하문대		0	0	0	0	0	0		
홍콩과기대		0	0		0				0
홍콩침례대		0	0		0		0		
상해교통대			0				0		
중국사회과학원		0	0				0	0	
중국약과대					0				
북경우전대			0		0	0	0		
동남대			0		0		0		
하비공업			0		0		0		
중경대학			0		0		0		
호남대학			0		0		0		
홍콩이공대	0	0	0				0		
중국지질대		0	0		0		0		
화둥이공대			0		0				
홍콩시티대		0	0				0		
대련이공대					0				
북경교통대		0	0		0	0	0	0	
중국인민대		0	0				0		0
천진대		0	0		0		0		0
전자과기대			0		0				
홍콩중문대			0				0		0
앨버타대			0				0		
중산대			0				0	0	0
대련해사대	0		0				0		0
중남대			0						
산둥대			0		0	0		0	

자료: 구자역(2014), 중국 Shenzhen Virtual University Park 사례조사.

- 심천가상대학원 내 입주 대학들은 학위과정으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외국 대학과 중국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모집에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외국 대학의 경우 주로 석·박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중국 대학은 석·박사과정뿐만 아니라 학사과정도 병행 운영하고 있음.

- 비학위과정으로는 단기연수반, 특별 프로그램반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일반 학생, 기업가, 관료 등 교육대상 및 교육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형태는 학사과정의 경우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이는 중국 지역의 광활함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 학생과 재직자를 고려한 결과로써, 폭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석사와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집합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 대학의 경우 중국 대학과는 달리 원격으로 하는 학사과정으로 운영하지 않고 모두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57개 대학 중 48개 대학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학원생 실습은 3,772건, 인큐베이팅은 814건, 특허획득 건수는 549건, 논문 338건, 성과전이 건수는 1,478건으로 나타남.

〈표 2-21〉 심천가상대학원 주요성과 (2013년 기준)

	대학원생 실습	인큐베이팅	특허획득	논문	성과전이
청화대	53	347	193	11	417
북경대	140	217	25	9	103
하얼빈대	426	34	63	12	77
중국공정원	-	-	-	-	-
중국과학기술대학	80	58	21	-	65
북경이공대학	-	1	-	-	5
화중과기대학	23	17	12	4	50
서북공업대학	-	1	1	-	1
서안전자과기대학	1163	-	-	-	123
서남교통대학	60	-	-	-	-
길림대학	5	4	4	-	1
무한대학	156	13	2	-	29
남개대학	0	1	-	-	-
남경대학	44	5	4	4	65
절강대학	-	-	-	-	220
하문대학	19	3	8	21	9
홍콩대학	-	-	-	-	-
홍콩과기대학	34	33	4	74	26
홍콩침례대학	-	-	-	-	-
상해교통대학	-	-	-	-	-
중국사회과학원연구생원	-	-	-	-	-
중국약과대학	5	4	2	-	4
북경우전대학	31	5	13	-	7
동남대학	25	1	-	-	12
하비공업대학	391	8	4	-	19

	대학원생 실습	인큐베이팅	특허획득	논문	성과전이
중경대학	26	-	-	-	4
호남대학	108	7	6	-	45
홍콩이공대학	290	25	25	33	14
중국지질대학	137	4	10	-	40
화동이공대학	6	-	-	-	21
홍콩시티대학	106	3	24	60	6
대련이공대학	-	-	-	-	9
북경교통대학	3	3	4	-	4
중국인민대학	18	-	-	-	-
천진대학	15	5	6	-	8
전자과기대학	-	-	-	-	3
홍콩중문대학	35	-	-	-	6
앨버타대학	-	-	-	-	-
중산대학	99	4	104	31	33
대련해사대학	-	-	-	-	-
샌트럴랭카셔대학	-	1	-	-	-
중남대학	85	2	5	29	40
일본전기통신대학	1	-	-	-	-
북경항공항천대학	14	1	1	39	2
산둥대학	25	-	-	-	-
조지아텍대학	-	-	-	-	-
북경영화학원	-	-	-	-	-
대외경제무역대학	-	-	-	-	-
합	3,772	814	549	338	1,478

자료: 구자역(2014), 중국 Shenzhen Virtual University Park 사례조사.

다. 언어교육 교류

- 언어교육 교류의 경우 한국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앞세워 세종학당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중국은 공자를 전면에 내세워 공자학원을 세계 곳곳에 세우고 있음⁹⁾.
- 과거 선진국이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던 문화원 처럼,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도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홍보하고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세종학당의 중국 진출

- 2007년 업무 보고를 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세종학당’의 설립을 발표함.
- 설립 초기에 세종학당의 목적은 상호주의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 확대,

9) 공자학원의 경우 “Ⅲ. 중국 대학의 국제화 정책 및 사례”에서 다루고 있음.

외국 현지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실용 한국어 교육의 확산, 한국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언어와 문화의 상호 이해에 두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설립 목적이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 교류 활성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용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2-22〉 중국 내 한국 세종학당 진출 현황

	중국 세종학당	설립시기	한국협력기관
1	베이징 세종학당(북경외국어대학교 배훈학당)	2007년 10월	주중한국대사관 문화원
2	북경한국문화원 세종학당		
3	상해한국문화원 세종학당		
4	시안 세종학당(시안외국어대학교 신서북배훈학원)	2007년 12월	
5	양저우 세종학당	2007년 3월	영남대학교
6	옌벤1세종학당(연변과학기술대학교)	2007년 7월	
7	옌벤2 세종학당(연변대학교)	2007년 12월	
8	옌타이 세종학당(노동대학교)	2012년 1월	남부대학교
9	우한 세종학당(화중과학기술대학교)	2007년 4월	
10	웨이하이 세종학당(산둥대학교 위해분교)	2007년 4월	
11	지난 세종학당(산둥사범대학교)	2011년 9월	인하대학교
12	충칭 세종학당(사천외국어대학교)	2012년 4월	우송대학교
13	치치하얼 세종학당(치치하얼대학교)	2012년 4월	동신대학교
14	칭다오 세종학당(중국해양대학교)	2007년 12월	
15	톈진 세종학당(천진외국어대학교)	2007년 3월	
16	하얼빈 세종학당(하얼빈사범대학교)	2011년 3월	대진한국센터
17	항저우 세종학당(절강관광대학)	2012년 9월	호남대학교
18	후허하오터세종학당	2008년 1월	세종언어문화활동유한공사

*출처: 이경자(2013),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

2. 한·중 대학 간 국제교류 사례

가. W대학의 대중국 교류

1) 교류 현황

가) 교류 유형

- 중국과의 교육교류는 학생교류, 교수교류 등 총 7가지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자매결연
 - 학생교류(언어 연수, 대학 학부 유학, 대학원 석사과정 유학, 박사과정, 박사후 과정 등)
 - 교수교류
 - 문화교류
 - 자원공유
 -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
 - 솔브릿지-BFSU 공동프로그램 운영

나) 유학 학업 유형

- 학업에 전념하는 전업 유학형과 일하면서 공부하는 반공반독형으로 구분됨.
- 2015년 중국유학생의 유학 형태를 보면 자비유학이 1,459명, 정부초청이 11명으로 자비유학이 전체의 99.3%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3〉 W 대학의 중국유학생 유학형태

연도	자비유학	정부초청	대학초청	중국정부과건	기타	합 계
2015	1,459	11	.	.	.	1,470

〈표 2-24〉 W 대학의 거주형태-기숙사 수용 여부

연 도	수 용	비 수 용	합 계
2015	1,076	394	1,470

- 거주형태를 보면 기숙사 수용이 1,076명, 비수용이 394명으로 수용비율이 전체의 73.2%를 차지하고 있음.

2) 교류 성과

- 대학 차원의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중국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2015년 4월 현재 1,115명이 재학해 있음.
- 중국의 자매학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총 56개교를 확보하고 있음. 2015년 현재 남경 제4고급중학교 등 12개교, 북경외국어대학, 남경효장대학 등 44개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국외의 고등교육단계 자매대학 총 81개교 중 54.3%에 해당하는 비율로 과반이 넘었음. 이 점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특화된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임.
- 다양한 방식의 학생 교류 및 학습기회 확충.
 - 2015년 현재 본교 내 중국 유학생은 1,115명으로, 학사, 석사, 박사과정 재학생 수는 총 607명임. 이는 전체의 54.4%를 차지하는 것이며, 나머지 44.6%는 어학연수 및 기타연수생임.
 - 이들 유학형태는 2+2방식의 복수학위프로그램 이수, 어학수준 향상 후 입학하는 X+4프로그램을 통한 학부과정 이수기회 제공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25〉 W대학 외국 유학생 현황(2015년)

인원수(단위:명)

전공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인문사회계	324	111	15
공학계	32	21	1
자연과학계	1		
예체능계	88	14	
의학계			
소계	445	146	16
어학연수		40	
기타연수		468	
합계		1,115	

- 2015년 현재 본교생으로 중국자매대학에 파견한 유학생 수는 총 132명으로 북경외국어대학 104명, 남경효장대학에 13명, 그 외의 대학에 15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들 유학형태는 2+2, 3+1 방식의 복수학위프로그램 이수, 6개월 단기어학연수과정, 우수한 수준의 교환학생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수교류
 - 2009년 이후 매년 약 30명 수준의 교환교수를 초빙하여 중국학부 및 여타 학부에서 강의하고 있음.

- 문화교류
 - 2003년부터 해외 자매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Summer Culture Program의 문화교류를 실시하여 약 100여 명의 외국 학생에게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자원공유
 - 2006년 11월에 공자학원을 개설하여 다양한 중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2003년 7월 남경 효장대학과 외자합작교육기관인 '한중IT학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임.
 - 자매대학인 사천외국어대학, 하북사범대학, 항주사범대학에 한국어센터를 개설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TOPIK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국제학술회 공동 개최
 - 중국 자매대학과 합작하여 매년 1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2008년 솔브릿지 국제대학 국제회의장에서 'e-learning과 대외중국어 교학'이라는 주제로, 2009년 12월에는 한중 42개교가 참가하는 '한중 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솔브릿지-BFSU 공동프로그램
 - 북경외대와 합작하여 솔브릿지-BFSU 공동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세계수준의 경영학사를 양성하기 위한 2+2복수학위제도를 개설하여 운영 중임.

3) 유학생의 문제

- 현재 기숙사 거주자가 73.2%로 전국 대학의 유학생 기숙사 거주 비율인 약 30%보다 높은 편임. 그러나 아직도 26.8% 394명이 교외 거주자로 남아 있어 생활이 불안정하며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못함.
-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유학 초기 부적응한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예컨대, 매운 한국음식에 대한 부적응, 학사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부적응 등을 들 수 있음.
- 언어능력 부족으로 강의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현재 유학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자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수준으로는 소통이 어려운 실정임. 이 때문에 한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영어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임.

- 중국보다 높은 학비 수준으로 학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많은 편이라서 일부 부유한 가정환경의 학생 외에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음. 단, 양질의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이 어려우며 학업과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나. H대학의 대중국 교류

1) 교류 현황

가) 교류 유형

- 중국과의 교육교류는 주로 자매결연을 통해 실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자매결연
 - 학생교류(언어 연수, 학부, 대학원, 박사후 과정 등)
 - 문화교류
 - 자원공유

나) 유학 유형

- 학업에 전념하는 전업 유학형과 일하면서 공부하는 반공반독형으로 구분됨.
- 2015년 중국 유학생의 유학형태를 살펴보면 자비유학이 738명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초청이나 중국정부 파견 및 대학 초청은 없음.

〈표 2-26〉 H대학의 중국유학생 유학형태

연도	자비유학	정부초청	대학초청	중국정부파견	기타	합계
2015	738		.	.	.	738

- 거주형태를 보면 기숙사 수용이 435명, 비수용이 303명으로 수용비율이 전체의 58.9%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을 넘음.

〈표 2-27〉 H대학의 기숙사 수용 여부

연도	수용	비수용	합계
2015	435	303	738

〈표 2-28〉 H대학 외국 유학생 현황(2015년)

인원수(단위: 명)

전공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인문사회계	330	44	10
공학계	26	6	2
자연과학계	14		
예체능계		3	
의학계			
소계	370	53	12
어학연수		80	
기타연수		144	
합계		659	

2) 교류 성과

- 중국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2015년 4월 현재 659명에 이룸.
- 다양한 방식의 학생 교류 및 학습기회 제공
 - 2015년 현재 본교의 중국 유학생은 659명이며, 학사, 석사, 박사과정 재학생 수는 총 435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이외 34%는 어학연수 및 기타연수생임.
- 현재 총 32개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중국 대륙에 31개교(북경정법대학, 흑룡강대학, 호남대학, 절강관광대학, 서안외국어대학, 청도화웨이한국어전문학교 등), 대만지역에 1개교(대만문화대학)로 주로 중국 대륙의 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 중국 자매학교 중 교환학생제도를 두고 있는 대학은 절강관광대학, 후난대학, 흑룡강대학, 남경효장대학, 청도호텔관광대학, 장춘광화대학, 대만문화대학 등 총 11개교로 54명규모임.
 - 교환학생제도는 협정대학과의 상호협약에 따라 학비 면제, 숙소 제공 등의 조건으로 학생을 상호 파견하는 프로그램임. 주로 1-2학기 현지에 유학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에 사회 각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문화교류
 - 한국어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1회 한국문화체험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중국지역 유학생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음.

- 항주 세종학당을 개설하여 자원공유
 - 이 학당은 한국세종재단과 본 대학이 2012년 11월에 항주관광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개설하였음.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본 학당은 한국어 강좌, 문화체험 등 주기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2013년 10월 한국음식문화 체험행사 개최.
 - 2013년 11월 제1회 중국 가정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개최.
 - 2015년 11월 제2회 한류문화 뽐내기- 한중노래대회 개최.

3) 유학생의 문제

-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강의내용의 이해가 부족함. TOPIK 4급의 수준으로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족하여 유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다수 있음. 학비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학능력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현재 TOPIK 3급(30%감면), 4급(50%감면), 5급(60%감면), 6급(70%감면)을 기준으로 장학 규정을 두고 있음.
- 기숙사 시설의 부족과 교내 편의시설 활용방법에 대해 만족도가 낮음. 본 대학은 유학생 전용 기숙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기숙비율이 58.9% 수준에 이룸, 이 점은 다른 대학에 비해 우수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임. 또한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하여 기타 편의시설의 활용 등에 대한 불만도 나타나고 있음.
-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기회와 다양한 학습기회 부족. 중국인들의 학사와 교류 공간이 한국 학생들과 일부 분리되어 있어 일상생활 중 교류할 기회가 부족함. 때문에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가 부족한 현실임.
- 한국의 지역문화 체험 및 전공 관련 탐방기회 미흡. 대학 당국이 제공하는 지역문화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보다 다양한 활동이 요청됨.
- 교환학생 방식의 교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 대부분 자비 유학으로 재학해 있어서 자매대학 간 교환학생 협정을 통한 교류기회가 미흡함. 체류 기간도 부족하여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 아르바이트 기회가 제한되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체험 기회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음. 중국보다 높은 학비와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임.

3. 과제 및 시사점

1) 국제교류 서비스체제 개선

- 교류관련 부서에 중국 전문 직원 확보.
- 중국 유학생 체류제도 개선을 위해 취업 지원 및 체류제도의 다양화 요청. 예를 들어, 체류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6개월의 체류기간 연장 등.
- 기숙사 시설 부족과 교내 편의시설 내용 및 활용방법에 대한 불만 해소 방안 마련.

2) 한국 유학 홍보체제의 보완

- 대학별로 특성화된 부문이나 전공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여 질적 교류로의 전환.
- 경기도 내 유학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 및 전문 온라인 홍보 사이트 개설 및 운영.
- Q&A방식으로 유학 절차나 내용에 대한 의문점 해결.
- 심층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전화나 이메일 주소 탑재.
- 중국 자매지역 정부와 공동으로 Summer School 적극 개설. 현재 한국 중심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나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자매지역 정부와 공동으로 3-4주간의 Summer School을 운영하는 방식이 요청됨.
- 경기도의 대학이 중국자매대학과 연계하여 ‘세종학당’을 개설 및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TOPIK 실시. 한편, 각종 한류 관련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유학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함.

3) 자매결연 및 교류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 자매결연 대학의 확충을 통한 유학 기회 확대.
- 교환학생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류기회 및 기간의 유연화 방안 마련.

4) CAMPUS ASIA 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 동북아공동체 형성 및 아시아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
- 한·중·일 대학 간 공동 학습프로그램 개발.

5) 장학제도의 확충 및 개선

- 자비유학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의 장학 기회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학습기회 제공.
- 높은 수준의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감안한 근로장학생 수혜 기회 확대.

6) 한국 문화체험활동 확대 및 지원

- 전통문화, 요리, 태권도, 영화, 홈스테이 등 한국 문화체험활동을 확대하고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방학기간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한중 양국의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 형성

7) 유학생 관리 및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 재학 중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
- 졸업 후 국내에서의 취업 지원 대책 마련, 인턴십 기회 제공.
- 유학생의 성공사례 발굴 및 귀국 후 동창회 활동 지원.

8) 도 단위 한중교육교류 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체제 구축

- 한중 양국 간 교육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정보 제공 및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 각종 프로그램 진행 및 문제 해소.
- 교육교류사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 공유.
- 한중 간 교류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수집,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DB 구축.
- 정부, 대학, 민간 간의 연계 협력체제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Ⅲ. 중국 대학의 국제화 정책 및 사례

1. 중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흐름

□ 중국 고등교육의 개방화

- 중국은 1970대 초반 이후 개방화 정책을 취하면서,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큰 변화를 경험함.
- 특히 덩샤오핑의 주도 하에 1978년의 고등교육과정을 위한 해외유학 개방화 정책이 대표적임¹⁰⁾.
 - 덩샤오핑은 현대화(modernization), 세계화(the world), 미래(the future)라는 3대 지향점을 제시하였음.
 - 또한 많은 수의 학생이 국외로 진출하여 유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1980년대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한 국제화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해외유학생 수의 증가율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임.
- 1983년 이후, 중국 중앙정부의 교육발전계획의 핵심요소의 하나로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포함됨
- 특히, 1990년대의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 이후에 대학에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점차 국제무대에 개방하기 시작함.
- 1993년에 제시된 ‘중국의 교육개혁 및 발전계획’에서는 교육 분야의 개방 및 국제교류 강화가 중국의 교육개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되었음.
- 특히 1996년에는 중국정부가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2000년대에는 ‘동방국제교육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의 교육기관과 국제협력 및 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음.
- 2008년에도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발전을 위해 5억 위안을 투입하였고, 이들을 위한 중국정부의 장학금을 크게 확대함.

10) 신의향(2012). 중국고등교육의 국제화.

- 또한 중국정부는 2010년에 교육개방 및 국제협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 개요(2010-2020)’를 발표함.
 -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2010년 ‘Study Abroad in China’라는 프로젝트를 공포하였는데, 총 50만 명(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2020년까지 유지한다는 목표를 발표함.
 - 이러한 흐름의 주된 배경으로는 중국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우수인재 확보라는 실제적인 의도가 담겨 있음.
 - 이와 함께, 중국의 각 대학들은 설립목적 및 주어진 환경에 맞게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민영화와 해외대학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¹¹⁾

<표 3-1> 중외대학합작의 발전과정

회복단계 (1978~1981)	발전단계 (1982~2000)	심화단계 (2001~2007)
<p>중국의 경제정책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문화혁명 이후 단절된 교육이 회복되는 시기임</p> <p>이 시기에 중국교육부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500명의 국비유학생이 3만 명으로 확대됨</p> <p>중국정부는 자비유학생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고, 자비유학생들의 학위 및 학력을 인정함</p>	<p>처음으로 중외합작 교육기관이 설립됨</p> <p>남경대학(南京大學)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이 협력하여 최초로 “중미문화연구센터(中美文化研究中心)”가 설립됨</p>	<p>WTO의 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2002년 독일정부와 학위·학력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필두로, 2007년까지 영국, 프랑스 등 32개 선진국가와 협약을 체결함</p> <p>팔목할 만한 성과로서, 2003년 <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의 제정은 우수 교육자원 유치, 세계수준의 해외인재 유치,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교원의 확대를 가져옴</p> <p>- 조례의 내용은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선별 및 우수한 교육자원 유치의 내용을 포함하며, 교육과정·교재·수업방법 등의 내용까지도 포함하였음</p> <p><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에서는 해외의 고등교육기관이 단독으로 중국에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음. 이를 바탕으로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는 외국의 고등교육 기관과의 합작 형태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p>

*출처: 구자익 외(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에서 재구성.

11) 최석준(2010), 글로벌 교육서비스 재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강화 방안연구.

- 중국 고등교육 국제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외국대학과 중국대학이 제휴하는 합작대학의 확산임.
 - 합작대학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유학생 유출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공동 대응책임.
 -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에 따르면 해외고등교육기관이 독자적으로 중국 내부에 교육기관을 설치하지 못함.
- 또한 중국 중앙정부는 세계 각국에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주요 외국대학에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있음.
 -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 및 중국문화 보급이 주요사업이며, 중국정부는 공자학원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국립대학의 민영화는 국립대학이 민간기업 등과 합작하여 단과대학 및 분교를 운영 하는 것임

2. 중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

가. 우수인재 유치 정책

□ 중국의 우수인재 유치 정책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인재로 간주하고, 단계적으로 부족한 우수 인재를 외국에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함.

〈표 3-2〉 중국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 현황

정부부처	프로그램	내용
교육부	춘취계획	1997년부터 실시, 해외유학인재의 귀국 후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관련 플랫폼 제공.
	유학귀국인원 과학연구 착수 기금	1990년에 설립, 해외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기관이나 연구단체에 취직한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 착수 지원금.
	장강학자 계획	1998년부터 실시, 교육부와 홍콩의 리자청(李嘉誠)회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수특별초빙제도’와 ‘장강학자 업적상’, 211 및 985 공정에 이은 고등교육혁신 및 인재유치계획 중 하나로, 우수한 학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정부부처	프로그램	내용
	111 공정	2006년 9월에 발표한 세계100위권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1천명의 인재를 초빙하여 중국 100대 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신세기 우수인재 지원계획	2004년부터 시작됨. 수리, 화학화공, 농업, 에너지, IT, 인구건강, 자원 환경, 신소재, 선진제조, 관리, 인문사회과학 등 11개 연구영역 분야의 국내외 우수인재에 대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자연과학: 50만 위안, 인문사회과학: 20만 위안 지원)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적자계획	“海外赤子为国服务行动计划 (해외동포의 국가를 위한 행동계획)” 의 약칭으로 해외 동포 및 유학생이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우수인재 지원금	1986년부터 실시, 우수유학 인재가 귀국 후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금 및 플랫폼 제공.
	유학인원 창업지원계획	2006년부터 실시, 해외우수 유학인재가 귀국 후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과 플랫폼 제공
	고급우수 유학인재 귀국 지원계획	2002년부터 실시, 해외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및 과학자 유치를 위해 자금과 플랫폼 제공, 1인당 60만 위안의 정착금 지원(중앙: 30만 위안, 지방: 30만 위안)
중국 과학원	중국 과학원 고급 방문학자 계획	중국과학원고급방문학자계획은 해외에서 고급방문학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국내외 명망이 높은 학자를 초청하는 프로젝트
	왕관청상금	왕관청상금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중국인유학생,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유학인원이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학자와 기술 전문가, 중국 내 과학연구기관의 초청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들을 대상으로 함. 왕관청강상금 수상자는 중국과학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응용연구나 신흥 선진기술 영역의 개발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
	백인계획	1994년부터 학술리더 인물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당시 인재 유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중요한 조치로 중국에서 가장 일찍 가동한 우수인재 유치계획.
자연과학기 금위원회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 B 유형 지원금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해외에서 실험실이나 중대한 연구프로젝트의 주요한 책임을 담당한 자, 국내에 실험조건이나 협작을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함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단기 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단기 귀국 기금 지원대상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인원, 지원 범위는 국내에서 근무 또는 강의하는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접대비(숙식비, 교통비 등 포

정부부처	프로그램	내용
	국 기금	함). 국내 연구비는 초청 기관에서 수주한 국가자연과학기금프로젝트 경비에서 지급.
	국가걸출청년계획	국내 청년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해외우수 청년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실시한 계획. 1인당 80-100만 위안의 경비를 지원하고, 연구기한은 4년.
중국과학기술협회	해지계획	2003년 중국과학기술협회와 35개 해외과학기술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계획, 해외주요 과학기술단체가 적극적으로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국가해양국	해양계통 “12.5 계획” 우수인재 유치계획	<전국 해양인재 발전 중장기 계획요강(2010-2020)>에 근거하여 해외의 해양계통기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산당중앙판공청	천인계획	2008년 발표한 “고급해외인재유치계획(中央人才工作協調小組關於實施海外高層次人才引進計劃的意見)”에 근거, 향후 5~1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

*자료: 구자익 외(2013).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 주요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의 성과

- 중국의 주요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제시하였음.
 - ‘춘취계획’은 간쑤성 정부 및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관이 협력하여 ‘프랑스 중국유학생 서부지역건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임. 이를 통해 중국 서부지역 개발을 꾀함.
 -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 799명의 학자가 97개 중국 대학교에 채용됨. 특히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 24명의 학자가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정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고, 57명의 학자가 ‘973’계획 수석연구과학자로 임명됨.
 - ‘적자계획’에서는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7,000명의 학자가 참여하였고 2010년까지 10,000개 이상의 기술 협력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함.
-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중국의 ‘천인계획’은 세계적 우수인재 1천여 명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임. 이러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지원하는 전략임.

- 2008년부터 추진된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우수인재(학자, 기업가, 전문기술인 등)를 영입하여 국가중점 프로젝트, 대학 및 연구기관, 국유기업 및 은행, 첨단 산업단지 등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였고, 2011년 1월까지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함.

□ 인재 유치 프로그램의 과제

- 중국의 인재유치정책에서 소모적 경쟁, 인재구조의 불균형, 편법적인 유치인재 사용, 유치인재의 ‘떡튀’ 현상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인재들의 근무태만 및 혜택만 취하고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특히 중국의 거주 및 연구 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세계적 석학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인재 유치 프로그램의 시사점

-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국가기관 및 국가 출연 연구단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함.
- 해외인재유치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별 인재수요에 맞춤형 전략을 세움.
- 중앙정부, 연구단체,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적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재유치를 가능케 함.

나. 외국대학 유치정책(중외대학합작교류)

1) 중외대학합작의 배경 및 현황¹²⁾

□ 배경

- 중국정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개혁추진 및 구조조정, 평가체제 정비, 민영화정책, 합작대학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임.
- 특히, 중국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211공정’, ‘985공정’ 과 같은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외부적으로는 합작대학을 통하여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경험을 활용하여 자국의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려는

12) 구자억 외(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중국정부의 합작대학 추진의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의 개혁개방과 환경의 변화는 중국고등교육 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요구함.
 - 글로벌 경제화를 통하여 국가 간의 교육자원 교류가 강화되었고, 이는 중국의 고등교육 국제화에 영향을 미침.
 - 특히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WTO의 가입은 합작대학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2002~2004년 경제협력 개발기구,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노르웨이, 호주와 협력하여 “교육서비스 무역국제포럼(教育服务贸易国际论坛)”을 주최하였고, 이를 통한 원활한 국제관계 형성은 합작대학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함
 - 중국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였지만, 중국정부만의 재원투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우수고등교육 기관의 경험 및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꾀함.

□ 합작대상 국가 현황

- 중국의 합작대학 대상 국가로는 영국이 145개로 전체 합작의 26.9%를 차지함.
- 영국 다음으로 러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독일, 한국,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의 순으로 합작하고 있음(그 밖에 국가로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우크라이나,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 순으로 합작대학을 운영함).
- 중국과의 합작대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의 합작대학 총 86개 중에서 78개가 러시아와 가까운 헤이룽장성에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합작대학 19개 중 12개의 합작대학이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에 분포하고 있음.

〈표 3-3〉 중국 합작 대상국의 분포 현황

순위	합작국가	합작수	비율(%)	비고
1	영국	145	26.9	
2	러시아	86	15.9	78개는 헤이룽장성에 분포함
3	호주	77	14.3	
4	미국	74	13.7	
5	캐나다	38	7.0	
6	독일	28	5.2	
7	한국	19	3.5	12개는 산둥성에 분포함
7	프랑스	19	3.5	
9	아일랜드	12	2.2	
10	일본	10	1.9	

순위	협력국가	협력수	비율(%)	비고
11	뉴질랜드	10	1.9	
12	홍콩	6	1.1	
13	네덜란드	4	0.7	
14	이탈리아	3	0.6	
15	오스트리아	2	0.4	
15	덴마크	2	0.4	
17	우크라이나	1	0.2	
17	인도	1	0.2	
17	대만	1	0.2	
17	남아프리카공화국	1	0.2	
17	포르투갈	1	0.2	
	합계	540	100	

* 출처: 구자익 외(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에서 발췌.

□ 협력대상 전공 현황

- 협력대학의 전공 중에서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국제경제무역, 건축학, 음악학, 심리학, 영어, 지질학 등 총 88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음.
- 협력전공의 구성은 컴퓨터 과학 및 기술(41개), 국제경제무역(34개), 회계학/국제회계학(27개), 경영관리(25개), 기계설계제조 및 자동화(18개), 생물학/생물공학(17개), 전기공학 및 자동화(17개), 금융학(16개), 예술디자인(14개), 여행관리(12개), 영어(12개), 간호학(12개) 등으로 이루어짐.

2) 중국의 외국대학유치 정책 발전과정¹³⁾

□ 중국의 협력대상 운영정책 발전과정

- 중국의 협력대학은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중국에 합법적으로 진출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중국의 고등교육이 외국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
- 중국의 협력대학 운영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발전되었음.

13) 구자익 외(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표 3-4〉 합작대학 운영정책의 발전과정

단계	단계별 주요 내용
<p>〈1단계〉 합작대학 운영정책의 형성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개방정책 이후 ~ 1995년 ○ 주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시기의 합작학교 운영은 비학력과정에 속하였으며, 중국 측의 합작학교 참여기관은 정규학력과정의 고등교육기관은 아님 · 아직 중국의 합작학교에 대한 운영정책이 미비한 시기였음 - 1993년 〈외국기관의 개인이 중국과 합작학교 운영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境外机构的个人来华合作办学问题的通知)〉를 공포함 · 중국정부의 개방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외국의 질 높은 교육운영방식, 교육내용,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게 하여 중국 교육의 질을 높이는 취지임 · 합작학교는 중국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것을 규정함 ○ 의의: 〈외국기관의 개인이 중국과 합작학교 운영문제에 관한 통지〉는 중국정부의 합작학교 운영에 대한 기초가 되는 정책방향임
<p>〈2단계〉 합작대학 운영정책의 발전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1995 ~ 2003년 ○ 주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중외합작학교운영잠행규정〉을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정은 〈외국기관에서 온 개인이 중국에서 합작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통지〉를 기반으로, 1년 동안의 수정기간을 거쳐 제시된 비교적 체계적인 정책 규정임 · 합작학교 운영의의, 성질, 필요성, 준수원칙, 심사과정, 운영주체, 학위수여, 관리·감독체제 등 합작학교 운영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함 - 1996년 〈중외합작학교 운영활동 중학위수여 및 관리 강화에 관한통지(关于加强中外合作办学活动中学位授予管理的通知)〉가 공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외합작학교운영잠행규정〉의 중요 보충문건임 · 합작학교를 설립·운영하는데 정책발전의 기반이 됨 - 2002년 〈중외합작학교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통지(关于加强中外合作办学管理的紧急通知)〉를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에 가입 후, 중국정부는 합작학교 운영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시함 · 〈긴급통지〉는 〈중외합작학교운영잠행규정〉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각 지방정부는 해당구역의 합작학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함 ○ 의의: 이 시기에는 합작대학 운영정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합작대학 법제화를 위한 기초단계임
<p>〈3단계〉 합작대학 운영정책의 법적·제도적 완성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03 ~ 현재 ○ 주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중외합작학교운영잠행규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이하 조례)가 공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대학 운영에 대한 최초의 행정법규로서, 신청 및 조건, 기관의 책임자와 조직, 교수 및 교육과정, 재무관리, 관리·감독 및 법률적 책임 등을 명시함

단계	단계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대학 운영의 성질, 발전방향, 권익과 행위준칙, 범위, 원칙을 규정 - 2004년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실시방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实施办法)>(이하 실시방법)이 공포되면서, <중외합작학교운영잠행규정>은 폐지됨 · <실시방법>에서는 합작학교 운영기관의 설립 및 관리 등의 구체적 규정을 제시함 - 2004년 8월 <중외합작학교운영기구 및 항목점검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中外合作办学机构和项目复核工作的通知)>를 제시 - 2004년 8월 <중외합작학교운영기구 신청표(中外合作办学机构申请表)>와 중외합작학교운영항목 신청표(中外合作办学项目申请表)등에 관한 통지>를 제시함 - 2004년 9월 <본과이상 고등학력교육의 중외합작학교운영기구와 항목 신청과 관련 규정 통지(关于设立和举办实施本科以上学历教育的中外合作办学机构和项目申请受理工作有关规定的通知)> 등 제시함 - 2004년 12월 <중외합작학교운영 허가증 일련번호 방법(시행) 통지(中外合作办学许可证编号办法(试行)的通知)>31) 제시함 - 2006년 <현재 중외합작학교 운영의 일부 문제에 관한 의견(关于当前中外合作办学若干问题的意见)> 공포 · 합작학교 운영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익성 훼손, 교육주권, 교수의 질 및 비용관리 등을 제시함 - 2007년 <교육부의 한층 규범적인 중외합작학교운영 절차에 관한 통지(教育部关于进一步规范中外合作办学秩序的通知)> 공포 · 합작학교 운영의 미비점이 지적되며, 운영기구 및 항목심사 규정 제시 - 2010년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발전계획강요(国家中长期教育改革与发展规划纲要)(2010~2020)>(이하 “교육계획강요”) 공포 · 지명도 높은 외국의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 과학기술연구기관, 관련 기업을 유입하여 교육·연구 프로그램 및 기관 합작을 지원 ·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이 다양한 방식의 합작을 하도록 독려 ○ 의의: 이 시기는 합작대학의 설립, 운영, 관리 등이 법제화된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줌

*출처: 구자억 외(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재구성.

□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

- <조례>에서는 합작학교 운영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포함되어 있음.
- <조례> 공포 이후, 합작학교운영에 대한 법제화, 규범적인 학교설립, 체계적인 설립 및 운영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음.

- 설립, 조직 및 관리, 교육, 자산 및 채무, 변경 및 중지, 법적책임 등 총 8장 64조로 구성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5〉 중외합작학교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외합작학교운영은 공익성 사업·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영역에서 중외합작학교운영을 격려하고, 해외 지명도 높은 대학 교육기관과의 합작을 격려함 · 중외합작학교운영은 반드시 중국법률을 준수하고, 중국의 국가주권, 안전과 사회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됨 · 법적으로 모든 종류의 학교유형에서 합작이 가능하고,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에서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질교육기관 설립은 제외함 · 중국경내에서 어떠한 종교 활동도 금지함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외합작설립자의 지적재산권은 각자 투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기본적으로 법인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본과 이상 고등학력교육 등의 유형에 따라 심사비준 기관이 상이함 · 중외합작교육기관은 비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고 3년 이상 초과 시 재신청
조직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자격과 비법인 자격을 구비한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각각 이사회(동사회)와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 측 구성인원은 최소 50%를 확보해야 함·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관의 교장 혹은 주요 행정 책임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을 소지해야 하고, 중국에 거주하여야 함· 중외합작교육기관에서 초빙한 외국국적교사와 외국국적 관리인원은 학사이상 학위학력과 상응하는 직업증서 구비 동시에 2년 이상의 교육교수 경험이 있어야 함
교육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규정에 따라서 헌법, 법률, 공민도덕, 국정(國情) 등 과정을 개설해야 함 ·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배울 수 있으나, 중국어 표준어와 표준한자를 기본교학언어문자로 지정해야 함 · 학력교육과 비학력교육은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중외합작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외국교육기관의 학력, 학위증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재한 국가에서 발급한 학력과 학위증서와 같아야 하며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외합작교육기관의 설립수준과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그 평가결과를 사회에 발표하여야 함
자산과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존속기간내의 모든 자산에 대한 법인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음 · 비준을 거치지 않은 한 비용항목 증가나 비용표준을 높여서는 안 됨 · 인민폐로 학비와 기타비용을 징수해야 함 ·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함
변경과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학력 교육과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기관의 본사 설립 및 합병에 대해 심사비준기관은 각각 신청일로부터 3개월과 6개월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구성	주요내용
	· 중외합작설립자의 변경은 설립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재무 청산을 진행한 후 본 기관의 이사회(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동의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관련 변경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법적 책임	·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혹은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중외합작교육기관 설립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그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몰수한다. 또한 학생에게 징수비용을 반환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함. <조례> 규정을 반하고 학생을 모집한 경우, 학생모집 정지 명령과 동시에 학생에게 징수비용을 반환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함
법적 책임	· 중외합작교육기관의 관리혼란과 교육교수 질 저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한 경우 교육 행정부문과 노동행정부문은 각자의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명령함. 또한, 개선되지 않은 경우 주요 책임자는 “중외합작교육기관 설립허가증”을 몰수당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임의로 주요행정책임자의 직책을 담당해서는 안 됨.
부칙	· 외국교육기관과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은 중국경내에서 독자적으로 중국공민을 주요 대상으로 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됨.

*자료: “구자역 외(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재구성.

□ 합작대학 운영심사 및 관리

- 합작대학의 심사 및 인가는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실시방법>, <중외합작학교운영잠행규정>을 따름.
- 직업기술 기능허가는 해당 행정구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부서가 심사를 진행함. 그 밖에는 교육행정부서가 심사를 진행함.
- 대학 이상의 합작기관 및 프로그램은 해당 행정구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가 심사를 진행하고, 교육부에 보고 및 인가를 받음.
- 3년제 전문대학, 비학력 고등교육 합작기관 및 프로그램도 해당 행정구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교육부에 보고 및 인가를 받음.

3)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가)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 배경 및 현황¹⁴⁾

□ 배경

14) 구자역 외(2014), 중국 외국인유학생 유치정책.

- 중국에서 유출된 유학생의 누적 총수는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중국 유학생의 해외진출은 중국정부가 고등교육 개방을 확대하는 촉진제가 되었음.
- 2011년 한 해에만 약 34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해외대학으로 진출함¹⁵⁾.
- 이 중 12,800명은 정부지원, 12,000명은 소속 직장의 재정지원이었지만, 나머지 대다수인 315,000여명은 자비유학이었음.

□ 2010년, 중국정부는 합작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위해 「유학중국 계획(留學中國計劃)」을 발표함

- 이 계획의 목표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를 50만 명으로 제시함.
- 2013년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은 200여 국가, 356,499명임.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성과

-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분포 확대
 - 2000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346개 교육기관에 유학함.
 - 2012년에는 690개, 2013년에는 746개의 교육기관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함.

〈표 3-6〉 대륙별 외국 유학생 수(2007년~2012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아시아	141,689	152,931	161,605	175,805	187,871	207,555
유럽	26,339	32,461	35,876	41,881	47,271	54,453
아메리카	19,673	26,559	25,557	27,228	32,333	34,882
아프리카	5,915	8,799	12,436	16,403	20,744	27,052
대양주	1,733	2,749	2,710	3,733	4,392	4,388

출처: 구자역 외(2014), 중국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의 다양화
 - 2013년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입 국가는 주로 한국, 미국, 태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임.

15) 신의향(2012), 중국고등교육의 국제화.

- 2012년에 비해 아프리카(23.31% 증가), 유럽(13.02% 증가), 대양주(8.09% 증가) 등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증가함.

〈표 3-7〉 중국의 외국 유학생 수 국가 순위(2007년~2012년)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2007	한국 (64481, 32.98%)	일본 (18640, 9.53%)	미국 (14758, 7.55%)	베트남 (9702, 4.96%)	태국 (7306, 3.74%)
2008	한국 (66806, 29.89%)	미국 (19914, 8.91%)	일본 (16733, 7.49%)	베트남 (10396, 4.65%)	러시아 (8939, 4.00%)
2009	한국 (64232, 26.98%)	미국 (18650, 7.83%)	일본 (15409, 6.47%)	베트남 (12247, 5.14%)	태국 (11379, 4.78%)
2010	한국 (62957, 23.75%)	미국 (19668, 7.42%)	일본 (16808, 6.34%)	태국 (13177, 4.97%)	베트남 (13018, 4.91%)
2011	한국 (62442, 21.34%)	미국 (23292, 7.96%)	일본 (17961, 6.14%)	태국 (14145, 4.83%)	러시아 (13340, 4.56%)
2012	한국 (63488, 19.35%)	미국 (24583, 7.49%)	일본 (21126, 6.43%)	태국 (16675, 5.08%)	러시아 (14971, 4.56%)

*출처: 구자역 외(2014), 중국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 증가

- 2010년 "유학중국계획"의 영향으로,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타 경제발전, 사회적 안정, 국제사회에서의 인식 제고 등의 원인도 중국 유학을 선택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나)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발전과정¹⁶⁾

〈표 3-8〉 중외합작학교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

년도	주요내용
1990년대	○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정책방향이 외국인 유학생 양적증가에서 질적 증가로 전환됨
2000년대 초반	○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 2000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외국유학생관리규정(高等學校接受外國留學生管理規定)>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를 촉진함

16) 구자역 외(201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년도	주요내용
2000년대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교육부는 <일반대학의외국유학생학적과학력증명서온라인등록제도시행에 대한공문(關於試行普通高等學校外國留學生學籍和外國留學生學歷證書電子注冊的通知)>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의 학적·학력 관리 강화 ○ 2008년 <국가교육사업발전 ‘11·5’ 계획강요(國家教育事業發展“十一五“計劃綱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폭적인 장학금 증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진 ○ 2010년에 교육부는 <중국유학계획(中國留學計劃)>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유학사업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 단계 발전된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추구

*출처: 구자익 외(201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 또한 중국정부는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배양하여 중국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음. 2000년 이후 공포한 중국유학 관련정책의 주요문건은 다음과 같음.

<표 3-9> 2000년 이후 공포한 외국 유학생 관련 문건

연도	주관 부서	법령	주요내용	특징
2000	교육부	대학의 외국유학생 관리규정	중국대학 외국 유학생 유치관리에 관한 법칙	규범적인 외국유학생 유치관리 촉진
2000	국무원	1998-2002년 교육진흥행동계획	해당 시기 중국 국내 교육사업의 발전목표를 세우는 계획	국제학술교류를 촉진
2000	국무원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	농촌교육 발전 촉진, 대학개혁, 소질교육 촉진, 개방적인 교육실현 및 중국적 특색이 있는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세운 계획	전면적이고 고차원적인 국제교육 협력과 교류 촉진
2000	교육부	중국정부 장학금년도 심사제도에 관한 통지	중국 정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심사제도	1997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외국 유학생장학금 심사시행법>을 수정하여 정부장학금 심사기준의 명확화

연도	주관 부서	법령	주요내용	특징
2000	교육부	외국유학생 의료보험제도 건립	중국정부장학금을 받는 외국 유학생 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	중국정부장학생 의 료보험가입프로젝트 를 실시하여 유학생 의료 보험제도 개혁
2004	교육부	중국의 외국 유 학생 정보관리 플랫폼	중국유학 외국 유학생 유치관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중국유학 외국 유 학생 정보관리 플랫폼을 건설하고 추진	외국 유학생 유치관 리를 강화
2006	교육부	우수 외국인 자비 유학생 장 학금 제정	일부 중국유학 우수 자비 외국 유학 생에게 중국정부장학금을 제공	중국유학 외국 유학 생 장학금제도 개선
2007	교육부	일반대학의외국 유학생학적과학 력증명서온라인 등록및시행에관 한통지	중국대학과 외국 유학생 유치관리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교육부는 “외국 유학생 학적과 외국 유학생 학적력증명서의 온라인등록 제도에 관 한 안내“를 하고 관련 사업을 실행	외국 유학생 학적 및 학력 관리 강화
2008	교육부 중 국 유 학 기 금 관 리 위 원회 (CSC)	제2차 중국정부 장학금 생활비 기준 인상 실시	중국사회 실제 소비수준에 따라서 중국정부장학금 생활비 기준 인상 실시	외국인 장학생의 생 활비 기준 인상
2010	교육부 (教育部)	중국정부장학금 에 관한 관리규 정	중국정부장학금 및 장학금수여 학생 에 대한 관리를 규정. 장학금의 종 류, 대상, 제한, 신청조건 등을 구체 적으로 명시	외국 유학생들에 대 한 중국정부 장학금 정책을 공개함으로써 제도를 투명화
2010	교육부 (教育部)	<중국유학계획 (留學中國計 劃)>	<중국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 (2010-2020年)>를 실현 하고 중국과 외국의 교육협력 교류 와 협작을 강화하여 중국유학사업의 발전과 중국교육의 국제화 수준향상 을 위해 교육부에서 2010년에 발전 목표, 주요임무를 비롯한 20개 항목 을 포함한 “중국유학계획“을 공포	<중국유학계획>은 외국 유학생이 중국 에 가서 공부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신호

*출처: 구자역 외(201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다)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 관련 법령 및 관리¹⁷⁾

□ 199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외국 유학생에 대한 많은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들 정책은 외국 유학생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촉진함.

□ 중국에서의 외국 유학생 관리는 2000년에 제시된 <고등교육기관외국유학생모집관리규정(高等學校接收外國留學生管理規程)>에 근거함.

- 중국 교육부는 거시적 관리를 담당하며, 외국 유학생의 유치정책을 제정하고 각 지역과 교육기관의 외국 유학생 유치를 관리 및 평가함.
- 각 성급(省級)의 교육행정부문은 해당지역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을 관리하며, 유학 교육기관은 법률 및 규칙에 외국 유학생의 관리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의 모집, 교육, 일상생활 관리 등을 모두 책임지며, 각 대학별로 외국 유학생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유학생 관리 제도를 운영함.

□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법규

- 중국의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1986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출국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에 의거하며,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관리도 포함됨.
- 유치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는 2000년의 <고등교육기관외국유학생모집관리규정(高等學校接收外國留學生管理規程)>에 의거함.
- 중국정부는 2010년 <대학의외국유학생모집관리규정(高等學校接受外國留學生管理規定)>을 공포함.
 -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각 대학의 모집과정을 규범화 함.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의 사회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함.
 -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中華人民共和國高等教育法)>,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출국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에 의거하여 제정됨.
- 중국 교육부는 추가적인 집행사항을 제시함¹⁸⁾.
 -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중국정부의 전략적인 사업으로, 각 유치대학에 대한 격려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관리 강화에 대한 독려가 필요함.

17) 구자역 외(201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18)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10), 「教育部關於執行《高等學校接收外國留學生管理規程》有關問題的通知」.

-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대학의외국유학생모집관리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각 유치대학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야 함.
- 각 지방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기관은 <대학의외국유학생모집관리규정>을 기본으로 각 지방의 현지상황을 반영하여 모집 및 심사방법을 제시함.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한 내 개정을 요구하고 유치자격 취소도 가능함.
- 각 대학은 <대학의외국유학생모집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련 제도를 만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각 부문별 유치관리 및 운영체제

- 중국교육부는 중국의 외국인 유치사업에 대한 거시적 관리를 담당함.
-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방침 및 정책을 제정함. 각 지역 및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관리.
- 성급(省級)의 교육행정부문은 관할지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을 관리함. 제정된 규범에 따라서 관할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
-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교육행정부문은 관할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에 대한 협조 및 관리를 담당함.
- 각 유치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당함.
- 외국인 유학생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대학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3. 중국 대학의 해외진출 및 유입사례

가. 중국 대학의 해외 진출 사례

1) 중국 대학의 해외 진출

□ 중국대학의 해외 진출관련 법 및 제도

- 중국정부는 외국의 우수고등교육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중국대학의 해외 진출에는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음.
- 중국대학의 해외 진출은 자국대학을 외국에 진출시켜 중국어 및 중국문화를 전파한다는 의미도 간과할 수 없음.

□ 중국대학의 해외분교 진출

- 중국정부는 주로 외국의 우수고등교육기관과의 중외합작대학 설립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였음.
- 최근, 외국 현지에 중국대학의 분교도 설치하기 시작함.

□ 각 대학별 분교 사례

- 쑤저우(蘇州) 대학(장수성 지역)의 라오스 쑤저우대학(Soochow University Laos: SUL) 설립.
 - 쑤저우대는 중국 대학 중에서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임.
 - 라오스 정부가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으로 인가를 내준 첫 외국대학 사례임.
 - 당초 2012년 개교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해 라오스 분교에 2014년 대학생 50명과 야간 학부에 100명이 입학함.
 - 쑤저우대 라오스 캠퍼스에서는 법학, 중문학, 중국어, 경제학, 무역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이곳 분교에서 1년 간 공부한 후, 남은 3년은 중국 본교에 가서 학업을 지속함(쑤저우대의 규모는 학부 및 대학원생 약 4만 1천명 정도임).
 - 쑤저우대 라오스 캠퍼스는 중국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프로그램인 “211계획(Project 211)”의 일환으로 추진됨.
 - 중국에서 선정된 우수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정책임.
 - 쑤저우대 라오스 캠퍼스는 지금까지 해외대학을 유치만 하던 중국이, 자국대학을 외국에 진출시켜 중국어 및 중국문화를 전파한다는 의미가 큼.

- 저장성 닝보대학(Ningbo University)의 플로렌스시에 분교개설¹⁹⁾
 -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2011년 기준으로 5,259명임(이탈리아 외국인 유학생 그룹 중 알바니아 다음으로 많음).
 - 닝보대학은 2012년에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시에 분교를 개설함(플로렌스 시위원회는 캠퍼스의 건물을 제공하고 닝보대학은 운영경비를 제공함).
 - 플로렌스 인접 지역인 프라토시는 섬유 산업의 중심지이며, 많은 중국 기업이 이미 진출하였음. 이러한 지역 특성이 중국대학이 분교설립 결정에 주요 요인임.
 - 또한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예술·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

- 하얼빈시 흑룡강 중의약대학(Heilongjia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의 세멜와이스 대학(Semmelweis University) 분교²⁰⁾
 - 흑룡강 중의약대학이 헝가리의 세멜와이스 대학에 분교를 개설하여 한의학 대학과정을 제공하는 합의를 체결한바 있음.
 - 세멜와이스대학 4년 과정을 수료 후, 5년차 과정은 흑룡강 중의약대학에서 마치며, 졸업생은 세멜와이스대학 및 흑룡강 중의약대학 모두에서 학위를 수여받음.

2)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

□ 공자학원 설립의 배경

- 중국 정부는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설립 및 운영함.
- 이미 다른 선진국가도 자국의 언어 및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교육기관을 오랫동안 운영함.
 -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caise), 독일의 괴테문화원(Goethe Institut), 미국 문화원(U.S. Information Agency)은 도서관 등을 운영함.
 - 이들 외국 문화기관과 공자학원의 차이는 다른 선진국가의 언어·문화 교육기관은 자체적인 운영으로 유지되지만, 중국의 공자학원은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각국의 대학 캠퍼스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19) 신의항(2012), 중국고등교육의 국제화.

20) 신의항(2012), 전개 논문.

- 즉, 중국의 공자학원은 중국어, 중국 문화, 역사 등 중국에 관련된 교육 및 중국문화의 전파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공자학원 현황²¹⁾

-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중국 국가한판(國家漢辦)에서는 2004년부터 총 5억 달러를 투자하여 공자학원을 설립하였음.
- 미국에는 우수대학(콜롬비아, 스탠포드, 시카고, 미시간 대학 등)에 공자학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세계 전 지역에 확산되어 있음.

〈표 3-10〉 공자학원 설치 국가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30개국/110개소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일본, 스리랑카,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요르단, 홍콩,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 조지아
유럽 31개국/169개소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폴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영국, 몰타, 몰도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아메리카 12개국/157개소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쿠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파나마
아프리카 18개국/46개소	이집트, 보츠와나,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수단, 모로코, 토고, 베냉, 에티오피아, 말리, 튀니지, 잠비아, 탄자니아, 나미비아
오세아니아 2개국/18개소	호주, 뉴질랜드

* 출처: 공자학원 홈페이지(http://english.hanban.org/node_10971.htm).

- 각각의 공자학원에 대한 지원은 대학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외국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공자학원은 대략적으로 연간 \$100,000에서 \$200,000 사이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사료, 특별 프로그램이나 행사비, 그리고 교육자료 보급 등을 중국 정부가 부담함.

21) 신의향(2012), 중국고등교육의 국제화.

- 또한 중국은 공자학원 이외에도 세계 여러 국가의 수백 개 고등학교에 “공자교실 (Confucius Classroom)”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공자학원은 전 세계 120여 개국, 약 500여 곳이 운영 중임²²⁾.
- 한국은 22개소의 공자학원이 운영 중임.
 - 미국(109개소), 영국(29개소), 독일(17개소), 러시아(17개소), 프랑스(17개소), 일본(14개소), 태국(14개소), 호주(14개소), 캐나다(12개소), 이탈리아(11개소)를 운영 중임.

나. 외국 대학의 중국 진출 사례

1) 중외합작학교의 유형 및 현황

□ 합작학교 운영 조례법에 의거해 다양한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음²³⁾

-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에 의거해 해외의 고등교육기관은 독립적으로 중국에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중국 고등교육기관과 다양한 합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2013년 중국 교육부의 합작대학 및 프로그램 총수는 학부 기준으로 541개임.
 - 고등교육시장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외국대학유치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독립법인 3개, 단과대학 31개, 합작프로그램 507개의 형태로 구성됨.

<표 3-11> 합작유형별 중외합작대학명칭 및 현황(독립법인 및 단과대학 형태)

합작 유형	합작운영대학 명칭	합작 기관 수
독립 법인 형태	닝보노팅엄대학(The University of Nottingham-Ningbo)	3
	상해뉴욕대학(NYU SHANGHAI)	
	서안교통리버풀대학(Xian Jiatong-Liverpool University)	
단과대학 형태	강남대학 북미학원(North American College, Jiangnan University)	31
	길림대학 램턴(Lambton)학원	
	동제대학 중국-독일 엔지니어학원 (Sino-German College Applied Sciences of Tongji University)	
	동북대학 중국-네덜란드 생물의학 및 정보공정대학 (Sino-Dutch	

22) 공자학원 홈페이지(http://english.hanban.org/node_10971.htm).

23) 구자역 외(2013), 합작대학 설립방안.

협작 유형	협작운영대학 명칭	협작 기관 수
	Biomed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School of Northeastern University)	
	동북재경대학 쉐리국제학원 (Surrey International Institute, Dongbe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대의경제무역대학 탁월(卓越)국제학원	
	북경사범대학-홍콩침회(浸會)대학 연합국제학원	
	북경항공항천대학 중국-프랑스 엔지니어학원 (Beihang Sino-French Engineer School)	
	산둥공상대학 국제상학원(國際商學院)	
	산둥농업대학 국제교류학원	
	산서농업대학 중국-독일학원	
	산서재경대학 중국-독일학원 (Sino-German School of Shanx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상해교통대학 미시간연합학원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SJTU-UM Joint Institute)	
	상해대학 시드니공상학원 (Sydney Institute of Commerce, Shanghai University)	
	상해대학 중국-유럽 엔지니어학원 (Sino-European School of Technology of Shanghai University)	
	상하이공대학 중국-영국 국제학원 (Sino-British College, University of Shanghai for Science and Technology)	
	심양사범대학 국제상학원(國際商學院)	
	연변대학 과학기술대학	
	요녕대학 아시아-호주(亞澳)상학원	
	요녕대학 신화국제상학원 (新華國際商學院)	
	요녕사범대학 국제상학원 (LNU-MSU College of International Business)	
	정주대학 시아스(Sias)국제학원	
	정주대학 승달경무관리(升達經貿)학원	
	중경공상대학 현대디자인예술학원(現代國際設計藝術學院)	
	중경대학 미시영화학원(美視電影學院)	
	중경공상대학 국제상학원(國際商學院)	
	중국민항대학 중국-유럽 항공엔지니어학원 (Sino-European Institute of Aviation Engineering, CAUC)	
	중국인민대학 중국-프랑스학원 (Sino-French Institute, Remmin University of China)	
	중산대학 중국-프랑스 핵공정 및 기술학원 (Sino-French Institute of Nuclear Engineering & Technology, Sun Yat-Set University)	

협작 유형	협작운영대학 명칭	협작 기관 수
	청도과기대학 중국-독일 과학기술학원	
	하북과기사범대학유럽미학원	
독립 법인 및 단과대학 형태의 중외협작대학 총 합계		34

*자료: 구자익(2013), 협작대학 설립방안.

□ 협작대학은 대학원 차원의 협작보다는 대부분 학부과정이 중심임²⁴⁾

- 협작대학은 학부과정 76%, 석사과정 23.4% 박사과정 0.6%로 분포되어 있음.

□ 협작대학은 지역 및 전공학과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짐.

- 협작대학은 중국의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개설학과는 주로 경영 및 정보 기술 등의 전공분야에 집중됨.
-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중외협작대학을 운영 중인 지역은 장강삼각주지역으로, 성공적인 외국대학 유치 및 운영의 대표지역임.

2) 중국대학과 외국대학의 역할관계

□ 중국대학

- 주로 학사관리, 교육행정, 시설관리를 담당함.
- 교육과정은 외국 협작대학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학교실정에 맞게 현장화 하여 운영함.

□ 외국대학

- 교육과정, 교재, 교육계획, 지침 제공 및 선진교육프로그램과 수업관리시스템 지원 (닝보노팅엄대학교: 교학평가시스템과 소규모학급 운영 방식 도입).
- 교수를 파견하여 수업 지원.
- 지린재경대학교에서 선발된 중국인 교수는 1,2학년 일반기초과목과 전공기초과목을 수업, 호주 찰스스터트대학교에서 파견된 교수는 3,4학년 호주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함.
- 우수한 학생의 외국대학 수업 교류 및 진학 지원.

24) 구자익 외(2013), 협작대학 설립방안.

다) 대학과 대학 간 독립법인 설립사례

□ 상해뉴욕대학(NYU SHANGHAI)

설립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질 높은 교육자원의 도입 및 국제화된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국제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부와 상하이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음. 미국 뉴욕대학교와의 협상을 통해 2011년 1월 17일에 교육부의 허가를 받음.
법인 및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 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사회 구성 ○ 최고경영자를 뉴욕대 측에서 담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뉴욕대가 맡도록 함.
학위인증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학점을 인정해서 양교의 학위를 수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1,2학년에는 핵심 과정에 대한 수업을 진행, 전공 교육은 주로 3,4학년에 진행하며 1~2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U SHANGHAI의 핵심 교육 과정은 언어, 사회 및 문화 기초, 글짓기, 수학, 과학의 총 5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짐. - 뉴욕대학의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통해 1~3개 학기동안 다른 캠퍼스에 수강 신청이 가능함. ○ NYU SHANGHAI의 교사와 학생 비율은 1:8로 소규모반 유형을 위주로 학생과 교사들 간의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반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됨. - 중국어 학습 과정을 제공하며, 여름 방학 기간 동안의 정규적인 강화 과정과 어학실습실, 온라인 학습, 상황별 언어 지도 과정이 있음. - NYU SHANGHAI 학생들은 한 학기 이상을 NYU 다른 캠퍼스에서 수강함. - NYU SHANGHAI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집한 전공 교수가 40%를 차지함.

*자료: 구자익 외(2013). 합작대학 설립방안. 재구성.

□ Ningbo노팅엄대학교(University of Nottingham Ningbo)

설립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최초로 독립캠퍼스에 독립법인 자격으로 설립됨. ○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고급인재 충원의 일환으로 외국 우수 교육자 원 유치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법인 및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외합작운영조례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대표로 양푸자(재영 중국인) 임명 ○ 합작하는 양측의 분담을 분명하게 나누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교육장소나 설비, 그리고 행정인원 등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은 학생 등록과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교육철학, 교육체계, 교육과정, 교재 등을 제공.
학위인증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대학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영국노팅엄대학의 학위 수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와 대학원의 모든 교육과정은 합작대학의 과정을 그대로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학평가시스템과 소규모학급 운영 방식 도입 - 영국노팅엄대학의 교수·학습방법과 교재를 사용, 영어로 수업 진행. ○ 학사과정 : 학제는 4년으로 4+0과정과 2+2연계프로그램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전일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모든 교육과정이 Ningbo Notingham 대학에서 이루어짐. · 3학년부터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취지로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 교환학생 또는 해외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2연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반부의 2년은 Ningbo Notingham 대학에서 수업하고, 후반부의 2년은 영국노팅엄대학에서 수업함. - 개설학과는 경제학, 국제상무 및 국제관계학, 국제전과, 영어연구, 컴퓨터 과학, 공정과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규정한 공공 필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 (영어, 체육, 마오쩌둥 사상 개론, 사상도덕수양, 마르크스철학 원리, 마르크스정치경제학 원리, 덩샤오핑 이론 및 3개 대표, 문헌검색, 졸업논문) ○ 석사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노팅엄대학의 틀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산업 또는 정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을 주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음. - 학제는 1년 전일제 과정, 2~3년 파트타임 과정임. - 모든 교육과정 및 교재, 수업은 영국노팅엄대학과 동일하게 영어로 진행됨. - 13개의 전공분야로 구성됨 (국제상무, 국제관리, 금융 및 투자학, 국제전과학, 현대중국연구, 영어번역, 국제관계와 세계역사학, 응용언어학, 세계영어, 전과 및 국제창업, 대지측량학 및 측량공정, 지속성에너지기술 등) ○ 박사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제 과정은 학제가 3~4년, 파트타임 과정은 4~6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측과 중국 측의 2명의 교수 지도하에 논문을 작성 · 졸업 마지막 학기는 영국노팅엄대학에서 3주 동안 영국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을 완성함. - 노팅엄대학의 비즈니스대학(중국)과 교육학대학, 지속성에너지기술센터, 국제전과학계열, 국제문제연구계열, 영어연구계열, 경제계열, 공정계열 등 2개의 대학과 1개의 센터, 5개 계열에 설치되어 있음.

*자료: 구자익 외(2013), 합작대학 설립방안. 재구성.

라) 대학 내 단과대학 설립사례: 지린재경대학교 국제교류학원(吉林財經大學 國際交流學院)

설립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대학과의 합작을 통해서 국내와 외국에서 학교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함. ○ 영어권 대학과의 학생 교류와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능력제고. ○ 전공 연구 능력 향상 및 국제적 자질을 가진 우수한 인재 양성.
법인 및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에 있어서 중국 대학 측 3명, 호주 대학 측 2명의 총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함. - 이사장은 중국에서 맡고, 정기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함. ○ 호주 찰스스터트대학은 영문 교재와 교육 계획, 지침을 제공하고 중국 지린재경대학은 학교부지 및 교실 그리고 학생과 교수에 대한 관리 등 모든 교육 행정과 시설을 제공함.
학위인증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학점을 인정해서 양교의 학위를 수여. - 학생들이 받은 호주 대학의 학위는 중국과 호주가 함께 인정함. - 중국 지린재경대학에서는 금융학 전공은 경제학 학사를, 회계학과와 전자상거래 전공은 경제관리학 학사의 자격을 줌. - 호주의 찰스스터트대학은 세 전공 이수자 모두에게 경영학 학사 학위를 수여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린재경대학과 호주 찰스스터트대학이 서명한 4+0 모델에 대한 협약서의 내용은 모두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음. - 합작에 관한 학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8가지 항목: 학생 모집, 교육과정 편성, 과제와 시험 등 수업 진행에 대한 내용, 교원 선발, 찰스스터트대학의 편입과 대학원 입학,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학위 수여 등에 관한 내용임. ○ 학위 과정은 금융학 전공, 회계학 전공, 전자 상거래 전공으로 모두 4년제 본과 과정임. - 1, 2학년 교육 과정은 주로 지린재경대학에서 선발된 중국인 교수가 일반 기초 과목과 전공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강의함. - 3, 4학년 과정은 호주 찰스스터트대학에서 파견된 교수가 호주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함. - 과제와 시험 등 모든 것은 영어를 사용함. ○ 호주 찰스스터트대학이 전공 8개의 과목을 맡고, 중국 지린재경대학은 전공 과목과 공통 기초 과목으로 구성된 16개 과목 수업을 담당함. ○ 호주 찰스스터트대학교에서는 수업 과목, 수업계획에 대한 지침 그리고 영문판 교과서를 제공하고 지린재경대학은 이를 편성해서 실시함.

*자료: 구자익 외(2013), 합작대학 설립방안. 재구성.

마) 대학내 프로그램 설립사례: 북경대학-호주 라트로브대학 합작 위생사업관리석사 (MHA) 프로그램

설립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보건사업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호주의 선진적인 의료관리방식을 도입하여 글로벌 의료시장의 경쟁에 적응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북경대학은 국가의 의료 및 보건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분야의 고급관리자를 양성하고자 2000년 호주 라트로브대학과 합작하여 위생사업 관리석사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음(2010년 종료).
법인 및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교에 등록금을 각각 납부하고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함.
학위인증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대학은 이수 증명서 발급, 라트로브대학은 위생관리 석사학위 수여.
교육과정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과정의 석사학위 프로그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연수기관의 주요 교육과정: 위생조직기구의 발전, 위생인력 자원관리, 위생서비스 자원관리, 위생 정보관리와 결정, 위생정책학 등. - 호주에서의 교육과정: 위생서비스 자원관리, 위생정보와 관리시스템, 위생 서비스 질 관리, 실천과 프로젝트, 공공위생 원리와 실천, 위생체제 비교와 역사연구, 위생관리의 전략과 운영에 관한 7개 과목. ○ 수업은 중국과 호주에서 각각 중국어와 영어로 진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에서의 수업은 중국어로 동시통역됨. ○ 이론과 실천을 접목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과정은 재직 상태에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대학의 1년 과정 후, 라트로브대학에서 수업이 시작됨, - 라트로브대학 수업 단계는 3단계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멜버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3개월 간의 강화학습 과정 · 2단계: 중국으로 돌아와 각 기관에서 6개월 간 실습을 함. · 3단계: 학생들은 다시 멜버른캠퍼스로 돌아가 2주에 걸쳐 그동안 배운 내용을 마무리 및 학위 수여. ○ 호주 라트로브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 프로그램 제공, 호주의 병원, 위생서비스 및 관리 기구를 방문, 호주의 의료관리기술을 참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대학에서도 국내 위생분야의 고급 관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자료: 구자익 외(2013), 합작대학 설립방안. 재구성.

3) 성과

□ 외국 고등교육 기관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낙후된 학문분야 개선

- 중외합작프로그램을 통해 선진화된 교육이념, 교육내용 및 방법과 경영방식 등의

도입으로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학과 계획, 전공 설치 및 교재, 교학방식 등을 도입하고 있음.

- 지린재경대학이 호주의 찰스스터트대학과 합작한 이후 합작 학교의 외국인 교수와 함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영어 능력 면의 뛰어난 향상.
- 외국의 선진 학과와의 합작을 통해 중국에서 비교적 낙후되어 있던 학문분야를 개선키릴 수 있었음.
 - 베이징대학과 라트로브대학의 위생관리석사 프로그램은 중국의 관리현실을 기반으로 외국의 관리이념을 중국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의료분야의 고위 관리자 배출.

□ 교수역량의 증진

- 외국 우수 교수의 유입을 통해 중국내 교수들에게 해외 합작대학에서 연수, 공동연구,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면서 국내·외 교수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교수역량을 증진시켰음.
 - NYU SHANGHAI의 경우,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AAAS) 회원 7명, 미국과학학술원(NAS) 회원 2명, 구겐하임 펠로우십 수상자 4명,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회원 3명, 미국물리학회 회원 2명, 미국수학학회 회원 1명 등을 교수로 확보함.

□ 중국 대학의 지명도 향상

- 중국 및 국제무대에서의 중국대학 지명도를 높이고 취업률도 향상됨.
 - NYU SHANGHAI의 경우, 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전 세계에 있는 뉴욕대학의 교우 자원, 취직/인턴십 도움 센터, 세계 500대 회사 및 NGO단체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실습기회와 지역사회서비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

□ 해외 교육기관과의 장기적이고 신뢰성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

- 해외의 선진 교육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임.
 - 지린재경대학은 찰스스터트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국제교류학원을 세우고 교수진 및 교수자료를 교환하며 학생들을 가르침.

다. 과제 및 시사점

1) 과제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의 과제²⁵⁾

-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다양화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지역은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중국 동부지역 대도시의 일부 명문대에 편중되어 있음.
-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분야가 인문사회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전공분야의 편향적인 분포상태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의 최고 명문대학과의 합작부진

-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등의 세계적 명문대학들은 재정적인 지원 및 정책지원에 무심한 편임.
 - 세계적 명문대학들은 학교의 재정이 건실해 분교를 통한 별도의 수익창출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합작대학의 운영결과가 부진할 시 오히려 대학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외국대학 유학비용에 대한 부담

- 합작대학의 경우, 해외로 유학하기가 용이하지만 외국대학 유학비용이 중국대학에 비해 높아 국부 유출 및 재정적인 부담이 큼.

□ 문화적 충돌의 우려

- 합작대학의 경우, 두 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언제나 존재함.
 - 지린재경대학의 경우, 호주 찰스스터트대학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 전원이 불합격하는 불상사가 발생해 문화적 갈등이 야기되었음.

2) 시사점

□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대학 국제화 정책제시 및 관리·감독 체제 구축

25) 구자익 외(2014), 중국 외국인유학생 유치정책.

- 2000년 전후의 중국정부의 국제화 관련정책의 변화를 볼 때, 중국정부는 끊임없이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법령을 수정하였음.
 - 대학에 앞서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은 다양한 장점이 있음(인재양성, 친 중국 인맥 형성, 교육을 통한 수익창출, 교육의 질적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등임).
 - 중국의 사례에서 관리·감독 체제 구축은 거시적인 사업 운영 및 미시적인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임.
- 관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 관리-지원 네트워크'는 해외인재와 국내의 유치 기관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문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 체계를 말함.
 - 안내 수준의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맞춤형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황 유치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며, 사업 관계자들이 기타 사례를 안내하는 등의 활동은 유치 주체와 해외인재 양쪽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임.

□ 정부, 지자체, 대학, 산업체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클러스터) 구축을 중시함.
 - 대학 국제화의 목적 중 중핵적인 부분은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확보임.
 - 산학연 클러스터의 핵심은 '정부-지자체-각 기관'이 모두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데 있음.
 - 중국은 산업체 측에서 학생들에게 연구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회사와 연관된 특정전공과목 개설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함.
- 대학과 연구소 네트워크 활성화
 - 외국의 사례에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URIs,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함.
 - 중국의 경우 대학이 기업을 직접 소유 및 경영함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었음.
 - 중국 엘리트 대학의 경우 수백 개의 기업을 소유하기도 함(Lenovo, Tongfang, Founder 기업의 경우도 URI에서 출발한 사례임).

□ 대학 국제화를 위한 부처별, 지역별, 기관별 유연한 접근방식

- 다양한 분야의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다자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즉 정부, 지자체, 대사관, 각 연구기관, 개별 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

-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처별, 지역별, 기관별로 유연하게 대처
 - 중국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처별, 지역별, 기관별로 유연하게 대처했음 .
 -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계획의 각 원칙과 법, 제도의 해석에 대해, 지자체는 지역의 현실에 맞춰 적용하고, 현장의 각 기관은 유연하게 적용했다는 점은 위협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임.

□ 지원정책 강화 및 규제완화

-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정부의 대학 국제화 정책은 크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유치 저해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규제를 완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합작대학을 허용 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특성화 추진

- 단과대학(특성화 전략)의 지역특화, 지역산업 육성 특성화와 전공영역별 육성이 필요함.
-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성화를 추구한 사례는 성공 확률이 높았으나 다목적화를 추구한 사례는 실패한 경우가 많았음.
 - 중국의 사례에서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명분 위주의 전략 보다는 실익을 거둘 수 있는 효율화 전략을 표방했음.
- 국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나 학문, 전공영역을 제시하여 그 분야의 우수한 대학 및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유치.
- 수요 조사에 근거한 유치전략 마련
 - 이 과정에서 유치분야 기관 및 인재들의 수요 및 성향은 물론, 국가 및 사업별, 시기 및 분야별 현황을 수집할 수 있을 것임.

□ 대학 자생력 강화 및 대학 국제표준화 노력

- 외국대학 유치의 실패 이유 중 한 가지는 자생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치되었기 때문임.
 - 자생력을 갖춘 대학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유치되어 적극적이지만, 목적의식 없이 유치되어 경력만을 쌓으려는 대학은 자생하기 어려움.
- 글로벌 캠퍼스에 유치된 대학들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국제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세계대학 순위에서 가장 부족한 부문은 대학 국제화 지수임.
- 국제화 지수에는 학생 대 교수비율, 외국인 교수비율, 외국인 학위과정 학생비율, 외국인 학생 교환방문 비율, 영어강좌 비율, 해외등재 논문 수, SCI급 논문 수 등이 포함됨.
- 대학의 국제화 전략 및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질적 관리를 위한 질적 지표 평가방법은 한국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음.
-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평가를 위해서 학위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제적 인증을 위해서 외부 심사진(external examiners)에 의한 평가방법 시행.
 - 대학 연구역량의 강화 및 국제흐름을 알기 위하여 국제자문진(international academic advisory panels) 구성.

□ 유연한 합작대학 유형 설립 및 질 관리 강화

- 중국은 외국대학과의 독립법인 설립, 단과대학 설립, 프로그램 설립의 유연한 합작대학 모형을 보여줌.
 - 대학과 대학 간 독립법인 설립사례: NYU SHANGHAI와 Ningbo 노팅엄대
 - 대학 내 단과대학 설립사례: 지린재경대 국제교류학원
 - 대학 내 프로그램 설립사례: 북경대와 호주 라트로브대
- 중국은 합작대학 승인 및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령 및 시스템을 갖추어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음.
 - 중국 정부는 합작대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가변적으로 요구함(재정, 운영방식, 성과 및 프로그램 등).
 - 합작대학의 심사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

□ 합작대학 간의 분명한 역할분담 및 중국 현지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향상

- 합작대학은 단순한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닌, 중국 고등교육의 궁극적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질 향상임.
 - 합작대학의 목적과 운영방식을 보면 외국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 및 교수진의 국내유입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음.
 - 중국교수와 외국대학 교수간의 교류를 통해 중국 현지화 된 공동교육과정을 설계하려 함.
- 학사관리 및 행정은 주로 중국 측이 담당하고, 교육과정 지원은 주로 외국대학이 담당함.

- 중국대학: 교육행정, 학사, 시설 등을 담당
- 외국대학: 교육과정, 교육계획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 교육과정은 외국대학의 선진교육과정을 적용하지만, 중국대학 실정에 맞는 현지화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구조의 체계화 및 다양한 장학금 지급

- 중국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를 위해 체계화된 시스템을 마련함.
- 중국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외사관리기구를 두고, 그 아래에 국제교류부, 유학생부, 출국관리부, 대외한어교학부 등을 갖추고 있음.
- 중국은 학생의 유형(학부, 석사, 박사) 유형 및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장성장학금, 우수유학생장학금, HSK 장학금, 외국인 중국어 교사단기연수 프로젝트, 중국문화연구프로젝트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실시

- 외국대학의 진출에 대해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는 반대하는 입장임.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노력을 기울임.
 - 중국의 경우 외국대학유치정책은 교육기회균등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정책임. 이러한 사회적 명분과 정책의 유용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외국대학유치로 인한 문제와 충돌을 최소화.
- 글로벌 캠퍼스 설립의 목적을 외국유학생 유치에 비중을 두고, 국내외 홍보 강화.

IV. 국내 해외 대학 유치 현황 분석

1. 국내 해외 대학 유치관련 법 및 제도

가. 현행 국내 해외 대학 유치관련 법 및 제도의 현황

- 해외 대학 유치와 관련한 법 및 제도의 현황은 해외 대학 유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4개의 특별법을 살펴봄으로써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취지와 주요 내용, 해외 대학 유치를 위한 특례 등을 파악할 수 있음.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법률의 취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함.
-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의료인 등의 양성에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본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음.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해외 대학 유치와 관련한 특례

- 『고등교육법』 적용 배제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사립학교법』 적용 배제
 -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본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다른 법률에 대해 우선 적용
 -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법률의 취지

-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구역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그 주변지역이 날로 슬럼화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공여지 반환, 병력 이동)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자영업 도산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공동체

붕괴를 가져와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해 간접비용을 부담해 온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음.
-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음.

□ 해외 대학 유치와 관련한 특례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 교육문화관광 시설, 농림해양수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공공시설 등을 귀속·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의 취지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화계획지구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화계획지구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음.

□ 해외 대학 유치와 관련한 특례

- 국제화계획지구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외국학교법인이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사립학교법』 적용 배제
 -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화계획지구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현행 국내 해외 대학 유치관련 법 및 제도의 문제점

1) 해외 대학 설립 주체의 규제

- 현행법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국 등 중화권에서 유행하는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의 합작학교법인’의 진출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 승인일로부터 3주 내에 민법상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이 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은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분사무소를 두는 형식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당해 국가 내에 있는 교육기관의 분교형태로 대한민국 내에 설치·운영하던지, 아니면 당해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또 다른 교육기관 즉 분교형태로 대한민국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인정하되, 대한민국 내에 비영리법인 형태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등기하거나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합작형태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비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인정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의 경우 내국법 인과의 합작형태의 설립이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²⁶⁾.

2) 과실송금의 규제

-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발생된 이익금은 청산절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송금이 불가능.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해외대학들이 분교를 설치해 벌어들인 수입의 본국송환이 금지되어 외국대학의 분교설치 유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 인천·부산 등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 유명대학의 경우 대부분 과실송금 불가 규정으로 분교설치를 포기한 바 있음. 분교를 세워도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과실송금을 이유로 대학의 분교 유치가 무산되는데,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경우 2006년 제주도에 분교를 추진하였으나 과실송금 불가 문제로 분교 설치계획을 철회한 바 있음.

26)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 설립조례를 제정하여 설립활동을 지원함.

3) 법 목적의 소극성, 제한성

-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적인 조문의 내용은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및 “아시아 지역의 교육·연구 중심지로 발전” 등 당해 목적에서 확대된 내용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의 목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다. 현행 국내 해외 대학 유치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1) 합작대학 설립 허용 및 세부 실현방안

□ 기본방향

- 합작대학 설립의 목적은 세계수준대학 및 외국의 선진 교육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한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창조경제 인재육성 및 유학수지개선에 둠.
 - 합작대학은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 교육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 하도록 함.
 - 합작대학은 선진화된 교육내용과 시스템을 통해 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음.
 - 세계수준의 합작대학 유치를 통해 국내 인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유학생 유치를 통해 국내유학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합작대학 모형은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의 합작학교법인에 의한 합작대학설립(독립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합작대학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합작투자로 특정대학의 특정단과대학(대학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도 검토하도록 함.
 - 외국의 사례에서의 합작대학의 형태는 독립법인설립, 대학 내 단과대학 설립, 대학 내 프로그램 설립의 3가지 형태가 있음.
 - 그 중에서 합작대학 남용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독립법인 설립에 의한 합작대학 설립이 바람직함. 다만, 외국대학들은 소규모의 교수인력 및 자금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단과대학 형태의 합작대학 설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대학과 대학 간 독립법인 설립
 - NYU SHANGHAI(중국)
 - 서안교통리버풀대학교(중국)
 - 닝보노팅엄대학교(중국)
- 대학 내 단과대학 설립
 - 예일-NUS 교양대학(싱가포르)
 - 지린재경대학교 국제교류학원(중국)
- 대학 내 프로그램 설립
 - Duke-NUS의 의학전문대학원(싱가포르)
 - 북경대학교 호주 라트로브대학과의 대학 내 프로그램(중국)

- 학부뿐만이 아닌 대학원 형태의 소규모 프로그램 형태도 적극 권장함.
 - 소규모 특화대학원 합작형태 고려.
 - 국내의 뒤쳐진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원 과정을 합작하도록 권장함.

- 싱가포르의 합작프로그램은 주로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중점을 두며, ‘학부과정’을 주로 운영하는 싱가포르 대학들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함.

- 합작대학의 학생모집은 한국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 한국학생과 외국학생비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
 - 합작대학 학생모집은 국내학생과 외국학생의 비율을 6:4로 정함.
 - 합작대학의 학생은 독립법인의 경우, 인가받은 정원으로 함. 비독립법인(즉, 단과대학형태)의 경우, 인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전체 대학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정원 외).
 - 단, 비독립법인 합작대학 인원은 전체 대학정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함.
- 합작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위 등의 운영에 관한 사안들은 기본적으로 연계대학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함.
 - 학제 및 교육과정 구성은 각 합작대학 합의에 따라 결정됨.
 - 연계대학들의 합의에 따라 공동학위 및 국내/국외 학위를 수여함.
 - 합작대학은 전형 및 학생모집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부여함.
 - 연계대학들의 협약 및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형 및 학생모집 허용함.
 - 합작대학의 재정운영 및 등록금은 연계대학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함.
 - 원활한 학생유치를 위하여, 합작대학의 등록금은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비교하여 너무 높지 않도록 권고함.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합작대학등록금산정위원회 설치, 운영.

- 각 합작모형 별로 역할관계를 명확하게 함.
 - 국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인의 경우 이사장은 한국 측이 맡도록 하고, 단과대학(프로그램)의 경우 양국 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이때도 위원장은 한국 측이 맡도록 함.
 - 학교운영(재정, 인사, 학사, 기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양교가 합의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도록 함.

[중국사례]

- 지식재산권의 범위 : 투자액의 3/1 초과금지.
- 법인자격 구비 합작대학은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자국구성원이 최소 50%가 되도록 함.
- 법인이 아닌 합작대학은 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경우도 자국구성원이 최소 50%가 되도록 함.
- 합작대학의 장은 자국국적을 가지도록 규정.
- 합작대학의 교수가 담당하는 전공핵심교육과정의 과목수와 수업시수는 프로그램 전 교육과정의과 전 수업시수의 3/1이 이상이어야 함.

- 재원확보계획명시
 -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 역할구분 및 다양한 재원확보 계획수립
 - 재정관리 주체의 명확화: 누가 어떻게 얼마나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
- 합작대학 유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나 학문, 전공을 중심으로 유치함.
 - 명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수요에 기초한 합작대학 설립 및 허가
 - 싱가포르의 외국대학은 과학기술, 사업·경영 및 법, 미디어, 호텔경영의 4개 학문분야로 주로 나뉨
 - 중국의 경우도 합작학교운영조례에 이에 대한 사항 명기
 -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합작대학 설립의 균형을 유지해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수도권대 대 지방대학의 합작대학 승인비율을 4:6으로 함.
 - 비수도권대학에서 선진적 합작요청이 있을 경우, 수도권대학보다 우선권을 두도록 함.
 - 합작대학은 무조건 외국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합작대학이 설립되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갖도록 함.

○ 정부, 지자체, 산업체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합작대학 설립·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함.

- 지자체의 지원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 지자체, 산업체, 합작대학 연계망 구축
- 단과대학(특성화 전략): 지역특화, 지역산업 육성 특성화과 전공영역별 육성이 필요함.
- 지역 사업체, 산업 클러스터 및 지역 연구소와의 연계를 장려함
- 부처 간 연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합작대학 설립 시 산업체, 연구소와의 클러스터 장려

- 중국의 사례에서는 지자체가 자금지원, 학교부지 무상 지원, 설립준비 전담팀 구성 등의 역할을 함.

- 중국의 Ningbo 노팅엄 대학에서는 완리그룹의 자회사와 연관된 전공과목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함.

- 말레이시아에서 외국대학과의 파트너십을 성사시킨 국내 파트너들은 대부분 대기업이었음.

○ 합작대학 설립,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 합작대학의 심사 및 절차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심사, 관리 기구를 설치함
- 외국의 합작대학 및 합작프로그램 설립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합작대학 허가 및 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합작대학을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합작대학 설립을 허가하는 국가차원의 심사, 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합작대학 설립부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질 관리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
- 합작대학 설립의 심사방법과 절차를 이원화하여 1단계 예비심사, 2단계 본 심사를 거치도록 함.
- 1단계심사는 서류심사단계로서 합작신청대학의 자격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1단계심사에 합격한 법인에 대해서만 2단계심사에 참가 가능하도록 함. 2단계 심사에서는 현장방문 심사 등 허가를 위한 실질적인 심사 실시.

○ 대국민홍보 강화를 통해 합작대학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외국대학에 대한 반발심리, 국익에 위배된다고 보는 입장, 유지 가능성이 큰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의 갈등, 합작대학 허용이 소수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게 불리하다는 인식 등 존재.
- 합작대학에 대한 반발심리 해소를 위하여, 고등교육 시스템의 다양화와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작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함.

- 경쟁력과 사회적 기여가 부족한 대학의 현실을 인지하고 외국대학의 선진적인 교육 사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
- 한국과 유사한 모형의 유치사업이 성공한 사례를 수집하고, SWOT분석 등을 하여 정부, 지자체, 개별대학, NGO등이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외국대학유치에 가장 민감한 기관은 대학임. 공감대형성을 위해서는 예측되는 국내대학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내대학에도 혜택이 된다는 인식 홍보.

라. 합작 대학 설립을 위한 현행 국내 해외 대학 유치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

1) 합작대학의 유형 1

가) 유형

-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의 합작학교법인에 의한 합작대학 설립(법인형태)

나) 설립방안

□ 법인의 구성 및 역할 분담

- 독립법인의 구성 비율은 1:1 동수로 하되 이사회 구성인원은 쌍방 합의에 의해 정함. 단, 이사장은 자국 측(한국)에서 맡음.
 - 법인자격 구비 합작대학은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자국구성원이 최소 50%가 되도록 함.
 - 합작대학의 장은 자국국적을 가지도록 규정.
 - 정기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함.
- 자국대학은 주로 학사관리를 담당하고, 외국대학은 프로그램을 주로 담당하는 이원화 역할체제를 유지함.
 - 자국대학은 주로 교무관리, 학사관리, 행정업무를 담당함.
 - 외국대학은 행정업무 보다는 교수지원,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 중심으로 합작대학을 지원함.
 - 교육과정은 합작사례별로 공동교육과정 혹은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범위설정 필요함)

중국은 외국대학의 프로그램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인정범위를 총 투자액의 1/3한도에서 인정함.

- 외국대학이 설립자금을 투자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학제 및 교육과정 운영

- 학제 및 교육과정 구성은 각 합작대학 합의에 따라 결정됨.
- 연계대학들의 합의에 따라 「2+2 과정」, 「3+1 과정」, 「4+0 과정」 등을 운영하며, 취득학점은 상호 교류 및 인정체제로 하며, 공동학위 및 국내/국외 학위를 수여함.
- 대학원 과정의 경우 석사, 박사, 석박연계과정 운영.
- 양교 합의하에 국내학위 혹은 국외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 「2+2 과정」의 경우
 - 1, 2학년 교육과정은 기초 공통 및 전공과목을 주로 자국대학 교수가 영어와 한국어로 강의함.
 - 3, 4학년 과정은 외국대학 교수가 전공과목을 영어로 강의함.
 - * 과제와 시험 등 모든 것은 영어를 사용함.
- 재학기간 중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실습 프로그램에 참여 권장.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은 원칙적으로 합작대학이 공동 개발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함. 단, 양국대학이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 국내 대학들은 외국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문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외국대학 유치 전략 수립 필요.
 - 외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홍보 전략이 요구됨.

□ 전형 및 학생모집

- 합작대학은 전형 및 학생모집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부여함.
- 연계대학들의 협약 및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형 및 학생모집 허용함.
- 우수 유학생 선발을 위해 각 대학의 어학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입학기준 설정 및 서류·면접 등 엄격한 입학전형으로 질 관리 유도.
 - * 합작대학 관련 유학생 가이드라인(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업무처리규정) 개정 등.

- 내국인 전형 방식: 수능+내신, 수학능력(외국어능력 포함), 면접(인적성검사) 등.
- 외국인 전형 방식: 해당 외국대학 선발 기준에 근거함.

중국의 상해뉴욕대학은 뉴욕대학의 기준으로 국제학생을 선발하고, 중국학생은 중국 대입필기시험, 고등학교 졸업성적, 학교면접, 종합인성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함.

- 법인으로 설립된 합작대학의 학생정원은 인가받은 인원으로 함.
- 합작대학의 학생모집은 국내학생과 외국학생의 비율을 6:4로 정함.

□ 재정운영(등록금)

- 외국대학이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제공시 지식재산권이 50%를 넘지 않도록 함.
 -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투자액의 1/3 초과를 금지하도록 함.
- 합작대학의 재정운영 및 등록금은 연계대학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함.
 - 원활한 학생유치를 위하여, 합작대학의 등록금은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비교하여 너무 높지 않도록 권고함.

중국의 닝보노팅업대학은 영국노팅업대학보다 1/4 저렴한 등록금(6만 위안)을 냄.

□ 학사운영

- 학교운영(재정, 인사, 학사, 기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양 교가 합의하여 운영하도록 함.
- 교수와 학생 비율, 지원 인력 확보율은 국내외 대학 기준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 학점 교류 가능, 공동 학위 부여
 - 외국어로 강의, 다양한 수업 모델 및 최신 수업기법 적용
 - 국내외 학생이 국내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경우: 외국인 교수 파견 또는 일정부분 지원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 외국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경우: 국내 교수 파견 또는 일정 부분 지원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다) 성공을 위한 전제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과 합작대학설립에 필요한 평가 기준 마련

- 독립 법인 구성을 위한 양국 대학의 법인설립 추진위원회 설치하여 법인의 구성 비율, 참여 인원, 이사장 선임, 회의 등 구체적 계획안 설정 필요.
- 한국대학 내 단과대학 혹은 대학원 설립 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 합작대학 설립 및 허가 등 각종 내용을 규정하는 매뉴얼 제작

- 학사관리와 프로그램 관리의 이원화체제에 따른 양국의 담당 실무진 구성하여 관련 업무의 명료화 및 지적 재산권의 설정 범위를 논의함.
- 학제와 교육과정 운영, 공동교육과정 개발, 학위취득 방식, 학술대회 및 실습참여에 대한 양국의 공동 협약과 주기적 실태 점검이 요구됨.

□ 합작대학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검토

- 우수대학(상위 100위 대학) 유치
- 목표의 명확한 규정 : 유학생 유치, 선진학문 도입 등
- 학생유치전략
- 재정확보전략
- 등록금 책정수준 검토
- 외국대학에 대한 유인책 마련
- 지식재산권의 범위의 규정화 및 명문화
-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
- 역할분담

□ 대학, 지자체, 기업의 컨소시엄 및 협력관계 구축

- 특정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과 연계
- 지역에서 필요한 학문이나 기술 분야 연계유치
- 대학·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활동을 지원함

- 유학생은 유학생·기업 간 구인·구직 정보제공 기회 확대를 통해 유학생-기업 Match-Making을 지원

□ 대학홍보전략 마련

- 학생모집 및 입시 전형의 홍보 및 사전 설명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우수학생 유치에 주안점을 둬.

□ 대학설립심사의 체계화 : 1, 2단계 심사

- 1단계심사에서는 합작법인의 요건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합작법인에 대해서만 2단계 심사를 거쳐 설립허가
- 비법인으로 대학 내에 단과대학 혹은 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는 합작법인에 의한 대학설립과는 차이를 두어 심사하는 방안 검토

2) 합작대학의 유형 2

가) 유형

-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합작투자로 특정대학의 특정단과대학(대학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형태

나) 설립방안

□ 운영기구 설치 및 역할분담

- 합작대학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구성 비율은 1:1 동수로 하되 이사회 구성인원은 쌍방 합의에 의해 정함. 단, 위원장은 자국 측(한국)에서 맡음.
- 법인이 아닌 합작대학은 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경우도 자국구성원이 최소 50%가 되도록 함.

싱가포르의 예일-NUS의 운영위원회는 예일대와 NUS가 각각 절반씩 임명함. 학장은 예일대 출신이고 부학장은 NUS 출신임.

□ 학제 및 교육과정 운영

- 학제 및 교육과정 구성은 각 합작대학 합의에 따라 결정됨.
 - 연계대학들의 합의에 따라 2+2 과정, 「3+1 과정」, 「4+0 과정」등을 운영하며, 취득학점은 상호 교류 및 인정체제로 하며, 공동학위 및 국내/국외 학위를 수여함.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은 원칙적으로 합작대학이 공동 개발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함. 단, 양국대학이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 국내 대학들은 외국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문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외국대학 유치 전략 수립 필요.
 - 외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홍보 전략이 요구됨.

□ 전형 및 학생모집

- 단과대학(프로그램)의 전형 및 학생모집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부여함.
- 연계대학들의 협약 및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형 및 학생모집 허용함.
- 우수 유학생 선발을 위해 각 대학의 어학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입학기준 설정 및 서류·면접 등 엄격한 입학전형으로 질 관리 유도.
- * 합작대학 관련 유학생 가이드라인(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업무처리규정) 개정 등.
 - 내국인 전형 방식: 수능+내신, 수학능력(외국어능력 포함), 면접(인적성검사) 등.
 - 외국인 전형 방식: 해당 외국대학 선발 기준에 근거함.

싱가포르의 Duke-NUS는 의과대학 입학시험 결과 외에도 학업성취도, 봉사활동, 지역 체험활동, 연구경험, 사회적 성숙도 등을 통하여 선발함.

- 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설립되는 합작대학은 인가받은 인원으로 하되, 정원 외로 함. 또한, 총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초기단계의 정원 외 관리 확대는 우수인재의 합작대학 유출에 따른 국내대학의 부실화를 초래할 여지가 다소 있기에 10%로 제한함.
 - 합작대학 내 등록에 따른 국내학생의 외국대학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외화유출 방지).
 - 주요 선진국의 우수인재를 합작대학에 유치하여 국내대학과의 학문 교류 및 연구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치 다변화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합작대학의 학생모집은 국내학생과 외국학생의 비율을 6:4로 정함.

□ 재정운영(등록금)

- 합작대학의 재정운영 및 등록금은 연계대학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함.
- 원활한 학생유치를 위하여, 합작대학의 등록금은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비교하여 너무 높지 않도록 권고함.

□ 학사운영

- 학교운영(재정, 인사, 학사, 기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양교가 합의하여 운영하도록 함.
- 교수와 학생 비율, 지원 인력 확보율은 국내외 대학 기준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 학점 교류 가능, 공동 학위 부여.
 - 외국어로 강의, 다양한 수업 모델 및 최신 수업기법 적용.
 - 국내외 학생이 국내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경우: 외국인 교수 파견 또는 일정부분 지원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 외국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경우: 국내 교수 파견 또는 일정 부분 지원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다) 성공을 위한 전제 여건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 및 합작대학설립에 필요한 심사 기준 마련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합작투자로 특정대학의 특정단과대학(대학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조항 삽입, 필요시 시행령에 합작대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비율, 이사장 선임, 회의 등 구체적인 방향 제시 필요.
- 특정 대학 내 단과대학 혹은 대학원 설립 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 특정 대학 내에 단과대학(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과는 다른 합작대학 설립 및 허가 등 각종 내용을 규정하는 매뉴얼 제작 필요

- 학사관리와 프로그램 관리의 이원화체제에 따른 양국의 담당 실무진 구성하여 관련 업무의 명료화 및 지적 재산권의 설정 범위 필요.

- 학제와 교육과정 운영, 공동교육과정 개발, 학위취득 방식, 학술대회 및 실습참여에 대한 양국의 공동 협약과 주기적 실태 점검이 요구됨.

□ 특정 대학 내에 단과대학(대학원)을 설치하는 형태의 합작대학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검토

- 대학 내 별도의 학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혼란가능성 최소화
- 우수프로그램 유치
- 목표의 명확한 규정 : 유학생 유치, 선진학문 도입 등
- 학생유치전략
- 재정확보전략 및 등록금 책정수준의 적정화 필요
- 지적재산권의 범위의 규정화 및 명문화
-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

□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등록금의 적정화 수준 유지와 투자액 대비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규정으로 명시함

- 초기단계에서는 단과대 형태의 합작대학 설립에 관한 인력, 시설, 재원 등의 최소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충족 여부에 따라 인가를 결정하고 추후 평가를 통한 재지정 과정이 필요함.

2)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규제의 완화

가) 조건부 허용 필요

-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되,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외국교육기관의 자금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규제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을 억제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
 - 부적절한 송금을 제한하기 위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 첨부 필요.

※ 외국의 예

<표 4-1> 중화권 대학의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상황

국가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여부
홍콩	해외전출 불가
싱가포르	제한 없음
중국	외화관리규정에 따라 해외송금 인정

나) 외국환관리규정과 조화 필요

-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원인거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하여만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있고, 영리법인의 경우 결산상 순이익에 대하여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의 경우 원인거래가 있는 대가 지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기자재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 또는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학교 운영상 해외송금의 필요는 인적·물적 거래에 의한 원인거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이러한 경우 해외송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 외환관리규정으로도 가능하고, 이러한 거래에 의한 송금 외에 결산상 잉여금의 송금을 허용하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타 지역의 외국대학 유치 및 진출 현황

가. 국내 외국대학 유치 현황

1) 국내에 유치된 외국대학

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유치된 외국대학

- 외국대학의 선정조건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도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 공고(산업부 공고 제2009-33호)」에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대학의 우수성, 개설 프로그램의 명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학생수, 교수 대 학생비율, 교수진 모집방법, 졸업학위, 학생교류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여기서 가장 중시되는 대학의 우수성에는 1순위로 세계 수준의 지명도 100위권에 들어가면서 전공영역별 100위 이내에 포함되고, 한국인 선호도 100위권에 속하는 대학이고, 2순위는, 세계수준의 지명도 10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이면서 전공영역별 세계 100위권에 포함되는 외국대학임. 3순위는 앞의 3개 선정기준 중 한 군데 이상 해당 되는 외국대학임(인천발전연구원, 2009).
- 2015년 12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12.3), 조지메이슨대(' 14.3),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 11.3), 유타대·켄트대(' 14.9 개교) 등 5개 외국대학이 국내에 유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를 제외한 4개 대학이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음.

나) 유치협상 과정에 있는 대학

- 현재 글로벌 수준의 분야별로 특화된 우수 외국대학 3개교(뉴욕 FIT/패션, 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 상트페테르부르크컨소바토리/음악) 유치를 추진 중이며, 향후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의 차등 폭을 확대하는 등 세계 수준급 특화대학이 국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다) 유치에 실패한 외국대학 사례

□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 제주 분교(2009년)

- 영리법인 학교설립에 대한 핀란드와 우리나라 법제도상의 차이로 협상 중단.

□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제주 분교(2006년)

- 대학입학을 위한 '예비학부 어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제주 분교 유치를 추진했으나, 과실송금 불가의 이유로 대학 측에서 적극 나서지 않아 계획 무산.

□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제주 분교(2004~2007년)

- 조지워싱턴 대학 측이 부지 무상임대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학교건물 설립까지 요구하자,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유치 포기.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와 델라웨어대

- MOU와 최종설립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0%정도 감소한 주립대 예산 등을 이유로 개교를 무기한 연기 또는 폐교를 결정.

<표 4-2> 정부의 외국대학 유치 계획안

대학	학과(전공)	전체 학생수	추진경과	
뉴욕주립대 스톤브룩(미)	컴퓨터과학, 기술, 사회 대학원(석박사) 과정	407명	MOU 체결 (2007.12) 설립협약체결 (2008.12)	2012.2 개교 예정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미)	유전학, 생물정보학, 생명공학 등 학부과정	3,000명	MOU 체결 (2007.10) 설립협약체결 (2009.3)	2010. 9. 개교예정 이었으나 예산감소를 이유로 개교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
조지아공대(미)	석사 과정	1,000명	MOU 체결 (2009.8) 설립협약 진행	2013년 개교 예정
남가주대(미)	공학 관련 학부과정	2,000명	MOU 체결 (2009.2) 설립협약체결 (2010.2)	2012년 개교 예정
델라웨어대(미)	스포츠관리학, 경영학 등 학부과정	2,000명	MOU 체결 (2009.5) 설립협약체결 (2009.10)	2012년 개교예정 이었으나 현재 송도 입주 포기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공한 지원금 6억원 환수
조지메이슨대(미)	공공행정학, 경제학 학부과정	1,000명	MOU 체결 (2009.5) 설립협약체결 (2009.12)	2012.9 개교 예정
미주리대(미)	생명과학, 수의학 관련 학부과정	1,000명	MOU 체결 (2008.10) 설립협약 진행	2014년 개교 예정
유타대(미)	교육학 학부과정 및 석사과정, 연구 프로그램	-	MOU 체결 (2010.10)	2012.9. 개교 예정
일리노이대(미)	공과대학, 교육학, 도서관학 등 석사 과정	-	MOU 체결 (2011.6)	2013. 9. 개교 예정

대학	학과(전공)	전체 학생수	추진경과	
알프레드대(미)	공과대학, 세라믹예술대학, 세라믹 공학과 경영 MBA 프로그램	-	MOU 체결 (2011.6)	2013. 개교 예정
서리대(영)	관광학, 항공우주학	-	MOU 체결 (2010.1) 설립협약 진행	
겐트대(벨기에)	바이오, 환경, 식품 관련 학부과정과 석사과정	-	MOU 체결 (2011.3)	2013.9 개교 및 학부과정 개설 예정, 2017년 대학원 과정 개설 예정
상트페테르부르크대(러)	물리학, 동방학 등 학부과정, 포크(Fock) 연구소	-	기본협약 체결 (2011.3)	2014년 학부 및 대학원 설립 예정
모스크바대(러)	-	-	MOU 체결 (2011.3)	2014년 개교 예정

2) 국내 외국대학으로 구성된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 위치한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는 총 5,000억원이 투자되어 1단계가 건립되었으며 1, 2단계가 모두 완료 시 약 10개의 외국대학과 10,000명의 학생들의 규모가 됨. 외국대학들의 경쟁력 있는 학과의 집적을 통해 전체적으로 종합대학을 이루는 개념으로 우수 외국대학 유치로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동서양의 아이디어와 기술교환 및 융합, 동북아의 교육허브 및 아시아지역 교육 수요 흡수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4개의 대학이 성공적으로 유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표 4-3〉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

학 교 명	운영프로그램	개교시기
한국 뉴욕주립대 (SUNY Korea)	(학부, 대학원) 컴퓨터과학, 기술경영, 기계공학	‘12. 3 개교(대학원) ‘13. 3 개교(학부)
한국 조지메이슨대 (Mason Korea)	(학부) 경제학, 경영학, 국제학	‘14. 3 개교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Ghent University)	(학부) 바이오, 환경, 식품공학	‘14. 9 개교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University of Utah)	(학부) 심리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 (대학원) 공중보건	‘14. 9 개교

나. 국내 외국대학 유치 사례

1) 송도 글로벌 대학캠퍼스(Songdo Global University Campus; SGUC) 사업²⁷⁾

- 외국대학 유치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하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SGUC 사업은 송도를 동북아 교육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10여개의 명문 외국대학과 유수의 국내 대학 분교를 유치하여 약 12,000명 정도의 수용 가능한 국제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식기반 인프라와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산업부, 2009).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대학의 공동캠퍼스 건립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6,500억원이 지원되고, 2010년 9월에 1차 개교, 2012년 9월에 전면개교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임. 이를 위해 송도국제도시 5-7 공구 일원에 대지면적 158,700m² 제곱미터 연면적 392,300m² 에 지상 30층 규모의 글로벌 대학 캠퍼스가 조성되고, 이 캠퍼스에는 강의동, 도서관 등 학사운영을 위한 기본시설 및 지원센터, 학생회관, 문화시설, 교수회관, 체육관 등 공동시설과 학생기숙사, 교직원 숙소 등 편의시설이 배치될 예정임(이정권 외, 2009).

27) 2015년 12월 21일(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해외대학유치관련 현지 출장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술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 담당 조○○ 외 1인 심층면담.

□ 유치현황

- 현재 세계100위권 4개 대학을 유치했으며, 현재 세계5대 패션 스쿨중 하나인 뉴욕 패션기술대학교(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뉴욕주립대 소속) 유치 중에 있음.
 - 미국(3) :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 벨기에(1) : 겐트대

□ 지원 사항

- 글로벌캠퍼스 조성 1단계 완료에 5,700억원 투입(국비 23%, 시비 23%, SPC 54%) 및 학교운영비로 학교당 연간 20~25억원 지원 중.
 - 학교 자립을 위한 운영비 지원: 5년간 지원 후 자립여부 판단하여 추가 지원 검토 예정.

□ 본교투자 외국대학 본교의 재원 투자는 전무하며, 학사프로그램, 인력 등 교육 콘텐츠 분야만 투자

- 과실송금이 불가함에 따라 본교 차원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생구성

- 외국인 30%, 내국인 70%
 - 해외대학 유치 목적이 외국인의 정주(교육)환경 개선을 위함인데 오히려 내국인이 많은 상황으로 국회에서 문제 제기의 빌미가 되고 있음.

□ 학생선발

- 교육부 인가 정원의 70~80% 선발
 - 입학 경쟁률이 7~8:1 인데도 불구하고 인가 정원 모두 선발치 않고, 철저하게 학업수준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만 선발.

□ 학사관련

- 학위 및 졸업장은 본교와 차별 없이 동일하며, 2학년은 1년 동안 본교에서 학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적도 우수함.

□ 성과

- 뉴욕주립대(대학원 '12년 개교, 대학교 '13년 개교)가 안정화 되었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함에도 경쟁률이 높아 고무적임.

□ 문제점

- 1개 학교의 정상운영의 충족요건으로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800명 이상 되어야 하나, 학교의 철저한 선발기준 및 학령인구 감소로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대학 유치 시 학생 수급 경쟁관계에 따른 국내 대학 반발 우려.
 - 5년간 운영비 지원 이후에도 학교 정상운영이 어려울 경우 지속지원 검토 필요하며, 운영비 중단 시 학교의 폐교 문제 발생 여지 있음.

2)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유치 과정

□ MOU -2007.10.12 인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 체결

- 대학 산하 IT 연구소 (Center of Excellence in Wireless and Information Technology)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설립하여 한국의 대학교와 공동 연구 수행.
- 공동 박사 학위제와 박사 후 과정 운영
- IT, 화학, 생명공학, 경제학, 응용과학 분야 분교 설립(2010.9. 개교 예정/ 정원 2000명)

□ 최종계약 -2008.12.30. 인천자유구역청과 설립협약 체결

- 자금지원합의(FSA) 체결
- 2010.1. 산하 연구소 CEWIT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 분원 설립협약체결
- 2010.2.23. CEWIT 개원

□ 정부 인가 -2011.7.13. 교육부 SUNY 한국캠퍼스 설립 계획 최종 승인

- 2010.12.10. 교육부에 설립 승인 신청
- 2010.12 ~ 2011.4. 서류심사 진행
- 2011.5.19. 경자청 면담심사 및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현장 심사
- 2011.6.1~6.3 미국 본교 현장심사

- 2011.7.13.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및 교육부 장관 승인
- 2012.2.27 개교 확정
- 컴퓨터과학, 기술과학 분야 석·박사 과정
- 총 정원 407명(1학기 정원 110명, 교수진 7명)
- 교수진 2015년까지 20명 확보

3) 로테르담해운물류대학 유치 실패 사례²⁸⁾

□ 유치현황

- 세계적인 해운물류 전문 교육기관이며, 국내 최초 유치된 외국교육기관으로 '08. 3월 대학원 개교

□ 지원 사항

- 광양 월드마린센터 내 2개 층 무상 지원 및 운영비 보조 5년간 48억원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리모델링 비용은 본교에서 직접투자.

□ 학생선발 및 구성

- 대부분 외국인으로 국적 다양 (동남아, 남미, 아랍, 아프리카 등)
- 학생선발에서 교육부 인가 정원(30명) 모두 선발하지 않고, 철저하게 학업수준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만 선발하여 학생 수급이 원활치 않았음.

□ 학사운영 및 정주여건

- 대학원 1년 과정에 교수진 대부분 네덜란드 교수이며, 영어강의
- 강의실은 항만 내 월드마린센터이며, 광양시가지도 인접하여 교수진 등 정주여건은 괜찮은 편임.

28) 2015년 12월 22일(화) 광양시청 해외대학유치관련 현지 출장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술함. 광양시청 로테르담해운물류대학 유치 주관 담당 방○○ 팀장 면담.

□ 운영결과 및 시사점

- 학교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자 즉시 폐교 조치(2013년 12월 폐교)
 - 학교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른 운영수지 적자 우려로 즉시 폐교.

- 해외대학 단독유치 절대 불가 조언
 - 국내 학령인구 감소와 해외대학의 높은 선발기준으로 분교의 학생 수급은 지속 악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운영수지 적자는 불가피 함.
 - 보조금 지원 중단 시 운영수지 적자 문제로 100% 폐교 결정 될 것 임.
 - 송도 사례처럼 해외대학 유치 시 막대한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폐교 시 투자비 회수 리스크 발생.
 -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기한 없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며 또한, 특혜시비 등 국내대학 반발 예상 됨.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수많은 대학의 폐교가 예상되는 바, 외국대학 유치는 분교를 포함한 대학 간의 학생 수급 경쟁 심화로 국내대학 반발 심화 예상.

- 가능한 형태는 합작형태의 설립은 다소 수월 할 수도 있겠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급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됨.

다. 국내대학의 외국 진출 현황 및 사례

1)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현황

□ 현황분석

- 현재까지 정부 승인을 받은 해외 분교는 없음.
- 사립학교법 규정상 해외분교 설립 불가능
 - 2011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서 국내 대학이 해외 분교를 설립할 경우 '교지(부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내 대학 설립기준 적용에서 외국법령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고, 국내 대학의 교비는 국외 분교로 보낼 수 없는 조건을 적용함.

〈표 4-4〉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 현황(2015년 현재)

대학	진출국가	세부내용	비고
고려대	영국·중국·캐나다	현지 교류 대학 내 기숙사 건립·운영 중	
서울대	미국 LA	현지 법인 사무소 운영	
숭실대	베트남	IT캠퍼스 설립 추진 중	
연세대	미국 LA	LA연세 어학당 운영 중	
한국해양대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분교 설립 추진 중 해당국 정부와 양해각서 교환	
한양대	파키스탄	캠퍼스 설립 추진 중	
홍익대	미국 캘리포니아	캠퍼스(해외교육원) 설립 준비 중	
KAIST	미국 뉴욕	연구 캠퍼스 설립 추진 중	
동국대, 건국대	미국 LA	대학 재단이 별도의 현지 대학 운영 중	

*출처: Daily U's Line 2015.7.17. 일자 기사에서 발췌.

□ 현황분석

- 국내 주요 대학들은 각국에 분교 형태의 캠퍼스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려고 함
-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교육시장을 개척한다는 명분
- 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학위 장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대학들은 대체로 본교 재학생들의 늘어나는 유학·어학연수 수요를 자체 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국내 대학의 분교 형태의 공식적인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태광실업과 대경대학교가 연계한 국내 대학의 외국 진출

□ 진출현황

- 베트남 남부 푸꾸옥섬(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역)에 약 8만m² 규모의 학교 건설 중임.
- 강의실 도서관, 식당, 강당, 실제 호텔 객실과 레스토랑, 연회장, 웨딩숍과 똑같은 형태의 실습동 구축.

□ 운영사항

- 대경대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및 전반적인 학교운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운영지원
- 2017년 개교 예정

□ 지원규모 및 인력양성유형

- 태광실업의 1,000만 달러 지원
- 교명 ‘태광기술전문대학’으로 베트남 관광산업의 핵심인력 양성

라. 과제 및 시사점

1) 과제

- 현재의 규제 지향적 법령의 개정을 통해 외국 대학에 대한 학교 기반시설 투자 조건부 과실 송금 허용 검토 필요.
-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고등교육 수요층이 밀집한 접근성 있는 지역에 단독 설립 허용 검토 필요.
-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과 합작형태로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 및 운영 형태의 제한 해소 필요.
-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과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산학협력사업 및 각종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기 지원 필요.
- 교육부와 산업부 등으로 나누어진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를 일원화하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이중규제 제거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편의성 제고 필요.
- 외국 대학 유치와 도시계획 및 산업단지 배치의 연계성 강화 필요.
- 외국 대학의 투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지원 체계 및 금융 지원 체계 정비 필요.

2) 시사점

- 외국 대학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설립 초기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다양한 대학 자체의 자금조달 포트폴리오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해소 검토 필요.
- 외국 대학이 국내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하고, 출범 초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원 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외국 대학의 유치가 외국 대학 교육의 수요층 흡수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고등 교육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기반조성 필요.

-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 혹은 제3의 외국 대학과 함께 국내 혹은 외국에서 학위 프로그램 혹은 분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외국 대학의 원활한 국내 진출을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조건부 과실송금 허용 필요.

V. 중국 대학의 경기도 유치 타당성 검토

1. 경기도의 특성 및 외국 대학 유치 관련 여건

가. 경기도의 특성

1)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및 동북아 주요 도시권과의 비교

- 경기도 면적²⁹⁾ 은 10,173km²(전국 100,326km²의 10.2% / 전국5위)이며 서울시 면적(605 km²)의 17배임
- 분단국가의 특성에 따라 공간 활용의 제약이 있으며, 낙후된 경기북부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수도권 서울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요 도시들 간의 역할 배분 및 유기적 연결이 중요함
- 수도권과 경기도는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이지만, 주변 동북아시아의 주요 대도시권과의 경쟁이 불가피 함
- 일본 수도권에 비해 인구, 경제규모 등이 미약하고, 중국의 장강삼각주(상하이권) 및 베이징, 텐진, 허베이에 비해 성장속도가 더딤

□ 중앙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의 수도권 발전전략³⁰⁾

- ‘수도권을 동아시아중심도시권으로 육성’ 하고자 함
- 4대 기본목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경제체제 전환
- 동아시아 중심도시권 육성을 위한 다핵형 공간구조 및 인프라 구축
- 녹색성장 선행모델과 문화관광브랜드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확보
- 자율적인 광역성장관리체제 구축 및 권역 간 연계협력 강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는, 수도권을 동아시아의 중심대도시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으며,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전략기지로 특성화 발전시킴으로서 서해안 일대의 물류산업 및 관광레저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함

29) 경기도청(2015), 경기도정 주요지표.

30) 경기도청(2012),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 경기도의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수립³¹⁾

- 기존 정부에서 제시된 수도권 발전방향을 수용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인근의 서울, 인천, 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을 수립함.
- 중국, 일본과의 광역 경제권간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기도의 비전 및 발전전략임.
- 성장과 관리 개념의 광역 경제권 및 대도시권 정책을 정립함.
-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을 개발하고,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다핵공간구조 수립을 지향함.

□ 경기도 지리적 특성의 시사점

- 남북분단,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밀화, 경기북부 낙후, 동북아 주요 대도시권과의 경쟁 등의 어려운 주위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리적 공간 활용을 지향함.
- 또한 광역철도망 및 주요 교통중심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네트워크 공간구조 형성을 유도하여 경기도내의 주요 도시들의 기능 및 역할 분담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대도시권(수도권, 동경,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2)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특성

□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특성

- 인구 및 예산³²⁾
 - 총인구('15. 8월) : 12,825천명(전국 52,588천명의 24.4% / 전국 1위)
 - 인구밀도(명/km²) : 경기도 1,261명(서울시 17,075명, 전국평균 524명)
 - 예산규모 : 43조 9,025억원('16. 당초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 경기도 49.9%(서울시 80.4%, 전국 평균 45.1%)
- 저출산 및 고령화의 확대에 따라 복지재정이 증가추세에 있음
- 산업구조 전환이 늦어지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은 장기적인 하향 추세임
- 향후 성장과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필요함

31) 경기도청(2012),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32) 경기도청(2015), 경기도정 주요지표.

□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발전전략³³⁾

-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균형성장, 도시재생과 GTX·대중교통 중심의 인프라 확충,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체계의 정비와 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발전방향을 제시함
-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목표는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교육, 산업, 인력 등이 집적된 권역으로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
-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4대 전략
 - ‘과학기술-인력양성-산업진흥’ 연계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 전 지구적 에너지, 환경위기 극복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로 조성
 - 광역 인프라 구축과 발전거점의 지역 간 연계강화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여건 개선

□ 경기도의 사회 경제적 특성의 시사점

- 경기도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성장잠재력 확충, 인적자원과 과학기술 중심의 성장전략, 광역인프라 혁신, 복지 문화 교육 환경이 결합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3) 경기도의 정책적 특성

□ 경기도의 정책현황 및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분석

-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비전 제시: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
- ‘환황해권의 중심(Hub of Yellow Sea Rim)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및 국민경제의 엔진역할을 수행하고, 황해연안의 한 중 일 메가경제권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것’ 을 제시함
- ‘더불어 사는 사회(Smart Life)는 경기도가 계층, 출신지역, 국적에 상관없이 용광로(melting pot)가 되어 누구나 꿈을 실현하는 지역이 될 것’ 을 제시함

33) 경기개발연구원(2011),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표 5-1〉 2020년 4대 목표 및 8대 기본과제

2020년 4대 목표 설정	8대 기본과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역할 -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 건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협력과 남북공동번역 거점의 조성 -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거점 조성 -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제체계완성 -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심지 육성 -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 수도권 광역·녹색교통체계 완성 - 품격있는 문화, 창조산업의 선도 지역 실현 - 매너 있고, 살고 싶은 신생활 지역조성 정책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11),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의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 육성’ 기본과제

○ 비전: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 ‘공부하고 싶은 누구나 찾는 경기도’

○ 목표

- 더불어 다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정상화 기반 조성
- 원하는 도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제공으로 도민 평생학습참여율 50% 달성
- 학교 밖, 학교 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청년 교육환경 개선

○ 계획과제

- ‘경기도로 유학가자’ 국제교육 중심지 조성
 - 동아시아 교육허브 구축(East Asia Hub of Education, Gyeonggi)
 - 글로벌 교육기업 육성
- 더불어 다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정상화 기반 조성
- 평생교육 기반 조성
- 청소년 교육과 일자리 연계
- 대학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경기북부지역 대학 유치와 통일대학원 설립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림 캠퍼스 조성

□ 경기도의 정책적 특성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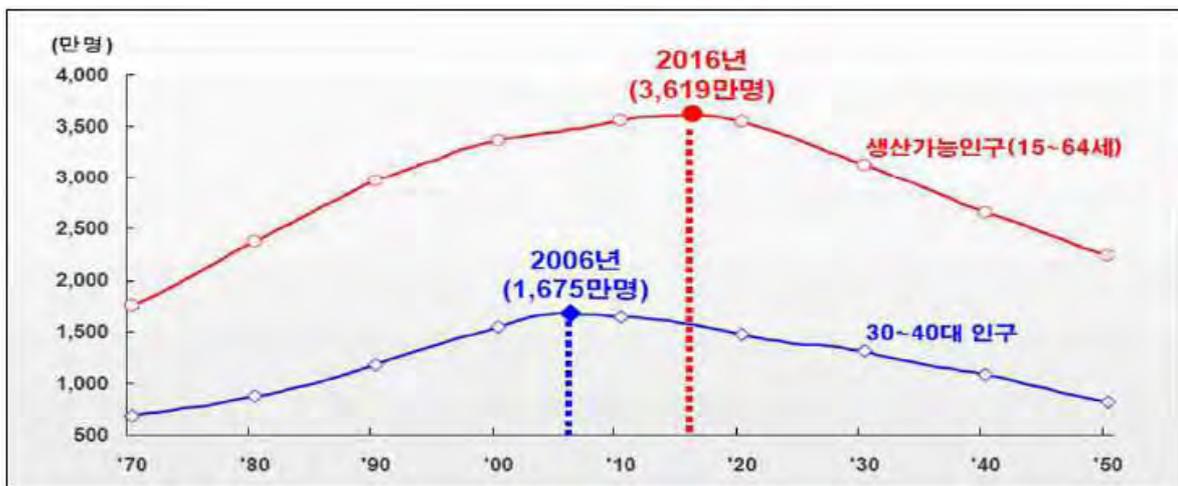
○ 기존의 수도권 관련 계획의 기초를 수용하며 제시된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에서는, 동북아 중심지로 부상하려는 기초에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해외 교육 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 8대 기본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심지 육성’에서는 ‘경기도로 유학가자’라는 국제교육 중심지 조성을 계획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계획으로 ‘동아시아 교육허브 구축(East Asia Hub of Education, Gyeonggi)’ 및 ‘글로벌 교육기업 육성’은 시대에 적합한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 향후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동아시아 교육허브’의 정책방향을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산·학·연·관의 역할분담을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것으로 사료됨.

나. 중국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우수 인력 유치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³⁴⁾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09년 19.8%에서 11년 22.6%로 증가 추세이며, 이는 저 임금 및 근로환경, 사회인식 등의 문제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체 산업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인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가 오고 있음.



〈그림 5-1〉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추이

34) 최향순 외(2012),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중소기업의 해외 우수 인력 확보의 필요성

- 지식교류와 융합 측면에서 해외 우수 인재 유입과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개발도상국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지식의 교류와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엔지니어와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외국인 기술인력 유입과 외국인 유학생의 진학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단순한 저임금 인력의 확보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개발 촉진 및 중국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전문가 유치를 위한 차원에서 제조 중소기업 등의 엔지니어 및 해외시장 개척 전문가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함.

□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위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³⁵⁾

- 최근 몇 년 동안 창업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창업 초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 창업기업 중 해외진출 비중도 1.5%에 그치고, 2%의 창업기업만이 창업 초기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중소기업청, 2013).
-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도 창조경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외국인의 창업을 활성화, 내국인 창업기업과 활발한 교류 역량을 통해 해외에 함께 진출하는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
- 내국인 창업기업은 거래처 발굴, 언어장벽, 해외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 이해가 높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외국인은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표 5-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

(단위: 개, %)

구분	창업 기업수	해외진출 자금부족	거래처 발굴	언어장벽	수출관련 절차적 규제부담	무역전문 인력부족	현지시장 규격인증 요구	기술력 부족	기업 신인도 부족	기타
전체	24,045	64.4	57.3	11.3	8.7	6.5	5.1	2.1	2.1	1.0

자료: 중소기업청(2013).

35) 김보경(2015),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 내·외국인 간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내수 중심에서 세계시장으로 창업기업의 무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창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 연고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창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미 거주 중인 8만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 Born Global 창업가로 육성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창업진흥원(2011)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44.8%가 국내 창업을 희망하고 있어 이들을 실제 창업으로 이끌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해외국가들도 유학생 등 외국인을 창업인재로 인식, 자국 내 창업 문턱을 낮추고 있음
- 특히, 창업과 체류 기간이 연계된 창업비자를 신설하는 국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우수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고용 및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지원 정책 추진을 시사함.

〈표 5-3〉 주요 해외국가 창업비자 도입 현황

구분	기업가 비자	패스트 트랙 비자	창업 프로그램
내용	일반 비자와 구별되는 창업가 전용 비자	일반 비자에 속하나 창업가 대상으로는 빠르게 발급되는 비자	창업프로그램 선발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
시행국가	싱가포르(' 04), 영국(' 08), 호주(' 12), 뉴질랜드(' 14)	아일랜드(' 12), 스페인(' 13), 이탈리아 (' 14), 네덜란드(' 15)	칠레(' 10), 캐나다(' 13)

출처: 한국무역협회(2015),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p.3 재인용.

□ 뿌리산업 인력수급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³⁶⁾

-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기업의 기술인력으로 활용하고, 유입 외국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국내대학(뿌리기술 관련학과)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기업의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는 사업 시범추진 필요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뿌리기업 취업을 허용하고 "유학자격(D-2) → 특정활동자격(E-7)으로 비자 변경", 5년 근무 후 국적 또는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 주력산업 성장에 따라 후방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의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산업통상자원부, 2013)

36) 산업통상자원부(2014), 뿌리산업 기술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 '12년 수요는 30.9만 명이나, 공급은 29.5만 명으로 1.4만 명(부족률 4.6%) 부족
- 특히, 기업의 생산성·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능인력(부족률 4.8%)과 기술인력(4.7%)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양적 부족보다 질적 저하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됨
- '17년이 되면 인력부족 규모가 5.5만 명으로 늘어나, '12년 1.4만 명 대비 3배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인력부족 전망: 12년 1.4만 명(부족률 4.6%) → 15년 4.1만 명(11.5%) → 17년 5.5만 명(14.1%)



<그림 5-2> 기능별 인력수급현황('12, 명)

-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의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바로 뿌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외국인유학생을 숙련 기술 인력으로 활용)
 - 그간 산업현장에서는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외국인은 비전문인력인 E-9 비자를 통해 노무인력 위주로 공급돼 활용도가 낮다는 업계의 지적
- 이에 산업부, 업계 공동으로 국내 대학(교)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엄선 한 후, 뿌리기업 취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임.
 -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내국인 임금 하락 방지를 위해 총체류 허용 인원,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임금하한선 등을 설정
 - 뿌리기업과 외국인 유학생간 고용계약 체결 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변경을 허용(유학자격, D-2 → 특정활동자격, E-7)
 - E-7 자격을 갖고 뿌리기업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인력에 대해 일정한 기술수준과 사회 통합성을 갖춘 경우 국적 또는 영주권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국내 정착을 유도할 계획
-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인력 위주로 뿌리산업에 유입되었는데, 향후에는 기술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산업으로 유입·정착함으로써 유입 외국인의 질적 수준도 제고 되고 국내 뿌리산업의 기술인력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 경기도의 해외 대학 교류 협력 현황 및 여건

1) 경기도 교육시설 및 현황

□ 경기도 교육관련 시설

- 2018년 이후, 대입 총 정원 대비 입학 학생수는 점점 미달될 것으로 보임
-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결국 폐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10년 경기도 교육시설은 유치원 142천명/1,950개원, 초등학교 848천명/1,145개교, 중학교 482천명/574개교, 고등학교 461천명/409개교, 대학과 대학원 327천명/82개교임³⁷⁾

□ 경기도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및 지역편중은 매우 심함

- 경기도의 글로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고등교육기관 유지와 산학 클러스터 구축이 절실함
- 하지만 서울지역에 비하여 경기도 내의 대학들의 경쟁력이 낮고, 지역분포도 매우 편향되어 있으며,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신규 대학 설치도 불가능함.

□ 경기도 내의 대학 구조조정 및 특성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³⁸⁾

-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
 - 대학 캠퍼스 간 동일학과 통폐합 및 정원감축, 과다한 개설 강좌수 축소, 실질적인 학과 평가 도입, 특성화 추진, 대학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 각 대학별 자체 발전계획을 연계한 대학 경쟁력 강화 필요함
 - 경기도 내 지역별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으로 특성화 된 캠퍼스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연구시설과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함

37) 경기개발연구원(2011)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38) 경기개발연구원(2013) 경기도 발전계획 2014-2018.

<표 5-4> 경기도 지역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관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

	사업명	대학 및 센터
수원시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성균관대학교 (전자통신부품 핵심소재 기술)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용 신기능성 소재 및 공정연구센터)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성균관대학교 (경기의약연구센터)
	인간기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제2종합연구동, 핵심연구센터)
성남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경원대학교 (신소재 및 응용 기술연구 센터)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지원	동서울대학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서울보건대학(의료정밀광학), 신구대학(생물, 미생물), 성남기능대학(기계 및 장비제품)
고양시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한국항공대학교(인터넷정보검색연구센터)
부천시	부천 만화산업 네트워크	가톨릭대학교(디지털미디어학과), 부천대학(캐릭터애니메이션과), 한대학(만화애니메이션과)
안양시	IT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안양대학교(원격검침 및 집중감시제어시스템 개발)
안산시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한양대학교(전자재료 및 부품연구센터)
	경기 TP 활성화	한양대학교, 한국산업대학교(정밀기기)
용인시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명지대학교(천연신기능성고재개발연구센터)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경희대학교(영상정보 소재기술 연구센터)
	IT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남대학교(레이저를 이용한 30인치 박막웨이퍼 아이싱기계의 연구, 개발 및 제품화)
평택시	항만클러스터 구축	평택대학교(국제물류, 유통, 운송, 세제 등)
화성시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수원대학교(전자통부품 핵심소재 기술)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수원대학교(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IT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수원대학교(미래 의약산업 개발 및 시험평가 사업)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클러스터	청강문화산업대학, 한국관광대학
안성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한경대학교(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연구센터)
	IT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중앙대학교(생물자원안전성연구센터)
양주시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	섬유관련 교육기관 및 섬유관련학과 유치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산업자원부, 경기도, 해당대학에서 사업 주관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과학기술부, 경기도, 해당대학에서 사업 주관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경기도, 해당대학에서 사업 주관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13) 경기도 발전계획 2014-2018’ 을 재구성.

2) 국제교류지역 현황

□ 경기도의 지속적인 국제교류지역 확대 노력

- 경기도는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통하여 상호간의 우호증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표 5-5〉 자매결연 체결지역 현황 (10개국 15개지역)

권역	국가명	지역명	기본현황		체결일자
			인구(천명)	면적(km ²)	
아시아 (5)	일본	가나가와현	9,030	2,415	'90. 4.24.
	중국	랴오닝성	43,750	145,800	'93. 10.4.
		광둥성	104,320	179,800	'03.10.20.
		허베이성	71,850	188,800	'09. 6.22
		산둥성	95,793	157,000	'09.12.11
북미 (4)	미국	유타주	2,550	217,574	'83. 9.30.
		버지니아주	7,640	110,991	'97. 4.11.
		플로리다주	18,250	170,313	'00.11.20.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4,350	924,000	'08. 5.19.
유럽 (2)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2,587	2,670	'95. 3.27.
	스페인	카탈루냐주	6,800	32,113	'99. 3.15.
중남미 (2)	멕시코	멕시코주	14,007	21,355	'96. 5.13.
	파라과이	알토파라나주	563	14,895	'97. 5. 9.
아프리카 (1)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우텡주	10,451	17,010	'95. 5.25.
대양주 (1)	호주	퀸즐랜드주	4,100	1,727,000	'97.11. 3.

자료: '신종호 외(2011),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증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을 재구성.

-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도는 다양한 국제지역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및 미국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비중이 큼
- 2000년대 이후, 경기도는 우호(경제)협력 체결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최근 몽골, 러시아, 노르웨이 등의 지역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각 지역과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3) 해외대학 교류협력 현황 및 여건

□ 경기도 대학 현황

- 경기도에는 총 87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음³⁹⁾
- 4년제는 43개(48%), 2·3년제는 33개(37%), 대학원 대학은 14개(15%)로 구성됨

〈표 5-6〉 경기도 대학 현황

	4년제	2/3년제	대학원대학교
동부	13	7	7
서부	9	9	1
남부	12	10	3
북부	9	7	3
경기도 전체	43	33	14

- 4년제 대학은 경기도 동부·남부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고, 2·3년제 대학은 경기도 남부·서부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음

□ 경기도의 중국 교류현황 40)

- 경기도는 중국의 각 성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맺고 있음
 - 랴오닝성('93.10 자매결연), 광둥성('03.10월 자매결연), 허베이성('09.6월 자매결연), 톈진시('08.3 우호협력), 장쑤성('11.8 우호협력), 산둥성('09.12 자매결연)

그 중, 경기도 차원에서의 교육 분야 교류는 산둥성 및 기타지역에서 추진 중임.

39) 김성하 외(2015). 경기도 대학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연구.

40) 경기도청(2015), 중국 교류지역별 추진사업.

〈표 5-7〉 우호(경제)협력 체결지역 (14개국 18개지역)

권역	국가명	지역명	기본현황		체결일자
			인구(천명)	면적(km ²)	
아시아 (11)	중국	톈진시	12,938	11,760	'08. 3.28.
		장쑤성	78,661	102,600	'11.8.26.
		지린성	27,504	187,400	'14.8.25
	대만	타이베이시	2,700	272	'00. 6.29.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주	7,498	72,781	'02..2. 4.
	캄보디아	캄푹주	585	4,873	'02.11.13.
	인도	마하라 쉬트라주	96,880	307,762	'07.3.28.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1,603	224,000	'08.3..26.
	베트남	응에안성	3,100	16,498	'09.5.25.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개발청(MMDA)	12,000	638	'11.2.28
	몽골	울란바토르시	1,345	4,704	'15.7.16
북미 (2)	미국	텍사스주	24,327	696,241	'07.10.30.
		미시간주	9,880	250,687	'11.9.30
유럽 (5)	스웨덴	바스트말란드주	280	8,363	'99.3.11.
	터키	이스탄불주	12,910	5,196	'12.2.20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4,297	194,800	'12.10.26.
		연해주	1,950	166,000	'13.8.27.
	노르웨이	아커스후스주	573	4,918	'15.2.25.

자료: 경기도청(2015), 자매결연 체결지역 현황.

〈표 5-8〉 산동성과의 교육 분야 추진사업 현황

산동성 교류 분야	사업명	추진현황	소관 부서
교육 학술	경기-산동 대학교류협의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목적 : 주요대학 간 교류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학생 관리, 학술교류 추진 ○ 시 기 : 매년 10월 교차개최('12.10월 창설) ○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산동 대학교류 확대방안 연구발표 - 경기·산동 매칭대학 간 교류협력 추진 	교육 협력 과
	경기개발연구 원-산동사회과 학원 연구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근거 : GRI-산동사회과학원 간 협력MOU('04.11.8) ○ 공동연구 : 04년부터 14건 ○ 공동포럼 : 04년부터 연1회 교차개최 ○ 주요내용 : 경기도-산동성 발전포럼 개최 	경기 개발 연구 원

*출처: 경기도청(2015), 중국 교류지역별 추진사업 현황.

- 중국과의 교육협력에서 특이한 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외국대학과 중국대학간의 합작대학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합작대학은 총 86개이지만, 그 중 78개의 합작대학이 러시아와 가까운 헤이룽장성에 분포함⁴¹⁾
 - 한국과 중국의 합작대학은 19개 이지만, 그 중 12개의 합작대학이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에 분포함.
-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와 산둥성 대학과의 교류는 경기도 16개 대학 및 산둥성 19개 대학이 참여하였음(교류인원 1,271명)⁴²⁾

〈표 5-9〉 기타지역과의 교육 분야 추진사업 현황

교류 분야	사업명	추진 현황	소관 부서
교육	중국 유학 설명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목적 : 道 주요대학 홍보를 통한 중국 유학생 유치 ○ 참가실적 : '12.10월 상하이 교육엑스포 참가(아주대, 한양대 등 12개 대학) '13. 9월 시안(西安)유학박람회 참가(경기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교육협력과
	공감 남북협력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목적 :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파악 및 북한변화 유도 등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 전이 및 통일대비 인력 양성 ○ 추진근거 : 공감 남북협력아카데미 업무협약('12.4.27) ○ 추진실적 : 12.6.18~6.29 <11박 12일>, 22명 파견 ○ 주요내용 : 중국사회과학원, 상해 복단대 위탁교육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등) 	남북협력담당관

자료: 경기도청(2015), 중국 교류지역별 추진사업 현황.

- 경기도 차원에서의 중국 각 지역과의 교육 분야의 교류는, 산둥성을 제외하면 미약한 편임.
- 향후, 중국과의 교육 분야 협력은 지역적 근접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명목상의 교육협력이 아닌,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지역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임.

41) 구자역 외(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42) 경기도(2015). 산둥성 대학 교류현황(산둥성 대학교류 협의회 자료).

□ 경기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

- 외국인(중국인) 유학생의 감소요인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학령인구 감소, 영미권 유학증가, 경제성장 지체 등의 요인
 -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 다변화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지자체의 외국인 유학생 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지원을 위해 '외국현지 유학설명회' 및 '유학생 워크숍'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⁴³⁾
 - 2012년부터 외국현지 유학설명회 및 현지 유학전시회 참가지원
 - 2013년부터 도내 외국인유학생 워크숍을 통해 유학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비자 등 강의 및 한국문화체험 기회제공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변화 및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지원정책 필요

라. 중국 대학 유치관련 여건 분석

1) 한중교육교류협력 개요

□ 정부수준 교류⁴⁴⁾

- 수교이후 교역규모 : 63억 8천만 달러(1992년) → 2,643억 달러(2014년)
- 인적교류 : 1000만 명 (2014년 한국방문 613만 명, 중국방문 418만 명)

〈표 5-10〉 한-중 정부수준 교류 내용

연도	내용
1992년 (한중수교)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등 6개 항 합의
1995년	- 양 교육부간 교육교류 및 합작에 대한 협의 서명
2005년	- 양국 교육부 실국급 협의시스템 구축
2008년 5월	- 한중 양국의 고등교육학력학위상호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008년 8월	- 2008-2010 한중교육교류협의 서명(후진타오 주석 방한)

자료: '구자역 외(2015), 경기도와 산둥성내 대학간 교류협력 증진방안' 을 재구성.

43) 경기도(2015), 산둥성 대학 교류현황 (산둥성 대학교류 협의회 자료)

44) 구자역 외(2015), 경기도와 산둥성내 대학간 교류협력 증진방안

2) 중국대학 유치관련 여건 분석

가) 외국(중국)대학 유치를 위한 여건 분석

□ 한국의 외국 우수고등교육기관 유치 배경 및 현황에 대한 여건 분석

- 외국 우수고등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의적인 분위기는 중국대학 유치의 긍정적인 요소임
 - 한국정부는 교육개방, 해외대학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연구사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한국 고등교육시장의 고착화된 서열화 및 과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국 우수고등교육기관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함
- 국내대학 및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도 외국대학 유치는 적극적으로 지향되고 있는 사업임
- 하지만 한국사회의 서열화된 대학구조에서 외향적으로는 세계화, 개방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서열구조에 안주하는 폐쇄적인 성향도 보임

□ 외국대학 유치여건 분석

- 외국 우수고등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국 우수고등교육기관 유치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함
 - 중국·일본·싱가폴·말레이시아·중동지역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외국 우수고등교육기관 유치는 국제 고등교육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의 해외대학 유치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해외명문대학의 독립적인 분교만을 유치하려는 정책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선진국의 우수고등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우수 한국 학생의 모집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명문대학이 해외로 굳이 진출할 필요가 없음
 - 만약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국내에 독립분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및 등록학생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오늘날의 고등교육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독립된 분교형식의 외국교육기관 유치보다는 공동·복수학위제, 학점교환제 혹은 합작대학 형태 등을 통한 기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합작대학(Joint University) 형태의 복수학위(Dual Degree) 및 공동학위(Joint Degree) 프로그램 유치로의 전환이 필요함⁴⁵⁾

□ 중국대학 유치여건 분석

- 중국으로의 외국대학 진출은 상대적으로 빈번하지만, 중국대학의 해외로의 진출사례는 매우 적음.
 - 중국대학을 끌어들이기 위한 큰 지원요소가 필요하며, 국내유수대학과의 협력형태가 가능성이 있음
- 화교 경제권과의 연계성 고려가 필요함
 - 중국의 분교사례(라오스, 이탈리아)를 비추어 볼 때, 인근 산업·연구기관과의 클러스터 연계 및 중국화교의 진출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라오스와 이탈리아의 중국대학 분교 진출상황을 볼 때, 유치지역 산업과의 클러스터 조성 및 중국인의 사전 진출여부가 진출 결정요인 중의 하나임
- 중국대학의 독립적인 해외진출은 중국 측 입장에서 선진고등교육 내용을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임
 - 중국어 및 중국문화 전파 중심의 유치형태도 고려해야 함

나) 외국(중국)대학 유치를 위한 경기도 맞춤형 전략의 가능성

□ 경기도의 지정학적 맞춤형 전략

- 서울지역 및 인천(송도)지역에 비해 경기도는 외국 우수고등교육 기관 유치 분야에서 이미 후발주자임
 - 서울지역의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강점이 있고, 인천의 송도캠퍼스는 미국 등지의 선진국 우수고등교육 기관 유치를 중심으로 함
 - 경기도는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및 글로벌 입지의 경기도 특성을 활용하여 산·학·연관의 대규모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을 경기남부와 북부에 시도해볼 수 있음

□ 국내대학의 중국대학 유치노력 증진

- 성공적인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내대학의 외국대학 유치노력이 필요함
 - 경기도에는 총 87개의 적지 않은 수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울 및 인천지역보다 캠퍼스 부지활용이 수월함
 - 또한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외국대학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함

45) 모종린(2011), 해외대학 유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외국대학 유치를 성공시키는 국내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미 합작형식으로 진출한 대학 및 앞으로 의향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부지를 제공해주는 합작대학 캠퍼스를 조성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 경기도의 외국대학 캠퍼스 부지 조성(예: 인천송도지역)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군부대 반환 지역의 거시적인 환경조성 투자 및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

- 경기남부 평택지역 및 경기북부의 주한미군 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열악한 주위 여건을 극복할 선제조건이 필요함
 - 기본교육시설 부지 및 인프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경기도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국내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조성, 경기북부의 낙후된 주위여건 (산업, 사회환경, 산업·연구 인프라) 조성 등이 필수적임

마. 과제 및 시사점

□ 중국대학 유치방안 및 지원전략 수립

- 중국대학의 국제교류 사례에서 볼 때, 중국의 해외진출 주된 목적은 중국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경쟁력 향상, 그리고 중국어 및 중국문화 전파에 있음
- 경기도의 중국대학 유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임
- 기존 국내대학과의 합작대학 및 프로그램 추진
 - 중국대학은 아직 활발히 외국에 분교를 진출시키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중국대학의 분교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독립된 분교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국내대학과의 합작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경기도 혹은 국내대학이 중국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육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중국대학의 국내 진출 비용 및 위험성이 낮춰질 수 있음
- 또한 ‘공자학원’ 등의 중국어·중국문화 전파를 위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한 뒤, 점진적으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전공 및 합작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적, 제도적 정비⁴⁶⁾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합작대학 설립 허가 검토
- 법을 개정하여 국내대학이 외국 교육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 허용.
- 합작대학 설립을 위한 내용,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하고, 허가 및 평가기준 제시
- 단과대학 및 합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기존의 합작대학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에서만 운영 및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합작대학 설립 및 운영에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규제완화 및 지원 검토
 - 외국 우수고등교육기관의 국내진입을 막는 규제완화 및 관련제도 정비 등 기본적인 정책조정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관련규제 완화, 법인세 면제, 과실송금 허용, 학교부지 지원,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보조금 지원 및 연구비 지원 등

□ 정부, 지자체, 산업체, 대학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 정부, 지자체, 산업체, 대학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
 - 각 기관의 외국 우수고등교육기관 위한 포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유치 및 설립 신청에 관련된 심사 및 허가를 담당
- 외국대학 유치 및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할 필요
 - 산학협력기반을 구축하여 합작대학과의 연계지원 강화
 - R&D 지원사업 및 연구인력 지원
- 지원기관 설치
 - 외국대학유치 및 합작대학 설립의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우수외국대학의 국내 진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46) 구자역(2013), 합작대학 설립방안.

□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

- 산·학·연·관이 포함되는 클러스터 개념의 조인트 캠퍼스 조성이 필요함 .
- 경기도의 각 지역별 특성화를 중심으로, 산·학·관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중국의 '심천가상대학원(深圳虚拟大学园)' 모델과 같이, 판교의 '국제협력센터'에 산·학·연·관이 연계된 클러스터 조성.
- 하이테크 산업 단지의 질적 수월성 및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관 모델 구축.
- 대학 연구 산출물의 산업화 및 대학의 기업 인큐베이터 기능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우수 대학 및 프로그램의 선별적 유치로 위상 제고.
- 입주 대학 간 네트워크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
- 맞춤형 인재 양성과 탄력적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기업의 요구에 부응.
- 대학 유치를 위한 초기 지원 정책 시행.
- 입주대학의 법인화 요구를 통한 정주 기업 정책.

□ 학생수급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

- 합작대학의 목적은 국내뿐만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비중을 두어야 함
 - 이를 위해, 졸업 후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여부가 중요함
- 적절한 등록금 수준 및 장학금 지원
 - 과다한 등록금 방지
 - 지자체, 산업체, 대학을 통한 장학금 마련

□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 외국인 증가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외국대학 유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외국 학생 유치는 우수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성패의 관건임
 - 세계대학협의회 등을 통한 국외 대학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외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제공

2. 중국 대학의 경기도 진출에 대한 요구

가. 설문조사 개요

□ 목적

- 중국 대학 유치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중국 대학이 한국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
- 이에 중국 대학의 한국 내 대학 설립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중국 대학별 교육협력담당자 19명
- 조사 기간 : 2016년 2월 11일~19일
- 조사 방법 :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 내용

- 중국 대학의 해외 대학 설립 현황과 향후 해외 대학 설립 의향 및 요구 사항, 해외 대학 설립 여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함.
- 첫째, 해외 대학 설립 현황은 현재 해외 합작대학 설립 경험이 있는지, 설립하였다면 설립형태는 무엇인지, 학위 유형은 무엇이며 개설 학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임.
- 둘째, 향후 해외 대학 설립 의향 및 요구는 해외 합작대학을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 설립한다면 어떤 국가에 설립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며, 특히 한국에 합작대학을 설립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학위 유형 및 학위 인증 유형은 어떤 것이 적절한지, 어떤 학과가 개설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임.
- 마지막으로 해외 대학 설립 여건과 관련하여, 중국 대학이 해외에 합작대학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와 한국에 합작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이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임.

〈표 5-11〉 설문조사 문항 구성

구분	내용	문항번호
기본정보	학교명, 설립유형	1~2
해외 대학 설립 현황	설립 경험 유무	3
	설립 형태	4
	학위 유형	5
	개설 학과	6
해외 대학 설립 의향 및 요구	해외 대학 설립 의향	7
	해외 대학 설립 국가(한국 내 대학 설립 의향)	8
	한국 내 대학 설립 이유	9
	설립 형태	10
	학위 유형	11
	학위 인증 유형	12
	개설 학과	13
	적정 학비 수준	14
	학생 및 교수 규모	15
	한국(내국인) 학생 비율	16
한국(내국인) 교수 비율	17	
해외 대학 설립 여건	해외 대학 설립 시, 고려 사항	18
	지원 요구사항	19
	행·재정적 지원 사항(자유기술)	20

나. 설문조사 결과

1) 해외 대학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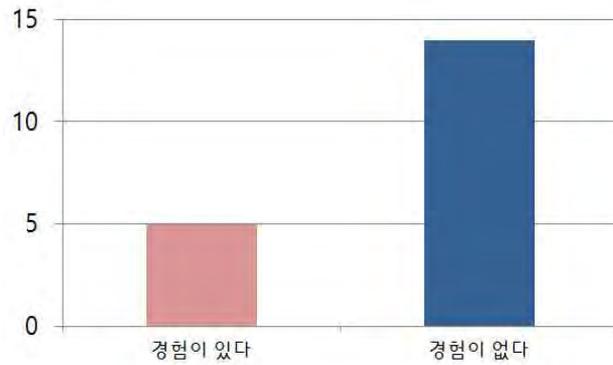
□ 해외 합작대학 설립 경험 및 형태

- 현재 재직 중인 대학이 해외에 합작대학을 설립한 경험이 있는 대학은 26.3%이며, 합작대학 설립형태는 대학 내 프로그램 설립이 66.7%, 대학과 대학 간 독립법인 설립이 33.3%로 나타남

<표 5-12> 해외대학 설립경험 유무

단위: 명

	n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전체	19	5(26.3%)	14(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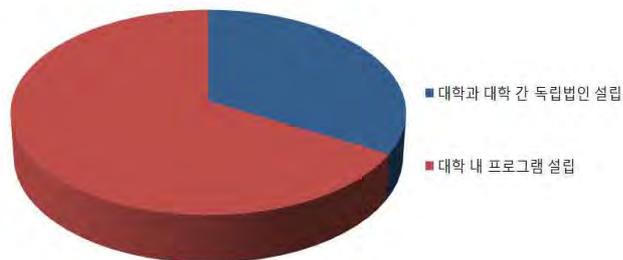


<그림 5-3> 해외대학 설립경험 유무

<표 5-13> 해외대학 설립형태

단위: 명

	n	대학과 대학 간 독립법인 설립	대학 내 단과대학 설립	대학 내 프로그램 설립
전체	6	2(33.3%)	0(0%)	4(66.7%)



<그림 5-4> 해외대학 설립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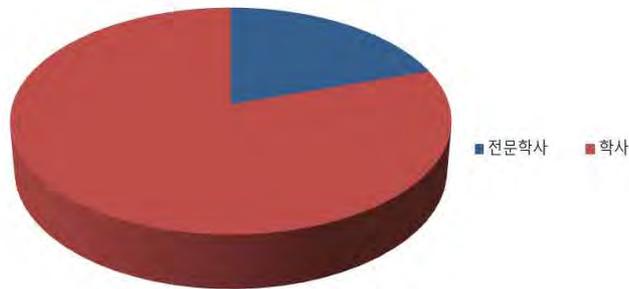
□ 해외 합작대학 설립 시 학위 유형 및 개설학과

- 해외 합작대학 설립 시, 학위 유형은 학사가 80%, 전문학사가 20%로 대부분 학사학위 과정으로 개설하였으며, 개설 학과는 인문계열이 33.3%, 사회계열이 25%, 공학계열이 16.7%인 것으로 나타남.

<표 5-14> 해외대학 설립 시 학위유형

단위: 명

	n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기타
전체	5	1(20%)	4(8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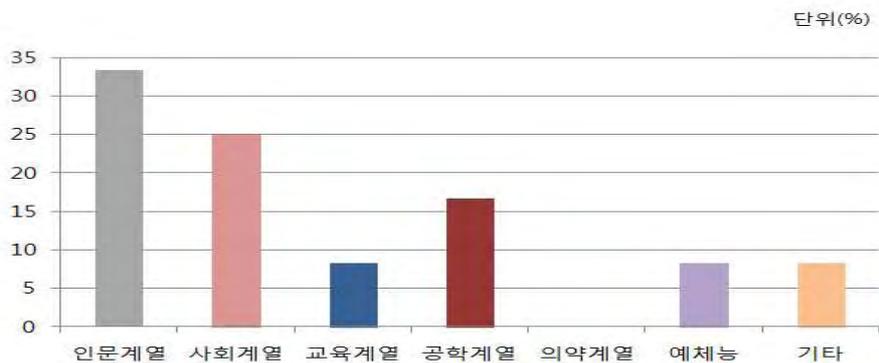


<그림 5-5> 해외대학 설립 시 학위유형

<표 5-15> 해외대학 설립 시 개설학과

단위: 명

	n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	기타
전체	12	4(33.3%)	3(25%)	1(8.3%)	2(16.7%)	0(0%)	1(8.3%)	1(8.3%)



<그림 5-6> 해외대학 설립 시 개설학과

2) 해외대학 설립 의향 및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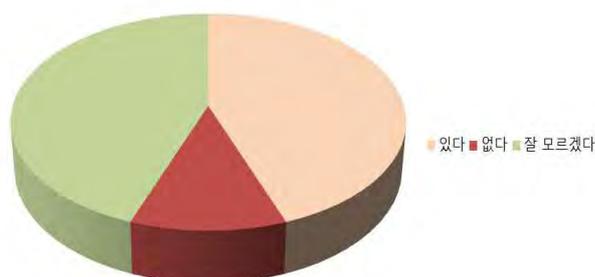
□ 해외대학 설립 의향

- 해외대학 설립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설립 의향이 있는 대학이 44.4%로 나타났으며, 해외대학 설립 국가는 한국 50%, 미국 33.3%, 영국과 일본이 8.3%인 것으로 나타남

〈표 5-16〉 해외대학 설립의향

단위: 명

	n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18	8(44.4%)	2(11.1%)	8(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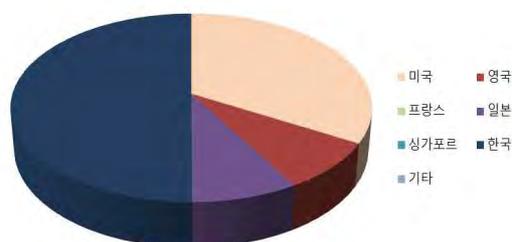


〈그림 5-7〉 해외대학 설립의향

〈표 5-17〉 해외대학 설립국가

단위: 명

	n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한국	기타
전체	24	8(33.3%)	2(8.3%)	0(0%)	2(8.3%)	0(0%)	12(50%)	0(0%)



〈그림 5-8〉 해외대학 설립국가

□ 한국 내 대학 설립 이유 및 형태

- 한국 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하여 본교로 송출하기 위한 목적이 47.7%, 대학의 국제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목적이 42.1%, 한국기업과의 산학 협력이 10.5%로 나타남.
- 한국 내 대학 설립 형태는 대학과 대학 간 독립법인이 43.8%, 대학 내 단과대학 설립이 25%, 대학 내 프로그램 설립이 18.8%로 나타나, 대학과 대학 간 독립법인 형태의 합작대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8>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이유

단위: 명

	n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화)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하여 본교로 송출	경제적 이윤 추구	한국 기업과의 산학 협력	기타
전체	19	8(42.1%)	9(47.4%)	0(0%)	2(10.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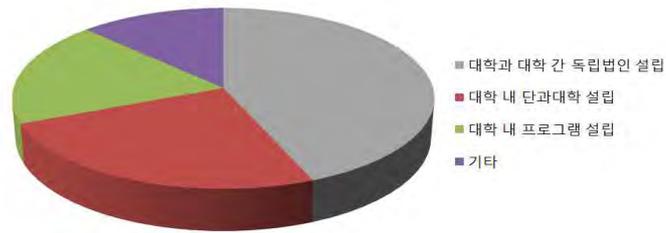


<그림 5-9>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이유

<표 5-19>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형태

단위: 명

	n	대학과 대학 간 독립법인 설립	대학 내 단과대학 설립	대학 내 프로그램 설립	기타
전체	16	7(43.8%)	4(25%)	3(18.8%)	2(12.5%)



<그림 5-10>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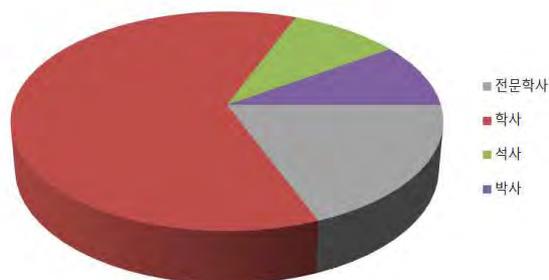
□ 한국 내 대학 설립 시, 학위 및 학위인증 유형

- 한국 내 대학 설립 시, 학위 유형은 학사 61.9%, 전문학사 19%, 석사와 박사가 각각 9.5%로 학사학위 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학위인증 유형은 공동학위 수여가 75%, 한국대학의 학위 수여가 25%로 한국과 중국 대학의 공동학위 수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0>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위유형

단위: 명

	n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기타
전체	21	4(19%)	13(61.9%)	2(9.5%)	2(9.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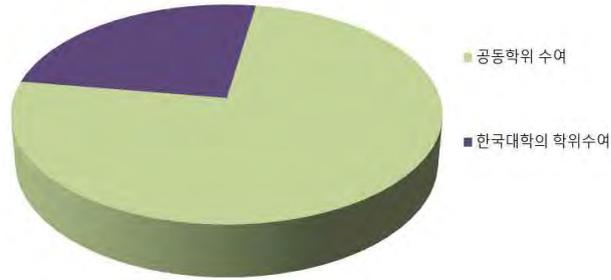


<그림 5-11>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위유형

<표 5-21>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위인증 유형

단위: 명

	n	공동학위 수여	중국대학의 학위수여	한국대학의 학위수여	기타
전체	16	12(75%)	0(0%)	4(25%)	0(0%)



<그림 5-12>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위인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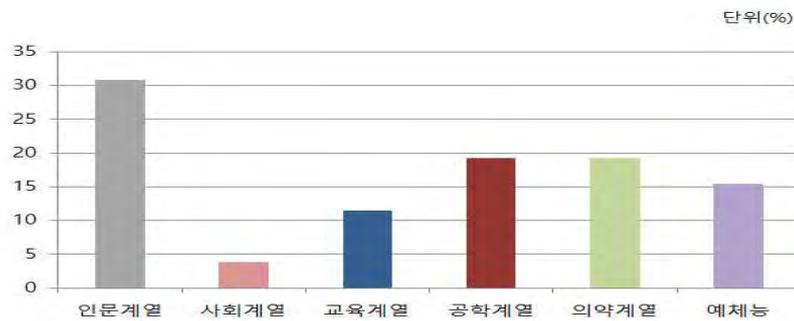
□ 한국 내 대학 설립 시, 개설 학과

- 한국 내 대학 설립 시, 개설 학과는 인문계열이 30.8%,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이 각각 19.2%, 예체능계열이 15.4%로 나타남.

<표 5-22> 한국 내 중국 대학 개설학과

단위: 명

	n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	기타
전체	26	8(30.8%)	1(3.8%)	3(11.5%)	5(19.2%)	5(19.2%)	4(15.4%)	0(0%)



<그림 5-13> 한국 내 중국 대학 개설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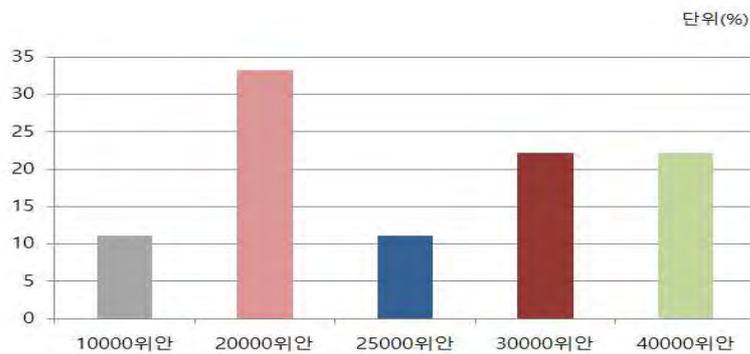
□ 한국 내 대학 설립 시, 적정학비 수준 및 학생과 교수 규모

- 한국 내 대학 설립 시, 적정학비 수준은 20,000위안이 33.3%, 30,000위안과 40,000위안이 각각 22.2%로 나타남.
- 학생 및 교수 규모는 학생 10명 및 교수 1명이 27.3%, 학생 3,000명 및 교수 100명과 학생 40,000명 및 교수 200명이 각각 18.2%로 나타남.

<표 5-23> 한국 내 중국 대학 적정학비 수준

단위: 명

	n	10000위안	20000위안	25000위안	30000위안	40000위안
전체	9	1(11.1%)	3(33.3%)	1(11.1%)	2(22.2%)	2(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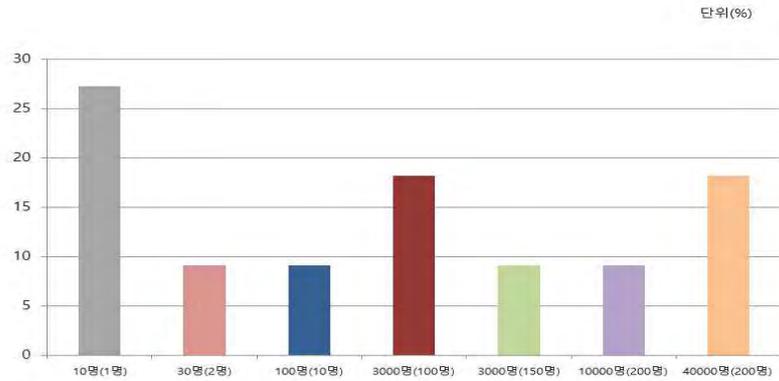


<그림 5-14> 한국 내 중국 대학 적정학비 수준

<표 5-24>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생 및 교수규모

단위: 명

학생 (교수)	n	10명 (1명)	30명 (2명)	100명 (10명)	3000명 (100명)	3000명 (150명)	10000명 (200명)	40000명 (200명)
전체	11	3(27.3%)	1(9.1%)	1(9.1%)	2(18.2%)	1(9.1%)	1(9.1%)	2(18.2%)



〈그림 5-15〉 한국 내 중국 대학 적정학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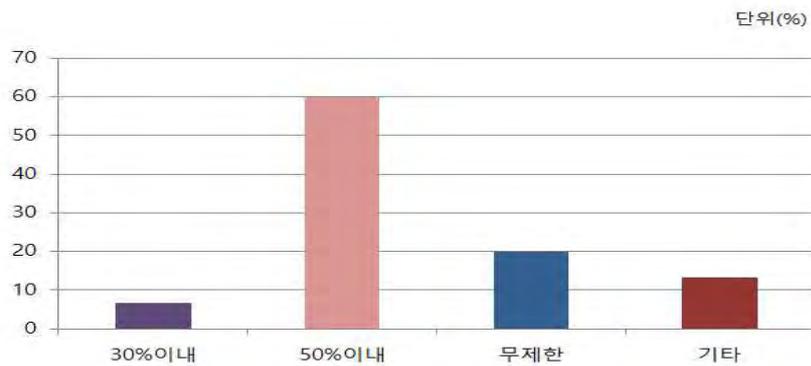
□ 한국 내 대학 설립 시, 한국학생 및 교수 비율

- 한국 내 대학 설립 시, 한국학생 비율은 50%이내가 60%, 한국교수 비율도 50%이내가 66.7%로 한국학생 및 교수는 50%이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5〉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생비율

단위: 명

	n	30%이내	50%이내	무제한	기타
전체	15	1(6.7%)	9(60%)	3(20%)	2(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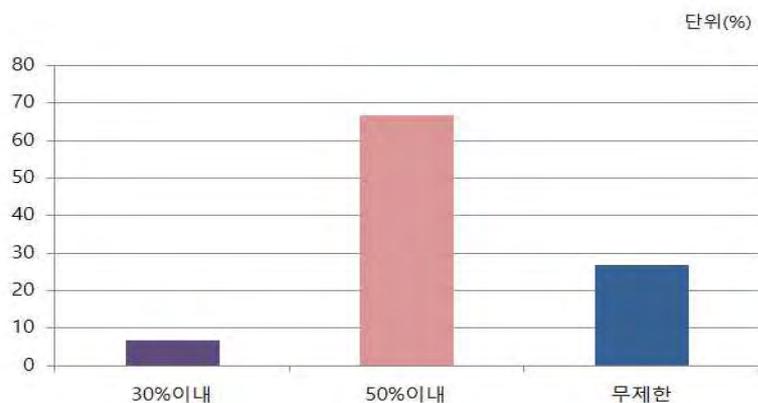


〈그림 5-16〉 한국 내 중국 대학 학생비율

<표 5-26> 한국 내 중국 대학 교수비율

단위: 명

	n	30%이내	50%이내	무제한	기타
전체	15	1(6.7%)	10(66.7%)	4(26.7%)	0(0%)



<그림 5-17> 한국 내 중국 대학 교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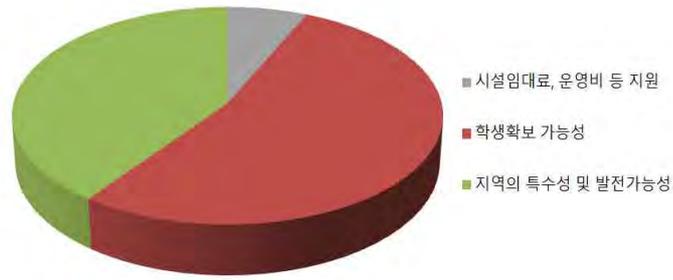
□ 한국 내 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 한국 내 중국 대학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학생 확보 가능성이 53.3%, 지역의 특수성 및 발전가능성이 40%로 나타남.
- 중국 대학 설립 시, 지원 요구사항은 학사 및 선발, 교육과정 등의 자율적인 운영이 45.8%, 교지 및 교사의 임차허용이 33.3%로 나타남.

<표 5-27>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단위: 명

	n	시설임대료, 운영비 등 지원	학생확보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및 발전 가능성
전체	15	1(6.7%)	8(53.3%)	6(40%)



〈그림 5-18〉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표 5-28〉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시 지원 요구사항

단위: 명

	n	교지 및 교사의 임차허용	영리법인 허용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과실송금 허용)	학사, 선발, 교육과정 등 자율 운영	기타
전체	24	8(33.3%)	3(12.5%)	1(4.2%)	11(45.8%)	1(4.2%)



〈그림 5-19〉 한국 내 중국 대학 설립 시 지원 요구사항

다. 시사점

□ 중국 대학의 한국 진출 의향 및 조건

- 설문조사에 참여한 19개의 중국 대학 중 12개의 대학이 한국에 합작대학을 설립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대학과 대학 간 독립법인 형태의 합작대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중국 대학은 한국 진출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하여 중국 본교로 송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선호하는 학과는 인문계열과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학위 과정으로 중국대학과 한국대학의 공동학위과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 중국 대학을 설립할 경우, 학생 확보 가능성이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특수성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사 및 선발, 교육과정 등의 자율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 가능성

- 현재 국내 관련 법 상, 중국 대학이 선호하는 합작대학 형태의 외국 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가 중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합작대학 형태의 외국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 대학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 학생을 확보하여 중국 본교로 송환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중국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함.
-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및 대학구조개혁 등 경기도 대학이 당면한 과제를 중국 대학 유치를 통해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국 대학이 경기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학생 유치 가능성은 물론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 및 발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대학에 합작대학 설립의향이 있는 중국 대학이 19개 중 12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국 대학은 현재 관련 부처의 해외대학 설립기준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세계 100위권 대학 및 학과에 포함되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중국 대학의 경기도 유치 타당성 검토

가. 타당성 분석 근거

1) 타당성 분석 근거 마련을 위한 근거

- 중국 대학의 경기도 유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분석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외국 대학 유치관련 법령, 외국 대학 유치관련 기준, 관련 부처의 외국 대학 유치 시 고려사항, 기존 외국 대학 유치의 성공 및 실패요인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 분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외국 대학 유치관련 법령

- 외국 대학의 국내 유치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현행 법률」에 설립 기준이 제시됨.
- 기본적으로 외국 대학의 설립 주체는 비영리 외국 대학의 법인이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 대학의 국내 설립 및 운영의 특례가 주어짐.
- 관련하여 경기도가 중국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외국 대학 유치 관련 법령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 대학 유치관련 기준

-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은 ① 시설, 설비 등 법정 설립 기준, ②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 내 법적 지위, ③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④ 설립,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⑤ 학교의 건학이념, ⑥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⁴⁷⁾.

- ① 시설, 설비 등 법정 설립 기준으로 교지 및 교사의 임차가 허용되며, 수익용 기본재산 임차가 가능함.

47) 김미란(2011), 외국대학 유치모델 및 기준 연구: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②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 내 법적 지위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를 외국 법령에 의한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함.
- ③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을 본국에서 학위과정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 본국에서의 지명도를 양적 지표로 판단함.
- ④ 설립 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은 종합적으로 판단함.
- ⑤ 학교의 건학이념을 확인함.
- ⑥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을 확인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 공고(산업부 공고 제2009-33호)에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① 외국 대학의 명성도 및 우수성, ② 개설 교육 프로그램의 명성도, ③ 개설 프로그램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④ 교수진(교수 대 학생비율, 모집 방안), ⑤ 학사운영(학생 모집, 졸업 학위, 교류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해외 대학을 선정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외국 대학의 명성도 및 우수성으로 세계 수준의 지명도 100위 권이면서, 전공영역별 100위 이내에 포함되고 한국인 선호도 100위권에 속하는 대학이 유치 1순위 대상임.
- 이상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준에 더해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를 위한 법정 설립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경기도 지역의 교육수요(학생유치 가능성)와 입지조건(지리적 여건 및 정주 환경)이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명성도가 있는 중국 대학이 경기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처의 외국 대학 유치 시, 고려사항⁴⁸⁾

- 교육부는 외국의 우수 대학 유치에 긍정적이나, 유치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제적 여건 및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함.
 - 외국 대학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영역 확장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지명도 있는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외국 대학 유치 대상은 세계 200위 이내의 대학이나, 100위 이내를 선호함.
 - 현재 국내 대학도 정리가 되는 추세로 중하위권 외국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주변 인프라 및 주변 대학과 마찰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외국 대학이 유치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강조함.

48) 경기도청 내부자료(2014. 9. 1.)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작성함.

- 외국 대학 유치 지역 주변에 관련 산업, 연구기관, 지원 시설 등과 연계를 통해 외국 대학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 대학 유치 대상 및 유치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함.
 - 유치 대상 국가에 제한은 없으나 대학 유치 대상 기준은 세계 200위 이내 대학(학과)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계 50위권 대학 유치가 목표임. 송도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100위권 대학 수준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중국의 경우, 세계 50위권 이내의 대학을 유치하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목적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목표이며 대학의 경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 더불어 유학수지 적자 개선, 국내 대학교육 및 산업 경제 활성화 등이 부차적인 효과가 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 대학 유치 시 고려사항으로 학생 수요 충족, 유치 대상 학교의 명성 및 학과 경쟁력, 인근 산업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유치 지역의 정주여건을 강조함.
- 이상의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외국 대학 유치 시, 고려사항을 근거로 중국 대학의 경기도 진출 가능성, 학생 유치 가능성, 인근 산업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유치 지역의 정주여건 적합성 등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외국 대학 유치 성공 및 실패 요인

- 기존에 국내에 유치된 외국 대학(전남 광양 네덜란드 물류대학, 부산 FAU, 인천 송도글로벌 캠퍼스)은 재정지원, 학생유치, 정주여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남 광양 네덜란드 물류대학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나 국가에서 지원하였던 설립준비금, 운영비 등 50여억 원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네덜란드 본교의 지원 부족과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이유로 2013년에 폐교됨.
 - 부산 FAU(독일)의 경우,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정주여건 등 주변 생활여건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인천 송도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외국 대학이 학생모집정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만 선발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입학정원 미달 등 학생 충원율이 낮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외국 대학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에서는 법·제도상의 차이, 과실송금 불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등의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 제주 분교 설립(2009년)은 영리법인 학교설립에 대한 핀란드와 우리나라 법·제도상의 차이로 중단됨.
 -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제주 분교 설립(2006년)은 대학입학을 위한 예비학부 어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제주 분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과실송금 불가의 이유로 무산됨.
 -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제주 분교 설립(2004~2007년)은 조지워싱턴 대학이 부지 무상 임대는 물론 학교건물 설립을 요구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유치를 포기함.
- 이상의 기존 외국 대학 유치 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외국 대학 유치에 대한 중국의 법·제도와 국내의 법·제도 간의 차이(영리법인, 과실송금 등), 경기도의 재정지원 가능성(부지임대 및 건물 설립, 설립준비비 및 재정지원금 등), 학생 유치 가능성, 정주여건 적합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타당성 분석 근거

- 기존 선행연구 및 자료외국 대학 유치관련 기준, 관련 부처의 외국 대학 유치 시 고려사항, 기존 외국 대학 유치의 성공 및 실패요인 등을 분석하여 다음의 타당성 분석 근거를 도출함.

□ 근거 1: 관련 법 및 제도적 여건의 적합성

- 외국 대학의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 대학 설립 기준 및 설립 주체, 외국 대학 입지 가능 지역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함.
- 또한 중국의 해외 대학 진출관련 법 및 제도를 검토하여 경기도가 중국의 대학을 유치하는데 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분석함.

□ 근거 2: 경기도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 중국 대학 유치가 경기도의 정책적 발전방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분석함.
-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 목표가 경기도의 산업 및 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 분석함.

□ 준거 3: 중국 대학의 경기도 진출 가능성

- 중국 대학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 및 목적을 분석하여, 중국 대학이 경기도에 진출할 가능성을 분석함.
- 국내 외국 대학 유치 기준에 근거하여 세계 100위권 내 중국 대학 또는 특정 영역의 100위권 내의 중국 대학이 경기도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함.

□ 준거 4: 경기도의 재정지원 가능성

-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부지, 건물,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할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한지를 분석함.
- 또한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를 위한 예산지원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이 필요함.

□ 준거 5: 학생 유치 가능성

- 범국가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할 경우 학생 유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분석이 필요함.
-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 학생 동향과 중국으로 유학 가는 한국 학생의 동향을 파악하여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하는 경우, 학생 유치(국내 학생 및 외국인 학생)가 가능한가에 대해 분석함.
-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경기도 지역의 대학과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준거 6: 유치 지역의 정주여건 적합성

- 유치 지역의 편의시설, 문화시설, 주거 및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이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준거 7: 유치 지역의 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연계 가능성

- 중국 대학을 유치한 이후, 대학과 인근 경기도 지역의 산업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중국 대학 유치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수요 및 인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표 5-29〉 타당성 분석 준거

분석 준거		내용
1	관련 법 및 제도적 여건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대학 설립 기준 및 설립 주체, 외국 대학 입지 가능 지역 등 중국 대학 유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 중국의 법 및 제도상에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하는데 제한 사항이 있는가?
2	경기도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대학 유치가 경기도의 정책적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가? ■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 목표가 경기도의 산업 및 교육 발전에 효과가 있는가?
3	중국 대학의 경기도 진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대학이 경기도에 진출할 이유(유인가)가 있는가? ■ 국내 외국 대학 유치 기준에 따른 우수한 중국 대학이 경기도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4	경기도의 재정지원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는 중국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부지, 건물, 운영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가? ■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를 위한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가?
5	학생 유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 시, 학생 유치(국내 학생 및 외국 학생)가 가능한가? ■ 기존의 경기도 지역 대학과 학생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6	정주여건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대학 유치 지역의 편의시설, 문화시설, 주거 및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은 적합한가?
7	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연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지역의 산업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수입창출이 가능한가? ■ 중국 대학 유치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및 인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

나. 타당성 분석 결과

1) 관련 법 및 제도적 여건의 적합성

□ 외국 대학 유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

- 외국 대학 유치관련 법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해당됨.

□ 법률상의 외국 대학 유치 목적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 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즉 법률상의 외국 대학 유치의 주요 목적을 외국인의 교육 여건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천 송도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도 외국 대학 유치의 일차적 목적은 법률상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향상하는 것임.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 목적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유학수지적자 개선과 대학교류 및 산업경제 활성화 등이 목적이 될 수 있음.

□ 법률상의 외국 대학 유치 기준: 설립 자격

- 현재 법률상의 해외 대학 설립 자격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임. 즉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국가 내에 있는 교육기관의 분교형태 또는 본교형태로 대한민국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합작형태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중국은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를 통해, 해외 고등교육기관이 독자적으로 중국 내에 교육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의 고등교육기관과의 다양한

합작형태(독립법인 형태, 단과대학 형태, 합작 프로그램 형태)를 통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⁴⁹⁾.

- 즉, 현재 국내 법률상의 외국 대학 설립 자격인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은 중국에서 국제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의 합작학교법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경기도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합작대학 형태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4. 5. 13.)한 바 있으나 관련 부처 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현재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학과의 합작대학형태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선제 요건임.

□ 법률상의 외국 대학 유치 기준: 입지 가능 지역

- 현재 경기도의 외국대학 입지 가능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및 관련법 준용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평택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도시(330만 m²이상 지정)임.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조건은 지원도시사업구역지정(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 외국인투자 유치(동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동법 제16조), 외국교육기관설립대상 지역지정(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선행조건 충족이 필요함.
- 또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면적기준이 330만m²이상으로 과다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와 경기북부지역 발전은 물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 외국 대학 투자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적정 면적으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49) 구자역 외(2013). 합작대학 설립방안.

□ 과실송금 제도

- 현재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은 불가능함. 즉,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외국 대학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실송금 불가가 문제가 되어 무산된 사례가 있음.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경우, 제주 분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과실송금 불가의 이유로 분교 설치 계획을 철회한 바 있음.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재까지 과실송금 불허로 인해 외국 대학 유치에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싱가포르, 중국, 카타르, 두바이 등 대부분 주요국은 해외 대학 유치 시,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⁵⁰⁾. 특히, 중국의 경우도 원칙 상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화관리규정에 따라 해외송금을 인정하고 있음.
- 결국, 해외 대학에 대한 과실송금 규제 문제는 중국 대학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외국교육기관의 자금 흐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학교운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이러한 규제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조건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경기도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정책 방향

-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의 8대 기본과제 중 하나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 육성으로 ‘경기도로 유학가자’라는 국제교육 중심지 조성을 주요 계획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를 동아시아 교육허브로 구축하고, 글로벌 교육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대학 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대학 유치와 통일대학원 설립,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림 캠퍼스 조성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 내 중국 대학 유치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일반적인 중국의 명문대학 유치보다는

50) 주희정 외(2009), 해외 대학 유치 사례 국제 비교연구.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및 산업수요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및 지역 발전에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중국 대학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의 수도권 발전 전략

-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 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특히,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전략기지로 특성화 발전시킴으로서 서해안 일대의 물류산업 및 관광레저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수도권 발전전략의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역에 중국 대학을 유치한다면 대중국 전략기지로 특성화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해안 일대의 관련 산업·연구시설과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캠퍼스를 조성하여 중국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경기도 대학의 발전 방향

- 현재 경기도 내의 대학 경쟁력은 서울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며, 경기도 내 대학의 지역 분포도 매우 편향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 대학 유치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대학 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할 경우, 중국 대학에서 양성할 인재가 경기도 지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제 조건임.

3) 중국 대학의 경기도 진출 가능성

□ 외국 대학 유치 기준

- 교육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치 대상 국가에 제한은 없으나 세계 200위 이내의 대학(학과)을 유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는 세계 50위권 대학(학과)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송도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100위권 대학(학과) 수준을 유치하고 있음.
- 중국 대학 중 세계 50위권~100위권 대학은 베이징대와 칭화대 2개교에 불과함. 인

천시에서 베이징대와 칭화대 유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중국 정부차원에서의 소극적인 입장과 한국의 산업자원통상부에서의 중국 대학 유치에 대한 비선호로 무산된 바 있음.

- 외국의 우수한 대학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의 명문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한국 학생의 모집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진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가 외국의 명문 대학의 독립적인 분교만을 유치하려는 정책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임.

□ 중국 대학의 해외 진출 사례

- 중국 정부는 2010년 교육개방 및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0만 명(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발표함. 이는 중국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임.
- 특히, 중국은 자국의 우수한 인재가 해외 유학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고등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외국 대학과 중국 대학이 제휴하는 합작 대학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에 따라서 외국 대학이 독자적으로 중국에 대학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의 국제화 정책에 따라 외국 대학 유치는 합작 대학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대학의 해외 진출 사례는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임.
- 중국 대학의 외국 분교 설립은 현재 라오스, 이탈리아 플로렌스 등의 일부 사례에만 함. 쑤저우 대학 라오스 캠퍼스는 중국 대학의 최초 해외 진출 사례이며 저장성 지역의 Ningbo 대학은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 분교를 개설하였는데, 플로렌스 인근은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이미 많은 중국 기업이 진출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중국 대학의 분교 설립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결국, 중국 대학의 해외 진출보다는 외국 대학과 중국 대학의 합작 대학 확산을 통한 외국 대학의 중국 유치라는 중국 정부 및 중국 대학의 국제화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특별한 유인가 없이는 중국 대학이 경기도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중국 대학의 경기도 진출 의향

- 중국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개의 중국 대학 중 12개가 한국에 합작대학 형태의 대학을 설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들 대학은 세계 100위권 수준의 대학 및 학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목적으로 하는

중국 대학 유치에 적합한 대상인지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또한 중국 대학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 학생을 확보하여 중국 본교로 송환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중국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함.

4) 경기도의 재정지원 가능성

□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

- 송도글로벌 캠퍼스 조성 사업의 경우, 캠퍼스 부지 295,00m²에 10여개 대학 10,000여명 규모로 5년 간 설립 운영비 및 초기 운영비 지원, 시설 무상임대 등과 관련하여 약 10,700억 원의 사업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됨. 사업비 예산은 국비 25%, 시비 25%, 민자 50%로 추진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송도글로벌 캠퍼스에 유치한 외국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건물을 무상으로 5년간 임대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비를 연간 20억 원씩 4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교수(가족 포함)의 주거공간을 5년간 제공하고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도 학교건물을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이후,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학교 운영비를 4년간 연간 10억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교수(가족 포함)의 전세보증금을 보조하고 있음.
- 만일, 중국 대학 유치를 추진할 경우 부지매입 및 건물 설립, 대학운영비 등 향후 5년간 지원해야 할 전체 소요 경비를 추정한 이후, 도비 소요재원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재원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경기도의 재정여건

- 경기도의 2015년 기준 예산규모는 43조 9,025억이며, 재정 자립도는 49.9%임. 이는 전국 평균 45.1%보다는 높지만 서울시 80.4%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국내 타 지역의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설립 비용은 물론 대학 운영을 위한 제반 예산지원액이 과다하게 소요됨. 도내 재정여건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 대학 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됨.

5) 학생 유치 가능성

□ 중국 유학생 최근 동향

- 2015년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54,214명으로 전체 유학생 91,332명 중 5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중국인 유학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중국인 유학생은 8,96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53.2%였으나, 2009년에는 57,783명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7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이후에는 꾸준히 5만 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유학생 중 50%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12년을 기점으로 국내의 중국 유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2012년 55,427명, 63.8%→2013년 50,343명, 58.6%→2014년 50,336명, 59.3%→2015년 54,214명, 59.4%). 중국인의 유학 추세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유학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 학생이 한국에 있는 중국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은 희박함.
- 또한 기존 경기도 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의 대부분이 중국 학생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하는 경우, 기존 경기도 대학의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반발이 예상됨.
- 결국 한국으로 유학 오는 중국 유학생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중국 학생이 자국의 대학 대신 한국에 유치된 중국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중국 대학을 유치하는 경우, 중국 학생의 유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 학생의 중국 유학 최근 동향

-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이 11년 사이 4배 성장함.
- 중국의 외국 유학생 수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음. 2007년에는 중국의 한국 유학생이 64,481명, 32.98%, 2008년에는 66,806명, 29.89%, 2009년에는 64,232명, 26.98%, 2010년에는 62,957명, 23.75%, 2011년에는 62,442명, 21.34%, 2012년에는 63,488명, 19.35%로 꾸준하게 한국 학생 6만여 명이 매년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⁵¹⁾.

- 이에 국내에 중국 대학 캠퍼스가 설립된다면 한국 학생들이 중국 유학이 아닌 국내 중국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중국 유학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내 중국 대학에 입학할 학생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움.

□ 기존 한국 대학의 여건

- 국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진행에 따라 향후, 대학의 폐교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외국 대학 유치에 대학 간의 학생 유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음. 이는 외국 대학 유치에 대한 국내 대학의 반발이 예측되는 상황임.
-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이 중국 학생으로 경기도가 중국 대학 유치를 추진할 경우,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있는 국내 대학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대학의 학생 수 및 중국 유학생 수는 유지,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중국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유치 지역의 정주여건 적합성

□ 유치 가능 지역의 인프라 현황

- 경기도는 외국인 최다 거주 지역(전체 외국인의 30%)이고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서울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며 수도권 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등 다수의 저렴한 미개발 가용지 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있음.
- 그러나 현재 외국 대학 유치 가능 지역인 경기 남부 평택지역과 경기 북부 주한미군 부지는 기본 교육시설 및 산업시설,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 주거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임.
- 이러한 대학 유치 지역의 편의시설, 문화시설, 주거환경 등의 정주여건은 학생 수요 충족에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중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가능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선제 조건임.

51) 구자역(2014), 중국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 및 사례 연구.

7) 유치 지역의 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연계 가능성

□ 중국 대학의 해외 진출 결정 요인

- 중국 대학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라오스,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유치 지역 산업과의 클러스터 조성 및 중국 기업의 사전 진출 여부가 중요한 결정요인 중에 하나임.
- 이에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하려면, 유치 지역이 경기도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될 수 있어야 유리함. 경기도 지역의 특성화 사업 및 글로벌 입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산학연관의 대규모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음. 가령 중국의 심천가성대학원 모델과 같이 경기도 판교지역의 국제협력센터를 활용하여 산학연관이 연계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임.

□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과 연계한 인재 양성

-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체 산업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특히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는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인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예정임.
-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단순한 저임금 인력의 확보 차원이 아니라 연구개발 및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 유치 차원에서 제조 중소기업 등의 엔지니어 및 시장 개척 전문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가 중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경기도 내 중국 대학에서 수학한 유학생을 졸업 후 중소기업에 기술 인력 및 중국 시장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경기도의 중국 대학 유치 타당성을 관련 법 및 제도적 여건의 적합성, 경기도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중국 대학의 경기도 진출 가능성, 경기도의 재정지원 가능성, 학생 유치 가능성, 정주여건 적합성, 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연계 가능성 등 7개의 타당성 분석 준거를 통해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중국 대학 분교를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경기도와 교류하고 있는 산동성 지역의 대학과 인적 및 물적 교류를 통한 실제적인 교류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합작 대학 형태

의 중국 대학 유치를 위해 관련 법 및 제도,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선제 조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Ⅵ. 경기도와 중국 대학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

1. 경기도와 중국 대학 간 교류협력을 위한 원칙

가. 원칙

□ 한·중 간의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교류모형 수립

- 현재의 한·중 대학 간 국제교류는 2015년 기준으로 약 5만 4천여 명의 중국 유학생과 6만 3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 유학생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유입 및 유출을 살펴볼 때 약 1만여 명의 한국 유학생이 더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경기도·산동성 내 대학 간 교육교류모형의 경우 교류 및 교환학생, 복수학위제, 단기연수, 교원교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음.
- 단, 경기도·산동성 내 대학 간 교류 및 교환학생의 경우 2015년 현재 57개 대학과 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나 초청 및 파견 형태의 교류 및 교환학생 수는 불과 314명으로 경기도 내 약 2만 여명의 중국 유학생 수와 비교할 때 매우 극소수의 교류 및 교환 학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2015년 현재 복수학위제의 실행은 3개 대학 49명이며, 단기연수는 15명, 교원교류는 3개 대학 8명, 기타 교류는 1명 등으로 매우 형식적인 교육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국내의 W대학의 경우 2+2 형태의 복수학위 및 어학향상프로그램, 교환학생 교수교류, Summer Culture Program 문화교류, 한중IT학원 개설을 통한 자원공유,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Summer School 및 캠퍼스 아시아, 장학제도의 확충, 도 단위 한중교육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 한중교육교류 사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모형을 수립해야 함.

□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적 공동체 기반 마련

-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황해권 중심(Hub of Yellow Sea Rim)’ 의 역할 중 국민경제의 엔진 역할 수행과 함께 경기도가 계층, 출신지역, 국적에 상관없이 용광로(melting pot)가 되어 누구나 꿈을 실현하는 지역이 될 것이

라는 ‘더불어 사는 사회(Smart Life)’의 실현을 위해 교육에 기반한 문화공동체 의식이 요청됨.

-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 육성’ 기본과제와 관련하여 학교 밖, 학교 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청년 교육환경 개선, ‘경기도로 유학가자’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제교육 중심지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문화적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여, 동아시아 교육허브(East Asia Hub of Education, Gyeonggi)를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교육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개국 15개 지역 간 국제교류협력사업과 18개 국과 벌이고 있는 우호(경제)협력 체력을 통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중국 내 랴오닝성, 광둥성, 허베이성, 텐진시, 장쑤성, 산둥성 등 각 성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평화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됨.
- 따라서 한·중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동북아 문화 및 역사의 이해 증진을 위한 인식을 조성함.
- 한·중 청년 간 역사 이해를 통한 평화의식의 제고를 실행하고 이를 통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마련함.

□ 경기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산업 인재 양성 방안 마련

- 한·중 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 중국 무역 및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산업인재 양성.
- 경기도 및 대학 간 협력을 통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중국 마케팅 및 산업체 전문인력 충원에 구체적인 중국 유학생 활용 방안마련.
- 중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 및 운영 원칙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경기도 산업체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유학생의 참여 및 산업체 관련 전공과목의 개설, 지역 산업에 맞는 프로그램의 현지화, 산업체 간의 협력 등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
- 산·학·연·관이 포함되는 클러스터 개념의 조인트 캠퍼스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심천가상대학원(深圳虚拟大学园)’ 모델과 유사한 넥스트 판교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산·학·연·관이 연계된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나. 실천 과제의 추출

1) 한·중 교류확대

- 경기도의 ‘환황해권의 중심(Hub of Yellow Sea Rim)의 역할’ 과 ‘더불어 사는 사회(Smart Life)’ 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을 기반으로 한 문화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중 교류확대를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 수립 및 방안 제시를 통한 과제 추출.

2)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산학연 생태계를 활용하여 한·중 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넥스트 판교의 글로벌화 및 중국 비즈니스 실현을 위한 과제 추출.

3) 한·중 유학생 지원 체제 개발

- 한국 유학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내 중국 유학생의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토털 앱 솔루션 개발을 통한 경기도 유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추출.

4)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 인재 양성

- 경기도 산업 활성화와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추출.

5) 한·중 대학교류 확대 방안

- 기존의 경기도와 중국 간에 이루어져 왔던 교육교류활동의 획기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천 과제 추출.

〈표 6-1〉 실천과제와 실천영역

실천과제	실천과제 세부 영역
한중 교류확대	교육교류기금
	대학표준화 작업
	가상 대학원 설립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중국대학 연구소 및 사무소 유치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한중 비즈니스 센터 운영
	경기도-광동성 및 산둥성 간 무크 프로그램 개발
한중 유학생 지원 체제 개발	앱 솔루션 개발
	국제교류센터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 인재 양성	산업 분야별 인력 수요 파악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국 유학생의 경기도내 중소기업 진출
한중 대학교류 확대 방안	교류활동 컨트롤타워 프로그램의 개발
	서머스쿨 프로그램의 활성화
	대학생 포럼 개최
	대학생 유학박람회
	경기도 판교 · 산둥성 지난 MICE 연계 방안 모색

2. 경기도와 중국 대학 간 교류협력을 위한 실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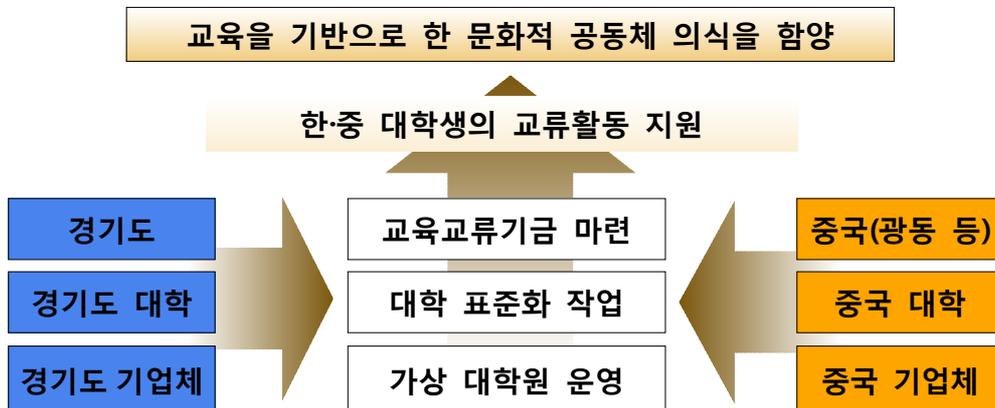
가. 한·중 교류확대

1) 목적

- 경기도의 ‘환황해권의 중심(Hub of Yellow Sea Rim)의 역할’ 과 ‘더불어 사는 사회(Smart Life)’ 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을 기반으로 한 문화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둬.
- 한·중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동북아 문화 및 역사의 이해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둬.
- 한·중 교류확대에 대한 실천 가능한 정책수립과 방안 제시에 목적을 둬.

2) 운영방침 및 운영 모형

- 한·중 교류확대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교류기금을 마련하여 한·중 교육교류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교류확대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대학교육과정의 표준화와 같은 한·중 간의 제도적 장치 및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함.
- 한·중 교류확대를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광둥성·산둥성 간의 기존 교류 활동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짓고 이를 중심으로 실현 방안을 모색함.
- 한·중 대학 간의 교류 차원을 넘어서 산·학·연·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상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축방안을 모색함.



<그림 6-1> 한·중 교류확대 모형

3) 운영내용

□ 한·중 교육교류기금 마련 및 지원

- 규모: 100억 원
- 방법: 매년 10억 원씩 향후 5년간 양 국가별 50:50의 비중으로 지방정부재정 투입
(양국 기업체의 기부액 포함)
- 용도: 교육교류 참여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현지 정착자금 지원.
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 대상: 경기도 및 광둥 및 산둥성 내 대학생과 고등학생 50명
 - 교육교류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교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의 연계 및 가시적 성과 창출 기대.
 - 1인당 연간 1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통하여 충분한 교류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현재 교육부의 해외인턴십 활동의 경우 1인당 약 8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학 표준화 작업을 위한 예산 지원: 연 2억원(3년 간 지원)
 - 심포지엄, 학술대회, 한·중 학생 문화행사 등 교육교류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 3억 원

□ 대학 표준화 작업

- 내용: 경기도 대학 및 광둥 및 산둥성 대학의 교육과정 표준화에 대한 양국 교수 및 교육과정 전문가의 간담회, 심포지엄, 협의회 등을 통한 분야별 표준화 작업 수행.
- 예산: 연 2억원(3년 간)
- 분야
 - 1년차: 인문사회 계열 교육과정 표준화 작업
 - 2년차: 이공계 계열 교육과정 표준화 작업
 - 3년차: 예체능 계열 교육과정 표준화 작업
- 절차
 - 참여 희망 대학 선발 및 표준화 작업을 위한 사전조사
 - 표준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 보고

□ 가상 대학원 설립

- 내용: 경기도 무크 사업의 연장으로 경기도와 광동 및 산동성의 산학연 공동의 요구분석을 통하여 산업인재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분야의 대학원 설립.
- 예산: 약 12억원(3년 간)
 - 교육과정 개발 및 양국 간 표준 사이버 강의 개설
 - 대학원 운영을 위한 기초시설 투자 및 운영비

4) 소요예산

<표 6-2> 한·중 교류 연간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교류학생 장학금	50명 * 10	500	
교류프로그램 운영(인건비)	2명 * 3 * 12개월	72	전담인력
교류프로그램 운영(운영비)	2회 * 40 2회 * 20	120	현지 출장 행사비
교류학생 장학금 및 프로그램 세미나		8	
소계		700	
대학표준화(인건비)	4명 * 4 * 8개월	128	3년 소요
대학표준화(운영비)	4회 * 8	32	현지 출장 등
대학표준화(운영비)	2개월 * 2	24	기타 운영비
대학표준화 한중세미나	1회 * 16	16	
소계		200	
가상대학원 설립(사이버강의)	15개 전공 * 30	450	3년 소요
가상대학원 LMS(시스템) 구축	1 set * 300	300	3년 소요
가상대학원 관리 및 운영(인건비)	5명 * 4 * 12개월	240	매년 소요
가상대학원 관리 및 운영(운영비)	12개월 * 15	180	
가상대학원 관련 세미나	2회 * 15	30	
소계		1,200	
총액		2,100	

5) 기대효과

- 환황해권의 중심 지역으로 교육에서 차별 없는 경기도의 정책 목표 실현.
- 한·중 간 교육교류에 대한 활동 확대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공동체의 가치와 의미 실현.
- 경기도와 광동 및 산동성의 대학 간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하여 필요한 분야의 교육

교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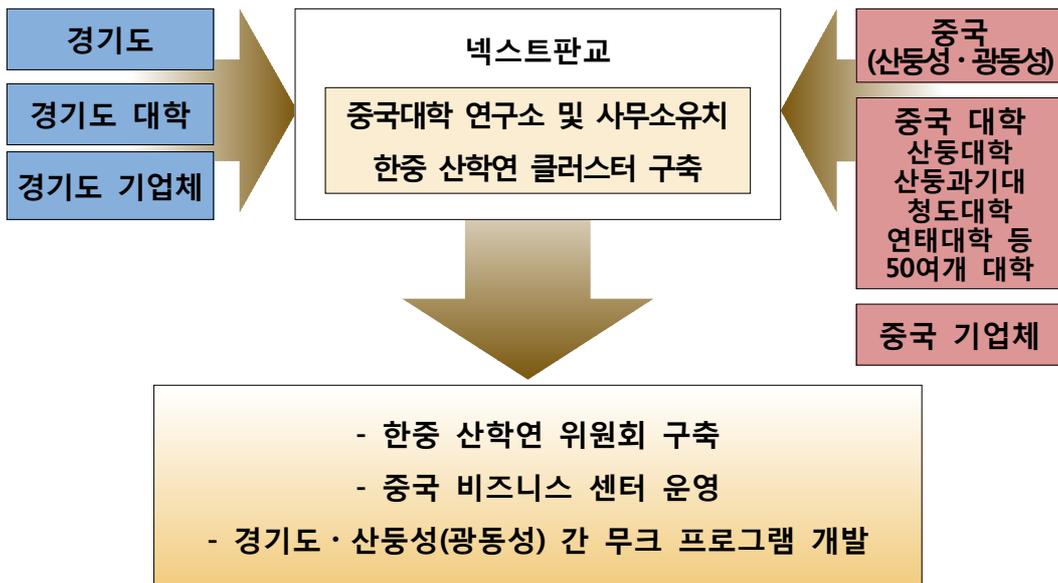
- 21세기 신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크로의 연계 및 전환 가능.

나.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1) 목적

- 산학연 생태계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중 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둠.
- 창조경제벨리(넥스트판교) 조성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둠.
- 경기도 대학, 기업, 학생의 스타트업 및 글로벌 비즈니스 실현을 위한 인큐베이팅 허브 구축에 목적을 둠.

2) 운영방침 및 운영 모형



<그림 6-2>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모형

- 창조경제벨리(넥스트판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700여개 첨단기업이 집적되어 11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를 배경으로 중국 시장 및 대학과의 협업을 위한 차이나 비즈니스 센터 설립.

- 한국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및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큐베팅 시설 내에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방안 마련.
- 중국의 해외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연계 프로그램에 관한 성공사례의 벤치마킹.
- 가상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한 무크 사업의 활성화.

3) 운영내용

□ 중국 비즈니스 센터의 구축

- 방법: 넥스트판교 내 일부 공간에 중국 비즈니스 센터 구축
- 구성: 광둥 및 산둥성 내 유명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및 사무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
 - 광둥성 심천가상대학원과 베이징 중관촌 벤치마킹.
 - 중국 비즈니스 센터 입주 연구소 및 사무소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 운영방안
 - 중국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계 여러 대학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한편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존에는 외국의 유명 학과를 국내에 유치하고자 할 때, 주로 기관 단위의 유치만 이루어 졌으나(고등 외국교육기관으로 설립),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 단위로도 국내에 들어와 지역사회와 국내 산·학·연에 기여하게 하는 방안임.

□ 경기도와 광둥 및 산둥성 중심의 무크 프로그램 개발

- 개발방향
 - 경기도와 광둥 및 산둥성이 협력하여 무료 교육프로그램인 무크(mooc)⁵²⁾ 사업의 방향과

52) '무크(MOOC, 온라인 공개강좌)'는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 (Open), 웹 기반으로(Online) 정의된 학습 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말함.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 대학의 우수한 강의 콘텐츠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방식이며,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세계 석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음.

미국은 현재 하버드대·매사추세츠대(MIT) 등 세계적 대학들이 무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무크 플랫폼으로는 에드엑스(edX), 코세라, 유다시티(Udacity) 등을 들 수 있음. 무크에 강의를 제공하는 미국 내 대학은 2015년 현재 400여 개, 등록된 강의 수는 올 하반기에 2400개에 달할 것으로 보임.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코세라'의 사용자는 1000만 명이 넘고 하버드와 MIT가 함께 만든 '에드엑

원칙을 공유함.

- 양국에서 참여하여 양지역의 특성과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교육대상 설정, 평생교육 과정 운영 여부 등 광범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각 기관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 및 관리함.

○ 개발내용

- 대 중국 비즈니스를 위한 중국어,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이해, 중국 IT, BT 산업분야, 경제관련 행정, 법률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 등.
-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요구하는 가상대학원 교육과정으로 개발.

4) 소요예산

○ 중국 비즈니스 센터: 약 25억 원

- 중국 비즈니스 센터 운영(운영관리 10억, 인큐베이팅 등 프로그램 운영 15억 원)

<표 6-3> 한중 비즈니스 센터 운영 연간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비즈니스 센터 운영(인건비)	1명 * 7 * 12개월	84	책임급
비즈니스 센터 운영(인건비)	3명 * 6 * 12개월	216	관리직
비즈니스 센터 운영(인건비)	6명 * 4 * 12개월	288	현장관리직
비즈니스 센터 운영(유지관리비)	30*12개월	360	
비즈니스 센터 운영(기타)		52	
소계		1,000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40*20개 item	800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관리	30*20개 센터	600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홍보 및 행사비	3회*30	90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기타비)		10	
소계		1,500	
총액		2,500	

5) 기대효과

- 창조경제밸리(넥스트판교) 입주기업과 중국 비즈니스 센터가 연계하여 원활한 인재 수요와 공급을 위한 허브를 형성할 수 있음.
 - 창조경제밸리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및 R&D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가상인재모형 구축.

스' 역시 300만 명이 넘고 있음.

- 입주업체 간 공통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기업별로 요구되는 전문분야의 역량에 대한 맞춤형 인재개발 프로그램의 구축.
-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 양성의 허브로써 위상 확립.
- 한·중 비즈니스 및 R&D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함.
 - 한·중 비즈니스 전문가 인재양성 모형 개발.
 - 한·중 대학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추진 및 수행.
 - 한·중 대학 간 인재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수행.
 - 한·중 대학 및 기업의 공동협업을 통한 가상인재양성모형 개발.
 - 가상인재양성모형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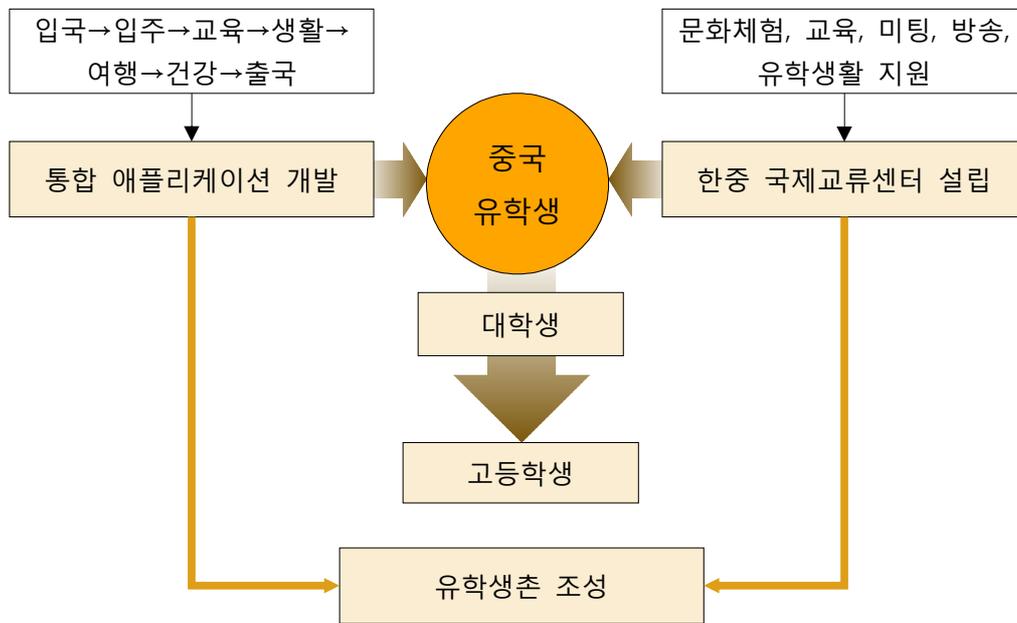
다. 한중 유학생 지원 체제 개발

1) 목적

- 한국적 특성을 살린 유학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하고 편리한 정책 마련.
- 경기도 내 중국 유학생의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토달 솔루션 개발.
- 향후 고등학교 유학생의 경기도 유학 비중 확대를 위한 경기도만의 유학생 친화적인 플랫폼 구축.

2) 운영방침 및 운영 모형

- 경기도 중국 유학생의 현지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입국에서 입주, 수강신청, 동아리 활동, 여행, 맛집, 생활편의, 인턴십, 건강관리, 출국, 출국 후 교류, 취업알선 등과 관련한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토달 솔루션 개발.
- 경기도·중국대학 간 교류협력 협약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제공.
 - 한·중 대학 간 요구분석을 통한 원활한 교류방안 및 교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틀을 마련하여 제도적 장치에 기반한 방안의 현장 적용이 가능해야 함.



<그림 6-3> 한중 유학생 지원체제 개발

3) 운영내용

□ 중국 유학생 및 양국 경제교류 청년단을 위한 통합 앱 솔루션 개발

- 규모: 약 2억원
- 방법
 - 양국 교류를 위한 현지 유학생의 요구 및 이해관계 조사 및 분석.
 - 입국 전, 입국 후 학업수행, 인턴, 취업알선, 출국, 출국 후 네트워크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 내용
 - 현재 국내 유학생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취업 등으로 나타남.

예시) 유학절차 제공: 유학 정보 제공 → 학교 정보 → 입학허가 → 입국수속 → 유학수속 → 입학수속 → 수업시작 → 학점이수
 현지생활 정보제공: 입국수속, 생활비, 물가, 학비, 아르바이트, 장학금, 수속, 보험, 보증인, 졸업 후 취업, 인턴십, 문화체험, 맛집 정보, 숙소안내 등

- 경기도 및 중국 지방 정부의 입출국 및 정주, 생활편의 등에 대한 정보 구축
- 경기도 내 대학 및 중국 대학의 캠퍼스 정보(강좌현황, 수강신청, 학위취득, 기숙사신청, 은행 계좌 개설, 보험가입, 신변보장, 취업제도의 안내, 졸업 후 진로, 기업체 연계 프

그램 등)의 구축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의 창구로 활용.

- 기업체와 연결하여 자체 수익모델 구축으로 자가 운영이 가능한 솔루션 개발

□ 한·중 국제교류센터 설립

- 규모: 약 50억원
- 내용
 - 한·중 유학생촌 설립 전 형태로 유학생할 전반에 관한 지원활동 및 교류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 미팅, 방송, 취업알선, 인턴, 문화체험, 개별 상담 등의 공간 및 환경조성.

□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의 개발

- 규모: 약 1억원
- 내용
 - 경기도 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 입학비율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 규정에 대한 사전 점검.
 - 광동 및 산동성 내 중국 고등학교 한국어과 학생을 중심으로 학급단위의 유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 광동 및 산동성 내 고등학교 유학생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박람회 개최.
 - 경기도 내 고등학교 유학생 규정(학교별 입학요강 및 규정) 개정을 통하여 고등학생 유학생 유입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확립.
 - 합리적 기숙사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4) 소요예산

- 통합 앱 솔루션 개발: 약 2억원
- 한·중 국제교류센터 설립: 약 50억원
-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개발: 약 1억원

〈표 6-4〉 한중 유학생 지원체제 개발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통합 앱 솔루션 개발(인건비)	1명 * 7 * 6개월	42	고급개발자
통합 앱 솔루션 개발(인건비)	3명 * 5 * 6개월	90	중급개발자
통합 앱 솔루션 개발(인건비)	3명 * 5 * 3개월	45	현장 서베이
통합 앱 솔루션 개발(운영비)		23	
소계		200	
고등학교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100	
소계		100	
총액		300	

5) 기대효과

- 한·중 대학 간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의 유효성 제고
 - 한·중 대학 간 선행 요구분석⁵³⁾을 통하여 통합 앱의 제공과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이 연계성을 가지고 교류협력의 질적 제고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
-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함
 - 2018년 예상되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중국과의 조기 교류에 대응하여 미래의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2016년 현재 중3 학생의 고교 진학 인구의 감소에 따른 유휴 학급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진학 경로 확대를 통한 진학률 제고와 평생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 향후 유학생촌의 설립에 대한 기반 마련은 물론, 교류협력의 체질 개선에도 유익할 것으로 보임.

라.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 인재 양성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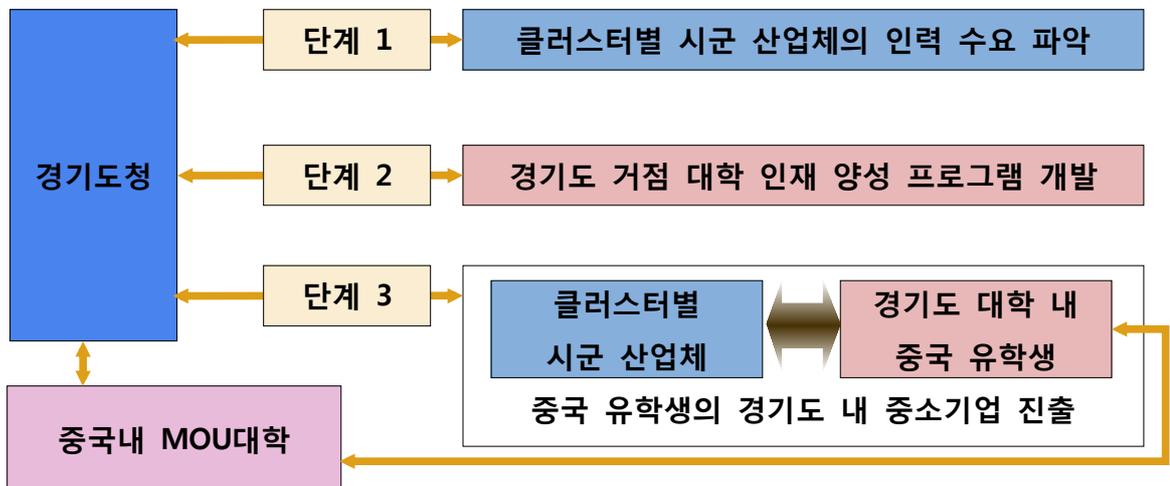
- 경기도의 산업 활성화와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을 둬.

53) 국립국제교육원(2014)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학교 간 협약 > 지인 추천 > 전공 강점 > 입학 용이 > 학비 저렴” 순으로 양국 대학 간 교류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 나타남.

-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생태계는 내국인과 내수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 향후 글로벌 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어우러져 자유롭게 창업·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
- 따라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대 중국 산업인재의 양성을 통해 글로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운영방침 및 운영 모형

- 대 중국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양성 모형에 대한 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수행하여야 함.



<그림 6-4>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인재 양성 모형

- 단계별로 살펴보면,
 - 첫째, 산업분야별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 둘째,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 셋째, 클러스터별 중소기업 산업체와 경기도 내 중국 유학생의 중소기업 진출을 모색함.

3) 운영내용

-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클러스터별 산업체의 분야별 인력의 요구 분석 및 경기 지역별 거점 대학과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모색.
 - 경기도의 보유 DB분석 및 현지조사를 통한 산업인력수요 관련 정보 구축

- 지역 내 거점대학과의 산업인력 수요분야에 대한 정보 교류
 - 중국 대학과의 교류 학점 인정 기준 마련과 시행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
 - 중국 유학생의 경기도 내 산업체 취업 및 인턴 등 일자리 제공으로 유학생과 산업체의 win-win 체제 구축
- 이미 거주 중인 5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활용,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 및 Born Global 창업가로 육성하는 방안 마련.
 - 중국 유학생의 국내 산업체 인력지원 방안 활용
 - 지역 내 뿌리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고용계약 체결 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 허용(유학자격, D-2 → 특정활동자격, E-7)
 -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중국지역 마케팅 전문가 양성(내국인 및 유학생)
 -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 안내 기능 확대
 -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산업체 산업인력 공급을 위한 MOU 체결
 - 재학 중 인턴십, 아르바이트를 통한 한국산업체 기초훈련과정 개설
 - 졸업 후 다국적 기업 취업 경로 알선
 - 다국적 기업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해외취업기회 제공
 - 한중합작 및 국내 진입 해외기업체에 대한 취업기회 알선(경기도 내 산업단지 및 산업체와의 지리적 접근성 탁월)
 - 다국적 기업 인턴제를 통한 졸업 전 사전 취업기회 확보
 - 졸업 후 사후관리 방안(네트워크, 소속감, 유대감 매개 모색)
 - 졸업 유학생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인력DB 구축 및 글로벌 인적자원 역량 확대
 - 지리적 입지를 활용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 중국 비즈니스 센터와 연계한 경기도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경기도 및 중국 산업체 간 연구과제 수행과 한·중 간 이공계 전문연구 인력 양성.
-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업 모형 개발.

4) 소요예산

- 산업 분야별 인력 수요 파악 및 프로그램 개발 : 약 3억 원(DB 구축 및 연동 프로그램 개발)
 - 경기도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간 수요인력 파악 및 DB구축
 - 클러스터별 수요인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약 10억 원
 - 클러스터별 10개 특정분야 프로그램 운영

〈표 6-5〉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인재 양성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산업 분야별 인력 수요 파악(인건비)	2명 * 6 * 6개월	72	
산업 분야별 인력 수요 파악(운영비)		28	
소계		100	
DB 구축 및 연동 프로그램 개발(인건비)	1명 * 7 * 6개월	42	고급개발자
DB 구축 및 연동 프로그램 개발(인건비)	3명 * 5 * 6개월	90	중급개발자
DB 구축 및 연동 프로그램 개발(인건비)	3명 * 5 * 3개월	45	현장 서베이
통합 앱 솔루션 개발(운영비)		23	
소계		200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50*10개 클러스터	500	매년 소요
클러스터별 운영 관리	40*10개 센터	400	매년 소요
클러스터 프로그램 홍보 및 행사비	3회*30	90	매년 소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기타비)		10	매년 소요
소계		1,000	
총액		1,300	

5) 기대효과

- 대 중국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기도 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중국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및 글로벌 창업 환경의 조성으로 경기도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경기도 내 대학생을 위한 산업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인적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산업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기도·광동 및 산동성의 대학 표준화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유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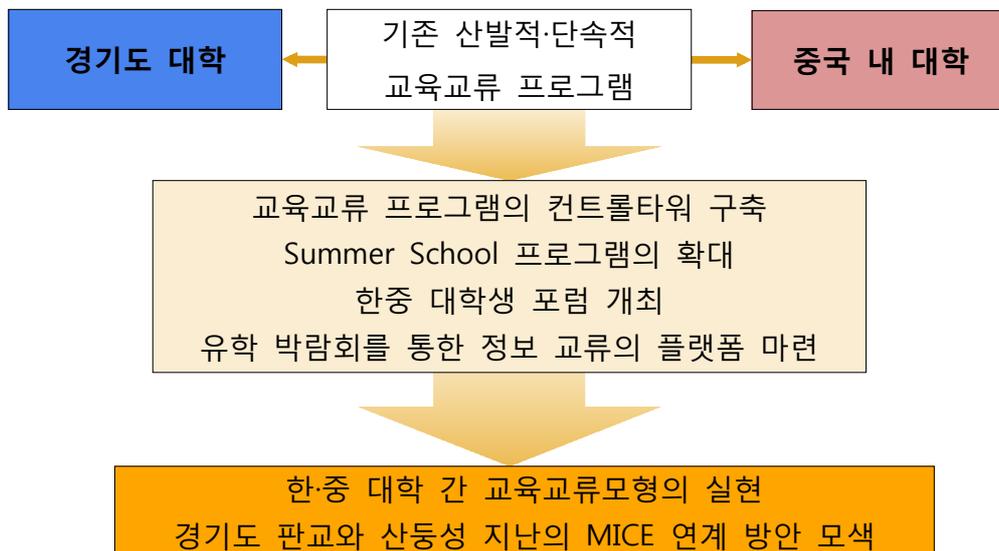
마. 한중 대학교류 확대 방안

1) 목적

- 기존의 서머스쿨과 같이 경기도와 중국 간에 이루어져 왔던 교육교류 활동을 구체화하고 내실화 하는데 목적을 둠.
- 현재 형식적을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 대학 간의 교류활동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 구체적인 범위를 경기도·광둥 및 산둥성 대학 간 교류학점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양국 대학생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추동하는데 목적을 둠.

2) 운영방침 및 운영 모형

-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산발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누구나 다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체계화.
- 서머스쿨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서머스쿨 운영 모형 개발.
- 한중 대학생 포럼 등 양국 간의 정례 행사를 마련하여 교육수요자의 관심 및 참여 확대.
- 교육 수요자, 공급자, 매개자가 모두 참여하는 유학박람회를 개최하여 양국 교육 주체 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넥스트 판교와 산둥성 지난(濟南)의 MICE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림 6-5> 한·중 대학 간 교류 모형

3) 운영내용

□ 한·중 대학 간 교류학점 인정 기준 마련

- 경기도와 광둥성·산둥성 등 대학생의 이해와 요구를 분석하여 각 대학 간 교류학점 인정 기준 마련.
- 자연과학계 및 공학계 교류학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양국의 우수한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인문사회계 및 예체능계 교류 학점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양국 간의 문화, 역사에 대한 우호적 이해와 융복합적 산업 기반 마련.

□ 한·중 대학 간 교류활동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경기도·중국 대학 간 교류활동 우수 프로그램 개발.
- 교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 제시.

□ 경기도·중국 대학 간 Summer School 프로그램의 정착 및 확산

- 현재 양국에서 20명씩 참여하는 서머스쿨 프로그램의 표준화 작업 요청.
- 동일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홈스테이 및 대학기숙사를 활용한 참여지역 및 인력 확대.
- 서머스쿨 참여 학생의 DB구축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경기도·중국 대학 간 교류 활동 및 넥스트 판교 중국 비즈니스 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

□ 경기도·중국 대학 간 대학생 포럼 및 유학박람회 개최

- 경기도와 중국 대학 간 정기적인 대학생 포럼 활동 개최.
- 대학생 포럼 활동을 위한 정례적인 행사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참여 유도.
- 양국 대학 및 지역 산업체가 함께하는 유학박람회 개최.
- 수요자, 공급자, 매개자가 모두 참여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학박람회를 통해 각 주체 간 신뢰 관계 구축.

4) 소요예산

- 한·중 대학 간 교류활동 컨트롤타워 프로그램 개발: 약 2억원.
 - 기존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DB 구축 및 문제점 파악
 -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구축
 - 교류활동 표준화 및 성과평가지표 구축
- 한·중 서머스쿨 프로그램 활성화: 약 3억원
 - 경기도·광동성 간 서머스쿨 예산: 2억원 + 산동성 서머스쿨 1억원
 - 동일 프로그램의 효율화 및 자가복제형 확산 모형 모색
- 한·중 대학생 포럼 개최: 약 1억원
 - 경기도·중국 대학 간 대학생 포럼 개최(경기도와 중국 대학 격년제)
 - 차기년도 주제와 프로그램 공지 후 준비 및 지원
- 한·중 대학생 유학박람회: 약 3억원
 - 장소 및 기간(경기도 고양 신텍스, 3박 4일)
 - 50개 대학(50개 부스 × 100만원 × 4일 = 2억 원)
 - 유학박람회 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

〈표 6-6〉 한중 교류확대방안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DB 구축(인건비)	2명 * 6 * 6개월	72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DB 구축(운영비)		28	
교류활동 표준화 및 성과평가지표 구축(인건비)	2명 * 6 * 6개월	72	
교류활동 표준화 및 성과평가지표 구축(운영비)		28	
소계		200	
한·중 서머스쿨 프로그램(광동성)		200	기존 예산
한·중 서머스쿨 프로그램(산동성)		100	추가 예산
소계		300	
한·중 대학생 포럼 개최	2회 * 50	100	
한·중 대학생 유학박람회	50개 부스* 1*4일	200	
한·중 대학생 유학박람회 운영비	50개 부스* 2	100	
소계		400	
총액		900	

5) 기대효과

- 산발적 대 중국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기도 내 대학들의

참여확대 및 기회 제공

- 서머스쿨의 표준화 및 개방화를 통하여 경기도 대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경기도 내 기업의 관심 유도)
- 대학생 포럼의 정례화를 통하여 대 중국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포괄적 홍보기회 마련(참여 학생을 중국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한·중 유학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유학 관련 실제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합 애플리케이션, 한중 국제교류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

<표 6-7> 한·중 대학 간 교류활동을 위한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 원

실천과제	실천과제 세부 영역	금액	
		장기	단기
한중 교류확대	교육교류기금	10,000	
	교류장학금 및 프로그램 운영		700
	대학표준화		200
	가상대학원 설립 및 운영		1,200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중국 비즈니스 센터 운영		1,000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1,500
한중 유학생 지원 체계 개발	한·중 유학생촌 설립	5,000	
	통합 앱 솔루션 개발		200
	고등학교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100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인재 양성	산업 분야별 인력 수요 파악		100
	DB 구축 및 연동 프로그램 개발		200
	클러스터별 운영 관리		1,000
한중 교류확대방안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DB		200
	한·중 서머스쿨 프로그램		300
	한·중 대학생 유학박람회 운영비		400
	총액	15,000	
		40,100	

<표 6-8> 한·중 대학 간 교류활동을 위한 실천과제별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 원/연간

실천과제	실천과제 세부 영역	세부프로그램		소계
한중 교류확대	교육교류기금	교류학생 장학금	500	700
		교류프로그램 운영(인건비)	72	
		교류프로그램 운영(운영비)	120	
		교류학생 장학금 및 프로그램 세미나	8	
	대학표준화	대학표준화(인건비)	128	200

실천과제	실천과제 세부 영역	세부프로그램		소계
		대학표준화(운영비) 현지 출장 등	32	1,200
		대학표준화(운영비) 기타 운영비	24	
		대학표준화 한중세미나	16	
	가상대학원 설립	가상대학원 설립(사이버강의)	450	
		가상대학원 LMS(시스템) 구축	300	
		가상대학원 관리 및 운영(인건비)	240	
		가상대학원 관리 및 운영(운영비)	180	
		가상대학원 관련 세미나	30	
소계				2,100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비즈니스 센터 운영	비즈니스 센터 운영(인건비) 책임금	84	1,000
		비즈니스 센터 운영(인건비) 관리직	216	
		비즈니스 센터 운영(인건비) 현장관리직	288	
		비즈니스 센터 운영(유지관리비)	360	
		비즈니스 센터 운영(기타)	52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800	1,500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관리	600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홍보 및 행사비	90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기타비)	10	
소계				2,500
한중 유학생 지원 체제 개발	통합 앱 솔루션 개발	통합 앱 솔루션 개발(인건비) 고급개발자	42	200
		통합 앱 솔루션 개발(인건비) 중급개발자	90	
		통합 앱 솔루션 개발(인건비) 현장 서베이	45	
		통합 앱 솔루션 개발(운영비)	23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개발	100	100	
소계				300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 인재 양성	산업 분야별 인력 수요 파악	산업 분야별 인력 수요 파악(인건비)	72	100
		산업 분야별 인력 수요 파악(운영비)	28	
	통합 앱 솔루션개발	DB 구축 및 연동 프로그램 개발(인건비) 고	42	200
		DB 구축 및 연동 프로그램 개발(인건비)	90	
		DB 구축 및 연동 프로그램 개발(인건비)	45	
		연동 프로그램 운영비	23	
	클러스터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500	1,000
		클러스터별 운영 관리	400	
		클러스터 프로그램 홍보 및 행사비	90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기타비)	10	
소계				1,300
한중 교류확대방안	교류활동 프로그램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DB 구축(인건비)	72	200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DB 구축(운영비)	28	
		교류활동 표준화 및 성과평가지표 구축(인건비)	72	
		교류활동 표준화 및 성과평가지표 구축(운영비)	28	

실천과제	실천과제 세부 영역	세부프로그램		소계
	통합 앱 솔루션개발	한·중 서머스쿨 프로그램(광동성)	200	300
		한·중 서머스쿨 프로그램(산동성)	100	
	포럼 및 유학박람회 개최	한·중 대학생 포럼 개최	100	400
		한·중 대학생 유학박람회	200	
		한·중 대학생 유학박람회 운영비	100	
	소계			
총계				7,100

VII. 정책 제언

- 본 정책 제언은 정책의 기저에 기초하여 현재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3가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및 5가지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는 제언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음.
- 첫째, 정책 제언의 기저는 경기도의 교류협력 정책과 방안이 실현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종합하였음.
- 둘째, 3가지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은 3가지 구체적인 사업이 단기,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고려사항 및 보완할 점을 제시하였음.
- 셋째, 4장에서 기술한 5가지 아젠다를 위한 제언은 각 아젠다가 실현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과 조언을 제언하고자 했음.



<그림 7-1> 정책 제언의 구성

1. 정책 제언의 기저

-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세계의 대학생들이 유학 가고 싶은 나라로 성장하고 있음.
- 이를 일종의 코리안 드림 현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증가를 역시 높아지고 있음.

- 단순한 숫치만 살펴보다라도 1980년 1,015명에 불과하던 외국 유학생 수가 2015년에는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외국 유학생 중 약 58%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편중되어 있으며,⁵⁴⁾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중국 유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중앙일보와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는 ‘외국 유학생 감소는 그간 외국 유학생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 한류 열풍에 의지한 소극적 정책, 대학의 부실한 관리로 한국 유학시장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 고 발표한 바 있음.⁵⁵⁾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경기도가 중국과의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그 강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타당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과거 정책 수립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제 협력 강화나 관련 프로그램은 구호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함.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의 기저는 다음과 같음.



〈그림 7-2〉 정책 제언의 기저

54) 문성주(2013),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 만 명 졸업생 중 1%뿐

55) 신경진(2013), 양보다 질... 관리 내실화로 ‘코리아 패싱’ 돌파

가. 경기도·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유치정책 마련

□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대표적인 예로, 2013년부터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협정 체결로 현실적인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하였음.

- 이러한 점은 경기도가 아직까지 코리아 패싱 현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며, 교류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함.
- 다만, 그동안의 협력관계의 내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공감할만한 경기도 차원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인 ‘계획생육(計劃生育)’을 개정하여 두 자녀 출산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교육열과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한류로 이미지가 제고되어 있는 한국과 특성화된 대학이 다수 위치해 있는 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
- 결국 현장의 대학이 주체로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것이 그만큼 경기도 차원의 특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함.
- 향후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역 간, 대학 간의 효율성을 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저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

□ 교육부는 ‘외국 유학생 인증제도⁵⁶⁾’를 도입하여 2011년부터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단, 아직도 많은 대학은 양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학업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을 관용적으로 입학시키고 있음.
- 이러한 점은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들도 예외는 아니며, 내실 있는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임.

□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의 대학들이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56) 외국 유학생 인증제는 교육부가 2011년부터 인증평가 기준에 의하여,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우수 대학은 장려하는 제도임.

데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 점을 파악하여 질적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가 중국 유학생 유치의 선순환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실시 및 우수 유학생 배출, 취업과의 연계 등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개되어야 함.
- 정책적으로 다른 시도가 아닌 경기도에서의 유학이 유학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임.

나. 협력 강화의 목표를 명료화

□ 국내 대학 간 협력 및 교류 사업은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음. 즉, 경기도 차원에서도 우호를 증진, 경제적 수익 창출, 고등인력 배출, 취업시장 확대, 지역의 교육기관의 경쟁과 성장 등 다양한 목표 중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모호한 것이 사실임.

- 협력 기관인 대학의 협력 목표 역시 평가 준비의 일환, 국제화 사업 추진, 학생 충원률 제고, 해외 수익사업 확대 등 다양하나 명확하지 않음.
- 물론 경기도에 유학하고자 하는 중국인의 이해와 요구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두 가지 축을 고려할 필요함. 즉, 협력 강화를 통한 경기도의 비전 제시와 국제화를 통한 가시적인 수익구조 확립임.

□ 과거 국내의 대학들은 평가지표에 대비하거나 충원률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했기 때문에 목표 의식의 결여로 인한 왜곡이 나타나기도 했음.

- 다시 말해, 유치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과정, 생활지도, 학사관리, 교육의 질 등의 측면에서 부실할 수 있었다는 의미임.
- 이러한 문제는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강화를 위한 구조와 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함.
- 또한 협력강화의 주체인 대학의 이해와 정부 기관의 사업추진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대학 간 협력강화의 다양한 목표와 입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수렴에 기초하여, 경기도 자체적으로 대학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정책 마련을 위한 기저라고 할 수 있음.

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지역 특성화 정책

- 경기도와 중국 대학 간의 협력강화도 중요하지만 협력강화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성화가 가능해야 함.
 - 대학 간 협력강화는 자연스럽게 우수한 유학생 인력의 배출은 물론, 경기도와 중국 간 특성화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 이점을 인지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문어발식 사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한 정책의 기저가 요청될 것임.

- 경기도와 중국의 산동성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지속해 왔음. 이에 우호관계를 통해 맺어진 두 지역은 이제 특성화된 사업과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산동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산업 현황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이 맞물려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경기도의 문화예술, 특히 영상예술 분야의 우수성이 산동성의 매체제작 및 영상기술교육의 수요와 융합된다면 특성화의 원칙에 따라 호혜의 사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만약 중장기적으로 특성화보다는 자율화, 보편화 정책이 필요하다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2가지의 특성화 아이템이 성공한 후 사업의 다각화와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협력강화를 위한 경기도만의 특성화 분야를 개발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평가인증제 정도에 그쳤던 과거의 관리모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산동성의 대학 간 유치, 관리, 졸업, 취업의 전 과정이 특성화의 맥락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기저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라. 대학별 특화된 협력강화 모형을 위한 정책 지원

- 우리나라의 대학 간 협력강화를 위한 모형은 다양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이점은 대부분 대학의 유치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임.
 - 단순한 협력 모형은 단기적, 행정적으로 편리하며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졸업 후의 진로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처 불능 등 다양하면서도 타당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여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경기도와 경기도의 대학은 다양한 모형으로 중국의 대학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강화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대상 국가인 중국은 대학의 특징 및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협력 모형을 구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화교중심의 협력강화 대학, 중국어와 중국문화 중심의 유치 전략 대학, 학과 단위의 협력강화 지원 정책, 세계적인 학과나 학자 중심의 협력 과정 운영 등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역시 지역적 특성과 대학의 특성화 전공이 반영될 수 있는 협력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만의 특화된 협력강화 모형의 개발.
 - 예를 들어, 양국의 대학이 참여하여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 아시아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간호사, 어학 교사, 네일 아트, 영화영상, 피부관리사, 공연기획 등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함.
 - 이외에도 중국 내 한국어과 개설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연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준다면 협력강화를 통한 내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임.

마. 정책의 정교화 및 법적, 제도적 보완

- 중국은 대학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외국 유학생 유치에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유치 및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음.⁵⁷⁾
-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의 경제와 학문의 수준에 비해 양질의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 역시 강화되고 있음.

□ 경기도의 협력강화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보다 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인 사고란 새로운 시각을 배제하지 않고 대학 간의 협력 및 유치 아젠다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중국 유학생 학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장학제도, 경기도 내 대학의 국제화 지원정책, 유학 수요의 확대를 위한 중국 학생의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질 관리 및 성과의 가시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도달하는 것임
- 또한 대학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앙정부, 경기도와 유관 기관, 대학 별로 역할을 정립하여 각 역할에 맞는 정책 추진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협력 체제를 정교화 해야 할 것임.

□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만약 우리가 원칙과 규정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행정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면 법과 제도를 정교화 하여 다양한 사례에 유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함.
-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
- 무엇보다 경기도의 협력강화 정책이 각 대학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도 내의 대학이 공동운명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가 아니라 상호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지원책이라는 기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임.

바. 협력강화 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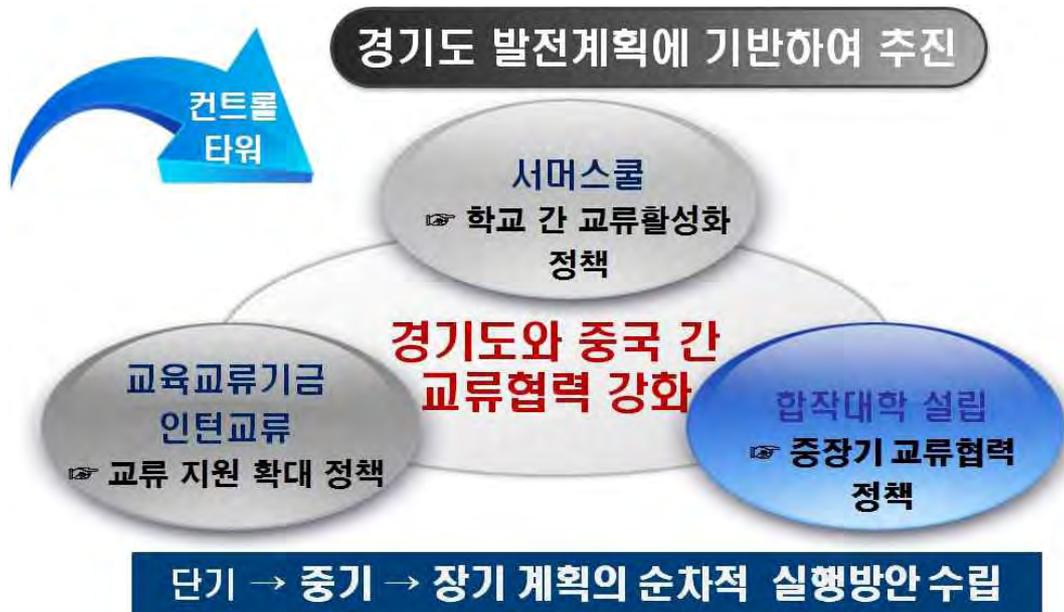
57) 구자익 외(2013).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 중국을 포함하여 외국에서는 400여개나 되는 한국대학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특히 경기도 내의 대학과 학과, 전공에 대한 국제적 수준이나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함.
 - 따라서 향후 경기도의 협력강화 정책은 도 내 대학의 교육과정, 캠퍼스 문화 및 인프라, 학비와 교수진, 진로의 연계성 등을 적극적인 홍보를 고려해야 할 시점임.

- 정책에 대한 기존의 홍보방식은 지역적으로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협조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을 취했음. 그러나 경기도와 중국의 대학과 대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경기도 내 대학을 안내하는 앱을 개발하거나 경기도의 관련 행사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영상 서비스(유튜브, SNS 등)를 제공하는 것임.
 - 특히 단순한 프로그램 안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학 간, 학생 간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번역 서비스나 식당정보, 관광 인프라, 우수 교직원 추천 등 미시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공간까지 할당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할만함.
 - 나아가서 취업포털이나 비자 관련 Q&A, 경기도의 국제협력 관련 활동성과, 취업 성공자 후기, 중국 내 한국어, 한류 관련 개설 대학 지원 등의 콘텐츠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2. 경기도·중국 대학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경기도에 국한하여 중국 대학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3가지로 제시하였음.
 -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과 고려 사항은 각 제언에 추가 설명하였음. 구체적으로 서머스쿨 운영, 교육교류 기금 마련 및 인턴교류 지원확대, 합작대학 설립은 현재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사업임.
 - 본격적인 사업의 각론은 추후 면밀한 대책이 필요함.



<그림 7-3> 경기도 중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가. 서머스쿨 교류방안을 통한 학교 간 교류활성화 정책

1) 서머스쿨 프로그램의 위상과 의미를 정책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언의 기저: 가, 나

□ 서머스쿨의 위상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인 대중국 교육교류사업을 위한 소규모의 시범 프로그램
- 40명 규모의 정예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에 기반하여 차기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 성공적인 대중국 교육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중국의 중장기적인 사업의 신뢰 문화 형성
- 서머스쿨 프로그램의 확산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모 있는 관련 사업의 청사진 제시

2) 서머스쿨 교류방안의 성공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인프라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정책 제언의 기저: 다, 마

□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양국의 이해와 요구를 조사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당사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경기도와 중국의 사업주체나 유관 기관은 물론 실무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정책적으로 수요도, 만족도, 이해도, 추진 후 Feed-Back 등이 가능하도록 정례화 하고,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요청됨.

□ 국내외에서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본격적인 사업의 신뢰성이 구축될 수 있음.

- 여름 성수기 서머스쿨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제공될 강의실, 식당, 숙소, 여가활동 관련 시설은 물론,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인력 등이 필수적임.
- 이러한 직·간접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 보완과 사업 기안 및 계획서, 예산 마련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임.
-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예측되는 저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양국의 비자문제(특히 미성년자)나 안전사고대책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청됨.

3) 서머스쿨 프로그램의 성과를 증폭할 수 있는 정책 기조 마련

→ 정책 제언의 기저: 바

□ 서머스쿨의 성과를 축으로 경기도의 국제화 관련 홍보 정책 수립

- 국내 방송, 언론, SNS, 웹, 앱 등을 망라하여 서머스쿨이 단순한 교육교류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와 중국 간의 우호증진 및 미래 인적자원 확보에 긍정적인 사업임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함.
- 중국과 주변국(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언어로 해당 국가의 지명도 높은 매체⁵⁸⁾를 통해 본 사업이 매력적임을 알릴 필요가 있음. 유인효과를 통한 프로그램의 확장성 추구.

58) 예를 들어, 중국의 Wechat이나 Baidu.

- 교육, 이벤트, 문화, 추억이 공유된 서머스쿨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유사 프로그램 추진 및 교육교류사업의 확대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 기관, 관광 인프라, 공연기획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함.

나. 교육교류기금 마련과 인턴교류 지원확대 정책

1) 기금 마련의 당위성 확보 및 예산 확보 방안의 다양화와 장기화

→ 정책 제언의 기저: 가, 나, 라

□ 교육교류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출처와 사용의 투명성에 기초하여야 함.

- 국가 간, 지역별, 기관 및 학교별 기금 조성의 논의 구조 마련.
- 타당한 기금의 규모를 설정하고 관리 및 담당 기구 구성.
- 기금을 통한 교육교류사업의 유용성과 시너지 효과 홍보를 통해 저해 요소 제거.
- 기금 출처와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 및 공시 방안 마련.

□ 예산 확보의 다양화와 장기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 마련.

- 경기도와 산동성은 물론,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기업, 대학, 단체 등과 연계.
- 도 내 기업의 세계혜택과 대학의 재정지원을 통한 펀드조성 유도 정책 강화.
- 기금 및 예산 확보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책⁵⁹⁾ 마련.

□ 기금 및 예산은 장기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야 함.

- 경기도와 산동성의 중장기 계획에 기금 및 예산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협정 및 조인을 해야 함.
- 중장기적 펀드 참여 주체에 대한 눈덩이 혜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자원, 성과, 노하우 등을 기금 및 예산 참여 주체가 우선적으로 수혜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해야 함.

59) 예를 들어, 명예의 전당, 기부자 명예의 센터나 강의실, 외국학생 유치를 원하는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등.

2)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조 마련

→ 정책 제언의 기저: 나, 마

□ 타당성 조사, 공청회, 예비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한 기금 활용방안의 기조 마련.

- 관련 위원회 구성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기금의 목적, 방법, 내용, 사례, Q&A 등을 망라하는 공증된 활용 방안을 명시해야 함.
- 신뢰를 바탕으로 기금 활용의 실무위원회나 사무국이 2년씩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핵심 분야에 집중된 인턴교류의 단계적 지원정책 마련

→ 정책 제언의 기저: 가, 다, 라

□ 경기도와 산동성의 핵심 분야에 대한 요구분석 및 연구조사 수행.

- 경기도와 산동성의 특수성과 산업현황에 기초한 요구분석을 통해 교류협력계획서 작성.
- 경기도와 산동성의 핵심 분야 즉, 바이오, IT, 문화예술, 농업 등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핵심 사업 발굴.
- 경기도 내에 핵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턴교류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및 협약 시스템 구축.
- 인턴교류가 도 내 취업률 향상과 산업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 가동.

□ 인턴교류의 단계적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음.

- 고용 펀드 조성 및 지원을 통한 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체류 인력의 편의 및 인프라 제공을 통한 심리적 접근성 향상.
- 산학연계 지원 방안을 통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공감대 형성과 유기적인 논의 구조 확보.
- 인턴십 이후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인턴교류 이후 재교육 시스템을 가동하여 교육 및 교류 주체의 업무능력 강화.

4) 인턴교류 활용 방안 강화 및 인적자원 교류 정책의 보완

→ 정책 제언의 기저: 가, 다, 라, 마

□ 교류, 모집, 양성, 배치, 지원, 피드백, 재교육 등 일련의 과정이 핵심 클러스터(판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국내는 물론 해외의 유형별 인턴교류 성공사례 수집 및 공유.
- 초기의 지원 및 유도책에서 점차 산업현장의 수요성 향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관련 정책 전환.
- 도와 산학연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T/F 팀 구성.

□ 인적자원 교류의 저해 요소 점검 및 법적, 제도적 보완.

- 관련 경험이 있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교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저해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저해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 법적, 제도적 종단 분석을 통해 경기도 내의 인적자원 교류가 활성화될 것인지 전망하여 재보완 함.

다. 합작대학 설립을 통한 경기도·중국 간 교육협력 정책

1) 대학설립의 목적과 경기도 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추진해야 함

→ 정책 제언의 기저: 라, 바

□ 경기도 내 대학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파악 및 조사.

- 송도, 제주 등의 지역에서 외국대학 유치 및 활성화가 미흡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수립이 필요함.
 - 대표적인 예로, 지역적 한계, 졸업 이후의 진로, 교육과정과 대학문화의 부조화, 예측이 불가능한 수요자의 요구, 홍보 및 커뮤니티의 제약 등을 들 수 있음
- 도 내 대학 관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청됨. 예를 들어 대학의 정원조정과 외국학생 유치의 저해요소 등을 파악하여 절충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대학설립을 추진할 때 기존의 유형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의 옴니버스 대학 설립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대학은 지역 내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대학설립은 도 내 대학과의 공조 형태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음.

2) 합작대학 설립을 통한 장기적 교육정책 제시 및 방안 마련

→ 정책 제언의 기저: 가, 나, 마

□ 합작대학이 갖는 의미는 물론, 대학 설립을 통한 장기적인 교육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합작대학의 교육비전은 단순한 인력양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산동성의 우호증진, 교육교류모델의 선진화, 지역기업 성장 및 경제성장 동력 확보, 산학연의 협력모델 개발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신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함.

□ 교육기관의 특수성인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여 정치적, 경제적, 지역적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책과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이나 관련 사업은 지속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경기도와 산동성의 신뢰 관계 형성을 고려한다면 합작대학은 할 수 있는 것만,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함.

3) 합작대학을 위한 경기도와 중국의 대학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정책 제언의 기저: 가, 다, 라

□ 컨트롤타워는 조정 및 지원 기관(팀)으로 경기도와 산동성의 직속 기관이거나 최고 책임자의 경영마인드가 직접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경기도와 산동성 차원의 정책과 행정적인 조정 시스템을 가동한 후,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양측 지역 내 대학과 공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함.
- 컨트롤타워를 통해 이해관계, 법률, 학생수급 및 배치, 행·재정 절차, 인적·물적

자원의 수출입,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합작대학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어떤 지역에,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누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합작대학 설립의 계획 단계부터 경기도의 특정 지역(판교)과 핵심 분야(IT, 바이오, 문화예술 등)에 집중하여,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 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
-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위원회는 한중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 기업, 행정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함.

4) 합작대학과 경기도 내 기업 간의 선순환 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

→ 정책 제언의 기저: 가, 다, 마

□ **경기도 내 기업이 요청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합작대학의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지원해야 함.**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지역 내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여 양성하고, 입학부터 취업까지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순발력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 운영을 통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함.
- 기존의 대학이 집중하지 못했던 재교육 과정에 합작대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집약하여 고용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유도해야 함.

□ **핵심 분야를 축으로 경기도와 산동성의 기업이 요청하는 인재를 양성할 경우 고용보장제와 연동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산동성과 지역의 기업이 고용협약을 맺어 졸업자의 70% 이상 고용을 보장한다는 협약을 맺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기업이 교육과정과 인력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실습의 기회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합작대학과 지역의 기업이 공생 관계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아젠다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

- 한중 간의 국교 수립 이후로 교육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거나 일부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있음. 아젠다 실현을 위한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국 학생들이 중국 유학을 선택하는 사유에 대한 점검이 요청됨.
 - 다양한 중국 전문가, 유학 경험자와의 인터뷰 결과, 한국 학생들이 중국 유학을 선호하는 표면적인 사유는 강대국(G2국가) 중국의 학문과 경험을 체득하는 것임.
 - 일부 내면적으로는 국내 대학 진학의 실패나 막연한 동경 등도 간과 할 수 없음.
 - 이 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 외국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대학생활, 부모님이나 지인의 권유, 중국 대학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점은 국내의 대학이 지나치게 서열화 되어 있고, 학과(전공) 간에도 이 서열 의식이 남아 있어 중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또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따른 막연한, 혹은 구체적인 기대와 중국 유학 1세대의 성공기,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 등을 접하면서 중국 유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 학생들이 중국 유학을 선택할 때 선호하는 학과(전공)에 대한 점검이 요청됨.
 -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전공)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음.
 - 첫째, 전통적으로 중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문학 중심의 학과: 중문과, 중국 철학, 중국역사, 중의학(FTA 체결 이후 의료 활동 기대) 등.
 - 둘째, 새롭게 중국이 주목받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을 가진 선호 학과: 항공우주, 농업, 교육학(비교교육, 교육철학), 국제관계, 영화, 음악, 미술 등
 - 셋째, 취업시장을 고려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기타 선호 학과: 경제학, 정치학, 물류, IT, 관광, 방송 등
 - 경기도 내에 유학 사유와 교육과정, 유학 선호 학과(전공) 등의 요구를 파악하여 만족도를 높인다면 국내에 진학할 수 있는지 점검이 요청됨.
 - 중국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경기도에 대학을 설립하거나 유치하더라도 학생 유치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중국 유학에 대한 인식은 현지의 교육과정과 수업에 국한되지 않고, 현지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사회문화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설립되거나 유치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한계가 있음.
 - 둘째, 중국 유학의 사유 중에는 국내의 교육시스템이나 환경에 매력을 못 느끼는 학생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국내 설립 및 유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 셋째, 졸업 후 인식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움. 즉, 국내 캠퍼스에서 졸업한 대학과 학과

(전공) 브랜드가 현지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야 함.

- 넷째, 학비, 생활비 등의 격차 역시 설립 및 유지에 부정적인 원인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는 국내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본 연구는 위의 점진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그 방안을 위한 5가지 아젠다를 설정하였음. 이에 따라 교류협력 강화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함.

- 이 5가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저와 경기도와 중국 간의 3가지 교류방안인 서머스쿨 운영방안, 교육교류협력기금 마련과 인턴십 교류 지원, 합작대학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음은 본 연구의 5가지 아젠다에 대한 제언으로 각 아젠다가 실현되기 위한 준비와 방안을 포괄하고자 함.



<그림 7-4> 아젠다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위한 제언

가.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한 한중 교류 확대

1) 한중 교육교류기금 마련

→ 정책 제언의 기저: 가

□ **한중 교육교류기금 마련을 위한 100억 펀드 계획 수립.**

- 교육교류의 성패가 기금 마련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교육교류 기금을 50:50의 원칙으로 마련.
- 교육교류기금의 목적과 필요성, 용도와 세부적인 활용방안 마련.
- 단순한 우호증진을 넘어선 교육교류기금의 세부적인 시너지 효과 제시.
- 펀드를 중심으로, 관련 위원회와 조직의 논의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사업의 기대효과가 증폭될 것임.

□ **운영의 주체는 양국 동수의 위원회로 구성하며 운영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학연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해 심의 및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기금활용이 원칙은 우호증진, 교육사업의 성과 및 기대효과, 지역발전과 기여도, 공모 주체의 인프라 및 의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기금활용의 전략은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계획하는 교육교류 관련 사업과 분야에 집중하여, 지역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함.

2) 경기도와 광동성·산둥성의 대학 표준화 작업 실시

○ → 정책 제언의 기저: 나, 다

□ **한중 FTA의 성과를 가시화 하고 두 지역의 대학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산둥성 지역의 대학 표준화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표준화를 위한 해외의 사례를 연구 및 조사하여 두 지역의 대학체제, 교육과정, 행정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야 함.
- EU의 볼로냐 프로세스⁶⁰⁾를 참고하여 한중 간의 동일 학제와 공동학위제 인정, 교육과정의 통일 등을 논의(경기도와 광동성 및 산둥성의 프로세스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임)해야 함.
- 전체 대학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 대학과 학과부터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수인재 유출에 대한 방지책과 양국의 인재활용 정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60)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개 EU 소속 국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모여 2010년까지 단일한 고등교육제도를 설립, 유럽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 고자 1999년에 출범한 프로그램임.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도 참여해 회원수가 47개국으로 늘었으며, 가맹국 내에서는 유럽 어느 대학을 나오든 유럽 국가에서는 어디서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임.

□ 표준화 작업의 저해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중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관리 방안의 개선을 요구해야 함.

- 이미 한국의 대학은 다양한 교육교류 방식을 연구하여 실천해 왔으나 일부 법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만약 그 사유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폐쇄성 때문이라면 경기도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공동학위제나 수업 장소의 국한성은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평가제도 등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그러므로 경기도가 제안할 방안이 중앙정부와 협의가 될 수 있는가와 현장 교육기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3) 가상 대학원의 운영

→ 정책 제언의 기저: 라, 바

□ 경기도와 산동성의 산학연이 공동으로 가상 대학원을 운영한다면 입시와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시장에서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 것임.

- 수업과 실습 과정의 이원화, 혹은 두 가지 트랙은 산학연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대학원 과정의 무크(mooc) 사업과 방학 기간을 활용한 실습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경기도와 산동성의 지정된 대학원 어느 곳에서 학점을 이수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중국 내의 다양한 역학관계 때문에 인정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먼저 인정해 줌으로서 중국 측을 견일 할 수 있을 것임.

□ 시·공간을 초월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강좌 개발 및 비교과 과정을 운영하여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장·단기 재교육과정 운영한다면 가상 대학원 과정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가상 대학원은 대학의 표준화 작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활용 가능함.
- 인터넷, 스마트폰, 웹, 사이버,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양국의 특성을 반영한 가상

대학원의 운영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규정화 되어 있는 대학과정에 비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기본 인프라 투입 이후에 추가 투입 예산이 적은 편이며, 교육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나.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1) Next 판교의 한중 산학연 클러스터 기지화

→ 정책 제언의 기저: 다

□ 산학연의 활성화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 센터 설립.

- 판교의 입지와 특성을 활용한 경기도의 최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 대학 연구역량의 산업화, 연구기관의 특허, 연구실적의 영역 확대 및 성과의 가시화 등이 가능함.
- 경기도의 비전과 산학연 생태계 활용을 통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음.
- 공간적 유기성과 네트워크의 종합성에 기반한 클러스터의 고부가가치성이 확보될 경우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선전(深圳) 과기원과 베이징 중관촌의 사례 벤치마킹.

- 선전은 중국 최대의 창업 도시로, 풍부한 기술 인력과 함께 공장, 부품 공급, 유통 시스템 등 제조업의 전후방 공급망이 발달되어 있고, 수많은 금융·투자기관과 전문 창업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들이 모여 있어 효율성이 높은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⁶¹⁾.
-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알려진 베이징의 중관촌은 중관촌 관리 기관, 창업지원기관, 창업 인큐베이션센터, 협력대학과 연구소, 국내외 우수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4년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98개사가 입주할 만큼 세계적인 기술 창업 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선전과 베이징의 공통점은 모두 산학연 중심의 특정 지역이 유기적 클러스터의 역할을 원활하기 담당했기 때문임.

61) SCIG(Shenzhen Creative Investment Group)는 문화·교육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공단지역을 문화·교육 중심의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스마트 하드웨어, 산업디자인, 3D 디자인, 카툰 및 애니메이션 등 2015년 기준으로 168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이며, 3,800여 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2) 경기도와 산동성 중심의 무크 사업 추진 및 활성화

→ 정책 제언의 기저: 마, 바

□ 무크사업의 컨소시엄 추진 및 강좌 개발.

- 경기도와 산동성의 수요 조사를 통해 무크사업의 필요성과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을 확보해야 함.
- 산학연 중심의 강좌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접점을 찾아 초기 무크 방식의 수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강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무크 이수자가 학점, 진학, 인증 등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협약을 맺어야 함.
- 강좌 개발과 강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피드백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무크사업 성공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교수학습개발(지원)센터협의회와 협력하여 무크사업의 우수 인력, 문제점, 연계 교육기관, 인프라, 규모와 형식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적극적으로 무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전국 단위 계획과 연동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만 차별화할 것인지 판단해야 함.

다. 한중 유학생 지원 체제 개발

1) 통합 앱 클러스터(솔루션) 개발 및 보급

→ 정책 제언의 기저: 라, 바

□ 유학생과 예비 유학생을 위한 통합 앱을 개발하여 정보 제공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 보완.

- 대학정보, 지역정보, 경기도의 특성화된 산업 및 기업정보 등을 총망라하여 앱으로 제공함.
- 앱 개발을 통해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쌍방향 교류를 위한 중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유학생 스스로가 정보를 올리고 답하며, 산학연이 함께 접속할 수 있는 앱을 통해 저비용의 컨트롤타워와 클러스터 역할이 가능함.

□ 앱 클러스터(솔루션)의 활용과 장점

-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 저비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극대화된 편리성.
- 정보 제공자와 수혜자, 관리자 및 관계 기관이 모두 다각적인 커뮤니케이션 가능.
-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 산업, 유학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소화된 툴(tool)임.
- 경기도와 산동성의 유학생과 예비 유학생의 생활환경에 적합함(IT, 앱, 인터넷 강국).
- 앱 개발은 홍보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

2) 한중 국제교류센터 설립

→ 정책 제언의 근거: 가, 나, 라

□ 한중 국제교류의 메카로 국제화 업무, 교류, 사업, 점검 및 관리 등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요청됨.

- 산학연의 교류 및 교-학(Teaching & Learning) 공간으로 적극 활용.
-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성 확충과 성과 발표, 교류협력의 중핵적인 역할 기대.
- 정보 공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류사업의 성과 유도.

□ 유학생촌 구축을 위한 준비 과정과 추진 동력 기관으로 활용.

- 기숙사, 강의, 미팅, 방송, 기자회견 등이 가능한 국제적인 유학생촌의 전초기지 조성.
-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과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 국제 프로그램 활성화와 산학연의 홍보 및 민원 처리 업무 가능.
- 인턴 및 취업을 융합한 블랜디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먹거리, 문화체험, 예술 공연, 교육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경기도의 랜드마크로 성장 기대.

3)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마련

→ 정책 제언의 근거: 나, 다, 마

□ 고등학교의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 법적, 제도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세부 시행령 마련.

-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 및 인센티브 제도 확립.
- 중국 대학 유학반의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국제교류센터의 지원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기숙사, 생활정보 소개, 한중 대학 정보 등을 간접 관리해 줄 수 있는 국제교류센터의 연계 방안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음.

라. 한중 맞춤형 핵심 산업 인재 양성

1) 경기도의 한중 맞춤형 인재 개발 모듈

→ 정책 제언의 기저: 다, 라

단계 1: 산업분야별 인력의 수요 파악.

- 경기도 주요 산업 단지의 인력 상황을 파악하여 분야별 산업인력 수급과 전망을 조사해야 함.
- 수요자와 공급자, 매개 주체와 지원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컨트롤타워의 계획적 접근이 요청됨.

단계 2: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 내 주요 산학연 기관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중 가능한 분야부터 지정하여 수요 파악에 근거한 교육과정 운영.
- 산학연 협력 기관으로 특성화된 대학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촉진하되, 2-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는 A대학, IT 분야는 B대학, 문화예술은 C대학을 우선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인증함.
- 2-3개 기관이 공동운영하는 융복합 프로그램은 컨소시엄 형태로 경기도가 위탁하여 관리함⁶²⁾.

단계 3: 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중국 유학생의 중소기업 진출.

62) A+B+C 대학 공동의 IT+ 영화산업 인재 양성 과정 등.

- 인재 개발 모듈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 유학생 인력 확보 가능.
- 중국 현지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 확대.
- 순발력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산학연이 상생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 마련.

□ 한중 맞춤형 인재 개발 모듈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맞춤형 주문식 인재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경기도 내 대학과의 협력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학년 2학기, 혹은 방학 중에 맞춤형 인재과정 편성.
-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인재를 위한 ‘중국어+ α ’⁶³⁾과정 운영.
-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연동할 수 있는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우수 중국인 유학생과의 매칭 프로그램으로 활용⁶⁴⁾.

마. 한중 대학교류 확대 방안

1) 컨트롤타워를 통한 대학 교류 활성화 방안 수립

→ 정책 제언의 기저: 가, 라

□ 산발적인 대학의 교류 프로그램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조정 능력 확충.

- 한중 대학 교류의 유형과 우수모델 개발을 통한 행·재정 분야의 지원 역량 구비.
-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중 대학 교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 우수 대학 사례 발굴 및 교류 프로그램 공모 등 시상 및 지원 전략의 주체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2) 광등성과의 서머스쿨 활성화 및 저변 확대

→ 정책 제언의 기저: 나, 다, 바

63) 중국어와 기업이 희망하는 한 가지 기술을 연마하여 실용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중국어와 IT, 중국어와 인문학, 중국어와 회계, 중국어와 마케팅 등.

64) 구조개혁평가에 의해 각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률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 이에 취업 보장제를 목표로 3단계 맞춤형 인재개발 모듈의 운영은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광동성과의 서머스쿨을 통한 비정규과정 교류 활성화.

- 학습, 문화교류, 우호증진, 관광을 융합한 양질의 서머스쿨 프로그램 개발.
- 홈스테이, 대학 기숙사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도와 광동성의 실제적인 민간 차원의 교류 방안으로 활용.
- 경기영어마을(파주)에만 국한하지 말고, 교육기관, 문화 인프라 중심의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의 성공적인 모델을 확대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인 서머스쿨 운영.

- ‘학습, 진학, 취업’ + ‘문화예술, 관광, 이벤트’ 가 연계된 선택형 교육과정 준비.
- 서머스쿨 이후의 종단 조사를 통한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 서머스쿨 경험 학생을 예비 유학생, 예비 산업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및 데이터 축적.

3) 한중 대학생 포럼 개최

→ 정책 제언의 기저: 가, 나, 라

□ 순환제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 개최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우호 프로그램 조성.

- 경기도지사와 산둥성장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양국의 대학생 대표의 발표와 우호 프로그램(체육대회, 공연 등) 등으로 편성.
- 정례적 행사에 양국의 기업이 후원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 매칭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정보공유, 유학, 취업, 탐방 및 이해 등의 실제적인 강점 외에도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성장 가능함.

4) 유학 박람회를 통한 정보 교류의 플랫폼 마련

→ 정책 제언의 기저: 다, 라, 마

□ 한중 유학 박람회를 통한 경기도와 산둥성의 공신력 있는 정보 교류의 공간 확대.

- 유학업체 중심의 박람회를 탈피하여 경기도와 산둥성이 직접 교육기관을 매칭해 줄 수 있어야 함.

- 유의미한 정보의 교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산둥성의 공동 인증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학 박람회에 참여한 교류협력 기관 및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행정적 간소화, 유학지원금 지원 등이 가능하며 우선 선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박람회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교육사업과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판교와 산둥성 지남(濟南)의 마이스 기지 형성을 위한 예비 단계로 활용할 수 있음

- 경기도의 판교와 산둥성의 지남을 거점 기지로 서머스쿨, 대학생포럼, 유학박람회가 국제교류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역동적인 마이스 기지 형성이 가능할 것임.
- 예비 단계의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두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안이 요청됨.
- Next 판교의 계획과 직·간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마이스 기지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 경기개발연구원(2011),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 경기도(2015), 산동성 대학 교류현황 (산동성 대학교류 협의회 자료).
- 경기도청(2012),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 경기도청(2015), 경기도정 주요지표.
- 경기도청(2015), 중국 교류지역별 추진사업.
- 구자역(2013), 합작대학 설립방안, 교육개발원.
- 구자역·박영진·안병환(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구자역·김한나·서희원·김숙이·이경자·전춘련·계근호·김주석·서소주(201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구자역(2015), 경기도와 산동성 내 대학 간 교류협력 증진방안, 경기도 대학교류 협의회 자료
- 구자역·김한나·박승찬·박영진·이경자외(2013),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 국립국제교육원(2014),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 김미란(2011). 외국대학 유치모델 및 기준 연구: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하·최성환·이은정·황선아(2015), 경기도 대학 간 효율적 연계 협력을 위한 연구, 경기연구원.
- 김태경·권대한·최준영(2012), 대학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2012), 외국인 유학생 채용수요 조사 결과.
- 모종린(2011), 해외대학 유치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글로벌교육리포트 제7호, 글로벌교육 포럼, pp.1-44.
- 문성주(2013),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 만 명 졸업생 중 1%뿐, 한국세계유학생 선교협회.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7156>, 검색일 : 2014.5.3.
- 산업통산자원부(2014), 뿌리산업 기술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보도자료, 2014.3.6.)
- 신경진(2013), 양보다 질... 관리 내실화로 '코리아 패싱' 돌파 . 중앙SUNDAY. 2013. 10. 13.
- 신의항(2012), 중국고등교육의 국제화,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1호, pp.169-212.
- 이경자(2013),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 중국학 논총 제41집, pp.301~322.
- 이희옥(2003), 동북아시대 시민사회와 문화교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친구상』 심포지움 발제문.
- 주취정·안선화·강경완·김민정·전월평(2009), 해외 대학 유치 사례 국제 비교연구. 교육

- 정치학연구, 16(3), 191-219.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10), 「教育部关于執行《高等學校接受外國留學生管理規程》有關問題的通知」, 『教外來』, 18號.
- 최규발(2011), 재중 한국유학생 및 졸업생 현황과 취업실태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최석준(2010), 글로벌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강화 방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개발연구사업 보고서.
- 최항순·한민구·정선양·신경호·신영균·이준규(2012),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림연구보고서.
- 하연섭·문우식·박인우·한유경(2012), 인증제 시행에 따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변화 및 제도 보완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 김보경(2015),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pp,1-7.

연구책임

구자역(서경대학교)

공동연구

박영진(용인대학교)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권주형(숭실대학교)

김주석(중부대학교)

경기도 · 중국 대학 간 협력강화 및 중국 대학 유치타당성 연구

- 인 쇄 2016년 3월
- 발 행 2016년 3월
- 발행인 경기도지사
- 발행처 경기도 교육협력과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전화번호 031-8008-4642
- 연구기관 서경대학교 한국학교컨설팅연구소
 -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 전화번호 02-940-7092

※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